

(19th)

GOVP1200208435

3/12.리
L 2/3 음

최 종
연구보고서

인터넷을 이용한 농촌 보육 프로그램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Study for Developing Child Care Program and Parents

Counseling Program Using Internet in Rural Communities

혼합연령 보육 프로그램 : 언어 · 사회성 발달

-그림 이야기책을 활용한 유아의 문해 능력 발달-

Day-Care Program of Mixed-Age in Young Children

: Focused on Language and social Development

-The Scaffolding of Literate Ability in Young

Children with Picture-Story Book-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농 립 부



<목 차>

제 I 장. 언어활동	1
1. 활동 구성	1
2. 활동전개과정	6
제 II 장. 극 놀이 활동	87
1. 프로그램 구성요소	87
1 교사의 협의	87
2 환경구성	90
3 극 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유형	96
4 극 놀이 시간	97
5 교사의 역할	98
6 기대효과	98
2.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99
1 자연발생적 극놀이(다양한 주제의 극놀이)	100
2 흥미의 중심이 되는 극놀이 비디오 감상	121
3 재구성한 극놀이	124
4 재구성한 극놀이 비디오 감상	129
5 재구성한 극놀이 2	132
6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136
7 창작한 그림이야기책 공유하기	149

제 I 장. 언어활동

1. 활동 구성

1. 활동의 배경

지속적인 그림책 함께 읽기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6, 7세 유아들은 글자와 소리를 짝지어 소리내어 읽을 수 있고 편지를 쓰거나 책 만들기를 하고 “이 책 읽어주세요”라고 하였다. 6세 유아의 경우는 그림 이야기책의 글자를 읽거나 쓰기를 하는 것은 어려워하고 있었다. 또한 글씨를 쓰는 유아는 자신의 생각을 단어를 이용하여 표현하기보다는 성인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쓰는 것에 익숙하여 있었다.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자를 이용하여 표현하거나 책과 상호작용을 하며 읽기가 부족하였다. 이 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에게 그림 이야기책 읽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림 이야기책을 함께 읽는 것보다는 모르는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강조되어왔다. 따라서 교사의 그림 이야기책 읽어주기 활동은 보육계획에서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좋은 그림 이야기책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유아들이 볼 만한 좋은 그림 이야기책이 부족하여 100여권 가량의 새로운 책을 선정하여 어린이집에 제공하였다.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의 도입은 책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글은 읽고 써야 한다는 도구적 기능으로만 알고 있는 유아의 경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2. 교사와의 협의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 언어활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교사는 유아의 반응을 읽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매일 전화하고, 연구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통하여 협의하였다. 연구자는 활동계

획을 가지고 있되 이를 교사와의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유아의 반응에 따라 적용, 수정하여 나갔다. 즉 활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유아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 적용되었고, 유아가 활동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심화하여 갈 때 교사와 연구자는 활동을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1) 그림 이야기책 선정

교사는 좋은 그림 이야기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미 널리 알려져 많은 유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좋은 그림 이야기책을 연구자가 선정하여 책을 어린이집에 빌려주었다. 교사는 이렇게 선정된 그림 이야기책을 유아들과 함께 읽으면서 좋은 그림 이야기책이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활동 전개 과정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에서 시작된 언어활동은 점차 유아들의 반응에 따라 그 내용이 구성되어갔다. 교사는 그림이야기책 읽기 활동에 따른 유아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관찰하면서 유아들의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연구자와 나누었다. 교사와 연구자의 논의에서 활동의 전개과정이 도출되었다. 협의된 전개과정은 교사에 의해 진행되면서 유아의 반응에 따라 수정되고, 변화되었다.

연구자와 교사의 협의는 활동의 전개 과정도 중요하였으나 언어 특히 읽기, 쓰기에 대한 관점에 대한 토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교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글자해독 의미의 읽기와 철자에 맞는 글자 쓰기의 의미를 수정되었다. 교사는 점차 유아가 생각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읽기와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 쓰기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는 연구자에 의해 제안되어 교사와 협의를 거쳐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교사는 그림 이야기책만을 함께 읽는 활동에 대한 의미

를 찾지 못하였으나 점차 유아들의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고 책을 읽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교사 역시 이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 교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던 편지 쓰기 활동을 확장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유아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편지함을 설치하였다.

- 의성어와 의태어 찾기와 말 만들기 활동은 연구자의 제안으로 교사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교사는 유아가 찾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벽에 게시하는 것을 연구자와 협의하여 유아의 활동을 격려했다. 의성어와 의태어 찾기는 유아와 교사가 주변을 탐색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되었다.

-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림 이야기책과 동시는 교사가 다른 유아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 활동이 퍼져가게 되었다.

3. 환경구성

1) 그림 이야기책 비치

원장과 교사는 그림 이야기책을 비치하기 위하여 복도와 계단의 벽면에 아크릴판으로 책을 비치할 수 있는 판을 설치하여 유아가 그림 이야기책 표지를 보고 그림 이야기책을 꺼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1층과 2층의 로비에 소파를 두어 유아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2) 편지 쓰기 영역 만들기

유아의 편지 쓰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영역을 만들어 그림 이야기책이 비치되어 있는 2층 복도에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하였다.

3) 편지함 만들기

유아들이 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아개개인마다 투명한 펠트병의 아래 부분을 잘라 각각 유아의 이름을 부착한 편지함을 만들어 벽에 붙여두었다.

4) 의성어, 의태어 게시판

유아들이 찾아낸 의성어, 의태어를 워드작업하여 우드락에 붙여주고 그 단어 아래 유아가 자신이 의성어, 의태어로 만든 글과 그림을 붙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5) 의성어, 의태어 파일비치

게시판의 의성어, 의태어를 떼어내어 클리어 파일에 끼워 도서영역에 비치하여 유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6) 유아가 만든 그림 이야기책 비치

유아들이 만든 그림 이야기책 역시 다른 그림 이야기책과 함께 도서영역에 비치되어 다른 유아들이 읽어보도록 하였다.

4. 언어활동 시간

1)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

교사와 유아의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는 대집단으로 거의 매일 오전 10시에 10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2) 다른 언어활동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책읽기가 끝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또는 11시 30분까지 소집단과 개별활동으로 진행되었다.

5. 교사의 역할

언어활동에서 교사는 유아의 활동을 지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유아의 언어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확장, 심화될 수 있도록 유아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는 유아가 그림 이야기책을 읽고 유아의 책에 대한 감상을 지도하지 않고 먼저 유아가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를 좋아하도록 지원하였다. 유아의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면

서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는 단순한 함께 읽기에서 그림 이야기책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과 관점을 더욱 자극하여 갔고, 새로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함께 읽기를 하게 되었다. 점차 교사의 지도보다는 유아들이 그림 이야기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예측하도록 하여 책과 유아가 자발적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또한 의성어와 의태어 찾기와 말 만들기 역시 교사는 활동을 제안하였지만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유아들의 활동결과물을 게시하고 이를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유아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유아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교사는 유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이야기책 만들기 역시 유아들이 책읽기에 익숙해지면서 그리고 주인공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제작한 이야기책을 다른 유아들에게 읽어주었고 이러한 지원이 다른 유아들에게도 그림 이야기책을 제작해보도록 하는 자극이 되었다.

동시 역시 교사는 동시를 읽어주었고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동시 짓기를 시작하였다. 이 활동 역시 교사는 유아의 반응을 기다려 주면서 이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였다.

6.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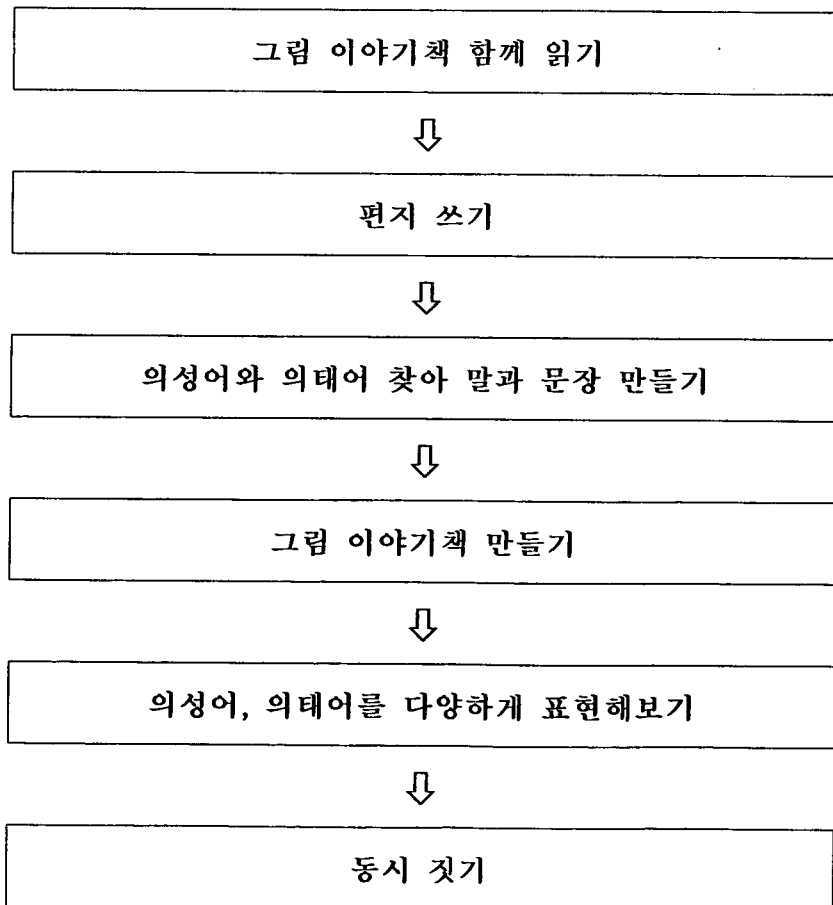
언어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유아가 책의 중요성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자 한다.
- ② 유아가 이야기 듣기를 통해 문어가 어떻게 구어로 변환되는 지를 알게 되고, 또한 글에서 사용될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언어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얻도록 하고자 한다.
- ③ 유아가 책의 이야기에서 자신들이 읽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알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④ 유아가 책읽기를 통하여 글자카드나 학습지로는 알 수 없는 인쇄되는 방

향, 쪽이 의미하는 것, 그림과 글의 관계 등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고자 한다.

⑤ 유아가 성인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책의 언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보고, 문자나 그림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고자 한다. 즉 유아가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2. 활동전개과정



활동 1.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

1) 활동의 배경

교사가 선정한 새로운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었다.

유아: (등원하면서) 동화책 언제 읽어줄 거예요?

유아: 오늘 읽어줄 동화책의 제목은 뭐예요?

그림 이야기책 읽기 활동 초기에 교사는 유아가 구연동화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였고 유아들 역시 구연동화 듣기에 더 익숙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그림 이야기책을 듣고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에 그림 이야기책 읽기가 보육활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 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2) 활동전개시기

(1) 전개기간 및 활동시간

전개 기간: 6월 셋째주 - 11월 넷째주

활동 시간: 오전 자유선택활동이 끝나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매일 20-30분

대집단 활동으로 운영하였다.

(2) 전개시기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는 크게 두 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시기(6월-8월 말)에서는 유아들이 그림 이야기책과 친숙해지고 그림 이야기책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또한 유아들이 자신들이 읽고 있는 세계에 대해 알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이야기책의 구성, 그림과 글의 관계등을 이해하였다.

두 번째 시기(9월-11월 말)에는 유아가 이야기 듣기를 통해 문어가 어떻게 구어로 변환되는 지를 알게되고, 또한 글에서 사용될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언어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다. 책의 언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언어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였다. 이 시기에 유아들은 또래들과 함께 그림 이야기책을 읽기를 즐기게 되었고, 부모들 역시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빌려온 그림 이야기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의 의미를 느껴가게 되었다.

3) 활동 자료 및 환경구성

(1) 활동자료

그림 이야기책 100여권의 제목:

키가 큰 아이가 되고 싶어요, 여섯 사람, 팔려가는 당나귀, 곰, 아기 오리들한테 기을 비켜주세요, 사과가 쿵, 네모의 북, 달님이 본 것은?, 비오는 날, 나무꾼과 호랑이 형님, 폭죽소리, 비밀의 방, 으뜸 헤엄이, 세 개의 알, 야 우리기차에서 내려, 세 친구들의 즐거운 나들이, 개에게 뼈다귀를 주세요, 단군 신화, 개구리 왕자 뒷이야기, 꿀꺽꿀꺽 나라, 말괄량이 기관차 치치, 눈 사람 아저씨,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 비오는 날, 장승, 해시계 물시계, 씨실 날실, 털복숭이 몽치, 하멜론의 피리부는 사나이, 고인돌, 고구려 나들이, 연아연아 날려라, 쪽빛을 찾아라, 한지 돌이, 크리스마스 선물, 크릭터, 컴퓨터 가족의 불만, 작은 배, 바다 건너 저쪽, 굴러라 바퀴야, 산양을 따라 갔어요, 개구리의 세상구경 1, 개구리의 세상구경 2, 7년동안의 장,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지구를 굴리는 곰이야기, 자장 나들이, 산타 할아버지의 휴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누가 곰순이 잘 재워줘, 옥이의 약속, 누구의 손일까, 고래들의 노래, 멋진 뼈다귀, 개구리와 두껍이의 하루, 아빠 곰이 집으로 왔어요, 새벽, 심심해서 그랬어, 보르카, 쥐돌이는 화가, 술이의 추석이야기, 떡갈나무 호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다, 이야기 이야기, 내 친구 커트니, 익살꾸러기 삼총사, 바람부는 날, 오소리네 집 꽃밭, 쇠똥 구리구리, 개구리 왕자,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 달 사람, 심심해서 그랬어,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돼지 삼형제, 털 복숭이 몽치, 바람과

햇님, 아씨방 일곱 동무,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숨쉬는 향아리, 장터 이야기, 마녀 윙윙, 꼬마곰에게 뽀뽀를, 마고할미, 행복한 왕자,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아무도 모를거야 내가 누군지, 괴물들이 사는 나라, 프레드릭, 다람쥐, 신데렐라, 무지개 물고기, 날좀 도와줘, 우리 할아버지, 나는 산토끼예요.

(2) 환경구성

그림 이야기책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들이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교실벽과 복도 벽에 아크릴판을 붙여 책을 비치하였다. 또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교실 밖 복도에 마련하여 유아가 교실안과 밖에서 책을 읽도록 하였다.

4) 교사의 역할

그림 이야기책 읽기 활동에서 교사는 유아에게 읽어줄 그림 이야기책을 선정하고, 유아의 요구에 따라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교사는 유아가 그림 이야기책 읽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유아가 듣기를 원하는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책에 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기 하루 전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보고, 유아들에게 어떻게 읽어줄 것인지를 준비한 후에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었다. 또한 교사는 그림 이야기책에 대한 특정반응을 유도하지 않도록 그림 이야기책 읽어주기에 열중하였다.

5) 활동의 전개과정

◀첫 번째 시기: 그림 이야기책의 가치 알기▶

유아의 인쇄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교사는 먼저 그림 이야기책의 표지에 있는 제목, 작가, 화가, 옮긴

이, 그리고 출판사를 먼저 읽어주고 이야기를 읽어주는 순서로 그림 이야기책 읽기를 진행하였다.

유아: 왜 동화를 읽어줄 때 마다 작가, 화가, 출판사를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유아: 왜 ○○○ 출판사 책만 읽어주는 거예요?

유아들은 점차 그림 이야기책의 글을 쓴 사람,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리고 인쇄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유아: 옮긴이는 뭐예요?

교사: 이 그림 이야기책은 다른 나라 사람이 쓴거여서, 다른 나라 말로 쓴 거여서 우리나라 말로 옮긴거예요. (2001년 6월 21일)

유아들은 점차 책이 인쇄물이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어렵풋한 이해를 축적하여 갔다.

· 교사가 「달사람」이란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었다. 그림 이야기책을 다 들은 후 유아들은 다음과 같이 책에 대하여 반응하였다.

유아: 사람이 이상하다.

유아: 투명 인간 같다.

유아: 하얀 사람이 어디에 있어?

유아: 사람이 어떻게 작아 지나.

유아: 보름달이 됐다가 반달이 되면 작아지니까 그렇지.

교사: 네 그림 이 동화책에서 어떤 것이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유아: 사라지는거요.

유아: 별 꼬리 잡는 것이요.

유아: 달 사람이 작아지는 것이요.

(중략)

유아: 달사람이 진짜 사람하고 춤추는 것이 재미있어요.

교사: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 줄까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었는지 생각 주머니를 열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사는 그림 이야기책을 다시 읽어주었다)

유아들: 어! 나 저것도 재미있었어. 저것도 재미있었는데.

교사: 이 책을 책 방에 넣어 둘테니까 읽어보세요.(2001년 7월 4일)

유아가 책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림 이야기책 읽기는 지속되었고, 책의 의미, 그림을 통한 책의 이해, 유아의 책 내용에 대한 예측과 흥미수준이 상호작용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유아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한 것 보다 유아가 책의 세계와 자신들의 세계가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교사가 대집단으로 읽어준 그림 이야기책은 다시 유아가 접할 수 있도록 언어영역에 제시하여 유아들이 또래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이야기책 「심심해서 그랬어」 함께 읽기를 끝내고

교사: 동화 내용 중 어떤 것이 재미있었니?

유아: 동물을 풀어주는 거요.

유아: 무밭에 들어가는 거요.

유아: 엄마한테 혼나는거요.

유아: 염소가 호박잎을 먹는 거요.

유아: 토끼가 무시 밭에 들어가는거요.

교사: 무시가 무엇이지 알아요?

유아: 경상도 사투리로 무시예요.

· 유아가 또 읽어달라는 요청에 교사는 유아가 마음속으로 읽도록 그림을 다시 보여주었다. (2001년 7월 5일)

유아들은 그림 이야기책 읽기를 통해 자신의 세계와 그림 이야기책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그림 이야기책의 세계를 연결시키고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었다.

· 「돼지 삼형제」

교사: 책제목, 글쓴이, 화가, 출판사를 소개하였다.

유아: 우리 들어봤지..

유아: 어제 우리가 읽어 달라고 했잖아

교사: 우리 조용히 하고 들어보자.

(교사가 책을 다 읽은 후)

교사: 어떤 내용이 재미있었니?

유아: 늑대가 돼지를 잡으려고 후하고 부는 것이 재미있어요.

유아: 둘째 돼지가 나무로 집 짓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늑대가 힘이 굉장히 센가봐요. 엉덩이 쿵쿵 치니까 넘어지니까요.

유아: 늑대가 뜨거운 물에 엉덩이가 빠져서 도망가는 것이 재미있어요.

유아: 선생님 우리 할머니 집도 벽돌로 지어서 튼튼해요.

유아: 우리 할머니 집은 버섯집이에요. (2001년 7월 13일)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가 진행되면서 그림 이야기책 읽기가 끝난 후 유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그림 이야기책을 읽거나, 책제목, 글쓴이, 화가, 출판사 알아 맞추기 게임을 하기도 하였고 종이에 제목, 글쓴이, 화가, 출판사를 따라 적어보기도 하고, 주인공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그림 이야기책과의 상호작용을 확대하였다.

· 「바람과 해님」

교사가 유아들에게 글쓴이, 화가, 출판사를 알려주자 글쓴이의 이름이 우습다고 하였다.

유아: 글쓴이 이름이 너무 웃겨요.

유아들: 맞아요 이름이 너무 웃겨요.

유아: 어느 사람이에요. 일본이에요? 독일이에요? 아니면 미국이에요?

유아: 중국이죠.

교사: 아니요 프랑스예요

권중석: 또 ○○ 출판사예요.

유아: 상반은 동화책이에요.

교사: 화가가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교사가 그림 이야기책을 다 읽고 유아들과 함께 재미있었던 것을 이야기 나누었다.

유아: 바람이요. 망토를 벗기려고 힘껏 바람이 부는 것이요.

유아: 망토를 벗고 물속에 풍덩 빠지는 거요.

유아: 새들이 하늘을 날아 다니는 거요.

유아: 바람이 불어서 배들이 바다에 빠지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배를 건져요?

(2001년 7월 19일)

◀ 두 번째 시기: 그림 이야기책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

교사는 유아들과 그림 이야기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고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것인지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책의 글쓴이, 화가,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1차시기에 읽었던 그림 이야기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주고, 새로운 책을 도입하여 반복적으로 읽었다.

· 「숨쉬는 향아리」

첫 번째 읽기

교사가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준 후 재미있던 것과 이상한 것을 이야기해보기로 하였다.

유아: 향아리가 어떻게 숨을 쉬어요?

유아: 야 자기 혼자 그냥 숨쉬지

유아: 우리 할머니 집에더 된장, 고추장 향아리가 있어요.

유아: 실제로 눈으로 숨쉬는 것이 안보여요.

유아: 예쁜 향아리들이 못생겼다고 놀리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유아: 향아리에 눈, 코, 입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아: 향아리들을 어떻게 구워요? 향아리가 어떻게 뜨겁다고 말을 해요?

유아: 야 향아리들도 말할 수 있어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

유아: 다른 향아리들은 차에 실려가는데 혼자 남아 있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요.

유아: 향아리가 숨쉬니까 김치가 맛있게 익는 거요. (2001년 8월 17일)

· 「숨쉬는 향아리」 두 번째 읽기

교사: 지난 번에 동화를 듣고 뭐가 가장 재미있었니?

유아: 향아리가 숨을 쉰다는 것이 신기해요.

유아: 향아리가 나뭇잎밑에서 졸고 있는 것이 재미있어요.

유아: 못생겼다고 놀리는것요

....

교사: 향아리 하면 뭐가 생각이나니?

유아: 김치가 생각이나요

유아들: 된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된장에 넣은 두부가 더 맛있어요.

고추장도 생각이 나요

교사: 왜 된장, 김치, 고추장 생각이 나니?

유아: 모두다 향아리에 담아 두잖아요

유아: 우리 엄마가요 김치는 정말로 향아리에 담아두어야 제일 맛이 있네요.

(2001년 9월 12일)

점차 유아와 교사 모두 그림 이야기책 읽기가 지속되면서 교사는 유아가 그림 이야기책의 세계에 빠져드는 모습에 그림 이야기책 읽기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유아 역시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세계를 중심으로 교사와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을 즐기게 되었다.

· 또래와 함께 그림 이야기책 읽기

교사가 읽어주는 그림 이야기책 읽기 활동은 점차 유아들간에 그림 이야기책 읽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감정없이 줄줄줄 그림 이야기책의 글자를 읽어내려 가던 유아들은 또래에게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면서 목소리를 변화시켜 책을 읽어주었다. 유아들은 성인의 도움을 받아 그림 이야기책을 읽던 것에서 독립적으로 읽고, 또래에게 읽어주면서 그림 이야기책 읽기를 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갔다.

· 부모와 함께 그림 이야기책 읽기

교사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읽는 그림 이야기책을 부모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도서 대출을 실시하였다. 유아들이 부모와 집에서 읽기 원하는 책을 고르게 하여 집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이 만들거나 다른 유아가 직접 만든 그림 이야기책도 대출하여 갔다. 부모들에게 유아와 책을 읽고 난 경험을 적는 활동지를 책과 함께 가정으로 보냈다. 활동지는 두가지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첫째, 책을 읽고 아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둘째, 책을 읽어 주었을 때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부모들은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읽는 책을 가정에서 함께 읽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지를 통해 유아와 그림 이야기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2001년 10월 30일)

※ 책을 읽은후 이런 활동을 해 보세요※

날짜 / / 책제목 (재물) 읽은 아이 이름 준이

1 책을 읽고 아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엄마> 준이는 주인공 맥스처럼 이런 여행을 하면 어떨것 같니?

준> 자기 있을 것 같아
괴물들과 함께
숨박꼭질 하고 선장놀이 같은 거 할거야.

2 책을 읽어 주었을때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몇 번 읽어보았는지 책 표지를 보고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을 확인하듯 듣고 엄마가 차분하게 읽으면 아이도 조용히 듣고 엄마가 표현으로 행동하면 준이는 더욱더 과격하게 행동해서 재미있게 보았다.

활동지의 내용

1. 책을 읽고 아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엄마: 준이는 주인공 맥스처럼 이런 여행을 하면 어떨것같니?

준이: 재미있을 것 같아 괴물들과 같이 나무타기 하고 그네타고 괴물들과 숨박꼭질도 하고 선장놀이도 하고 재미있겠다.

2. 책을 읽어 주었을 때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몇 번이고 읽어보았는지 책 표지를 보고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을 확인하듯 듣고 엄마가 차분하게 읽으면 아이도 조용히 듣고 엄마가 표현으로 행동하면 준이는 더욱더 과격하게 행동해서 재미있게 보았다.

많은 부모들이 유아가 그림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고, 어떤 부모는 유아와 책을 다 읽고 함께 책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부모들 역시 그림이야기책 읽기는 글자를 읽고 해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유아가 책과 상호교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6) 행동변화

- ① 그림 이야기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②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를 통해 유아들은 점차 책은 맞게 읽고 쓰여진 내용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책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을 여기게 되었다.
- ③ 그림 이야기책의 지은이, 화가, 번역, 출판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따라서 책의 제작과정을 알게 되었다.
- ④ 유아들은 성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그림 이야기책을 읽게 되었다.

활동 2. 편지 쓰기

1) 활동의 배경

유아의 편지 쓰기 활동은 언어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던 활동을 연계하여 확장하게 되었다.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 활동과 함께 유아의 편지 쓰기 활동의 병행을 통해 유아의 쓰기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편지 쓰기는 유아에게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경험하게 한다. 편지는 정해진 독자를 염두에 글을 써 보므로 글의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2) 활동의 전개시기

활동 시기: 9월 첫째주 - 11월 네째주

활동 시간: 자유선택활동

3) 활동 자료 및 환경구성

(1) 활동 자료

다양한 모양, 크기, 색상의 종이

(2) 환경구성

처음에는 유아들에게 편지 쓰기 영역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도서 영역에 비치하여 주었다. 그리고 유아들의 편지가 배달될 수 있도록 유아 개인별 편지함을 제작하여 교실 벽면에 붙여 두었다.

4) 교사의 역할

교사는 유아들의 편지 쓰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편지 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 크기, 색상의 종이를 유아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교사는 유아의 편지함에 모아둔 편지를 함께 읽어보기도 하고 유아의 편지에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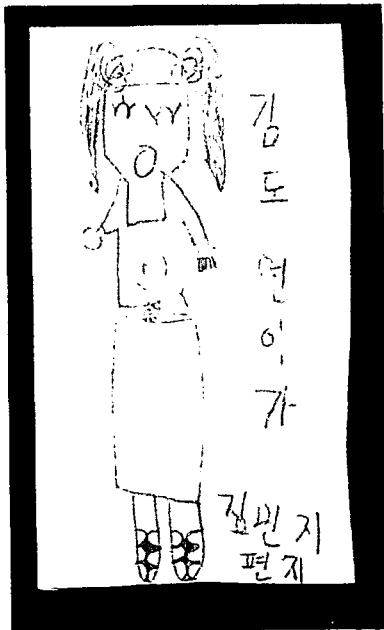
가져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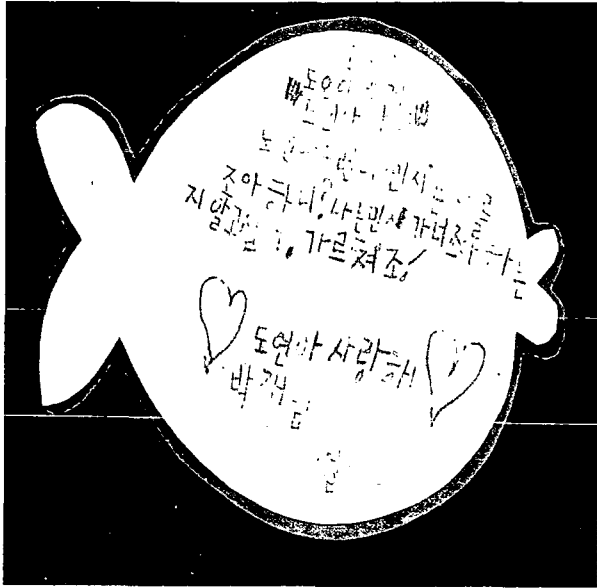
5) 활동 전개과정

◀첫 번째 시기: 편지를 이용한 유아의 정서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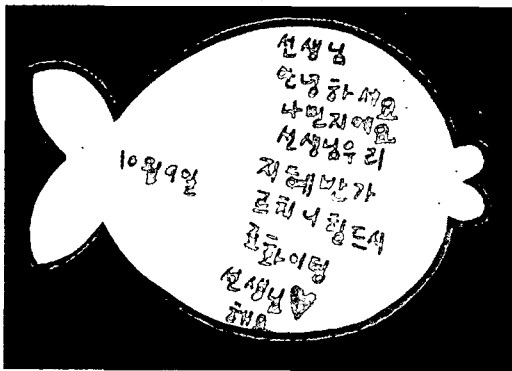
유아들간의 편지 쓰기는 언어영역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활동이었다. 편지는 유아들간의 정서적 느낌이 교환되는 수단이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이 편지는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주고 있다. 유아들에게 편지는 사회적 상호의 한 유형으로 이용되었다. 유아들은 교사와 친구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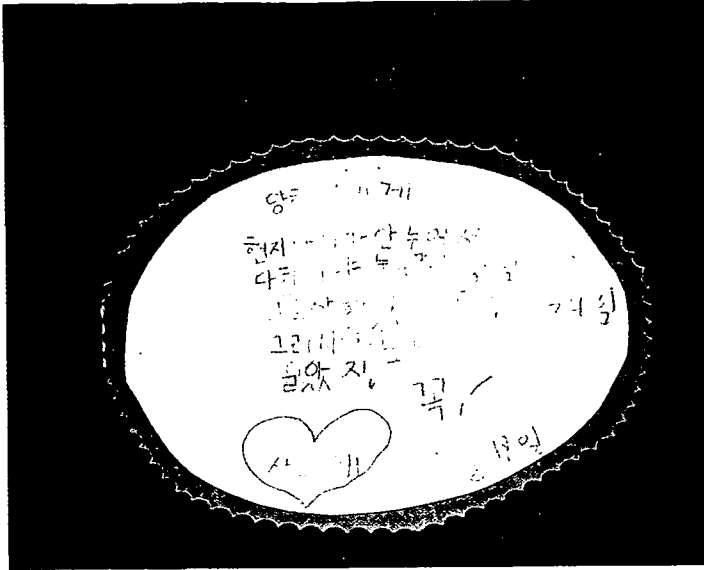


도연이에게
 도연아 안녕
 도연아 그런데 민지는 너를 좋아하니? 나는 민지가 저 좋아하는지 알고싶어. 가르쳐줘! 도연아 사랑해 박재임 9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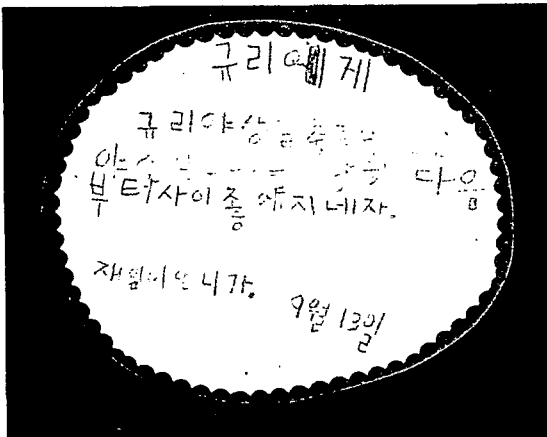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민지예요 선생님 우리 지혜반 가르치니 힘드시죠
 확이팅 선생님해요
 10월9일

편지에서 유아는 다른 유아의 생활태도를 교사의 관점에서 적어 전달하여 다양한 관점을 하나의 글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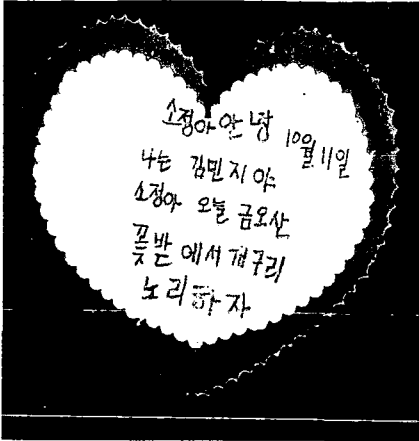


양현지에게
 현지야 너가 안누워서 다행이야 누우면 선생님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눕지마 알았지. 꼭!
 사랑해 9월 18일

아래의 편지는 다른 유아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 유아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적었고, 오른쪽 편지는 한 유아의 다른 유아에 대한 놀이 초청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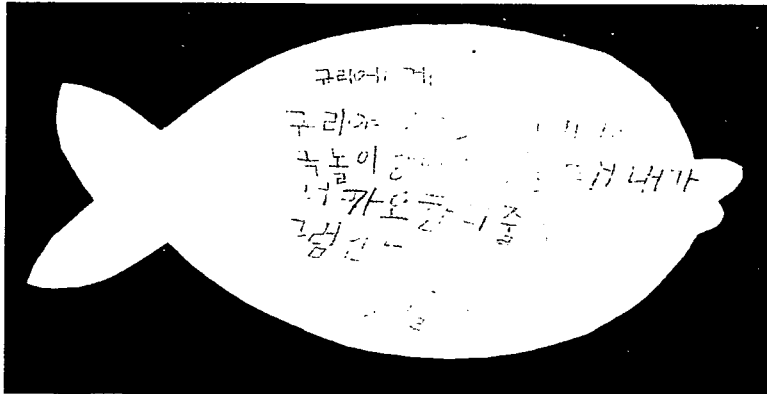
소정아 안녕 10월11일
 나는 김민지야 소정아 오늘
 금오산 꽃밭에서 개구리노리하자



규리에게

규리야 생일축해 규리야 언니는 너를 사랑해 다음
부터 사이좋게지네자. 재임이언니가. 9월13일

다음의 편지 역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유아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편지는 유아의 내면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드러나는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유아들 역시 편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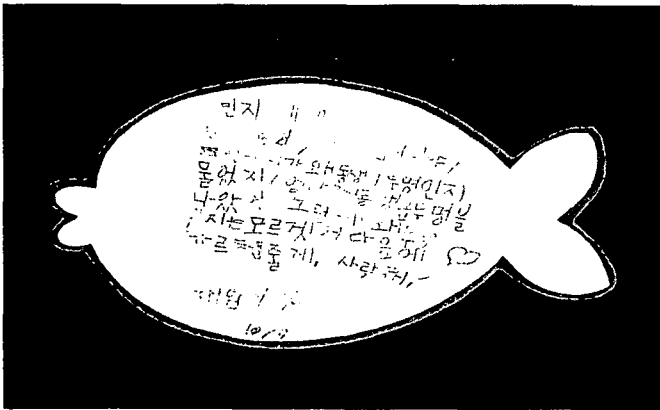
규리에게

규리야 있잖아 네가 극놀이방에서 왔을때내가 너가 오한나줄알았어
그럼 안녕 9월 17일 재임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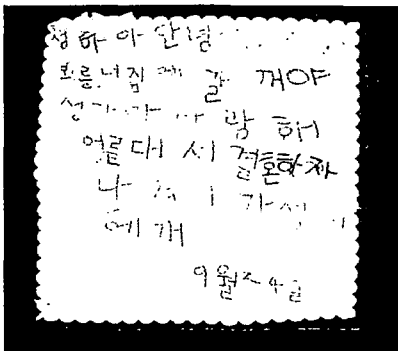
◀ 두 번째 시기: 편지의 다양한 역할 ▶

유아들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던 편지는 점차 다른 유아에 대한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기능을 하면서 유아들간에 답장이 오고 가게 되었다. 유아들은 점차 상대방의 답장을 기대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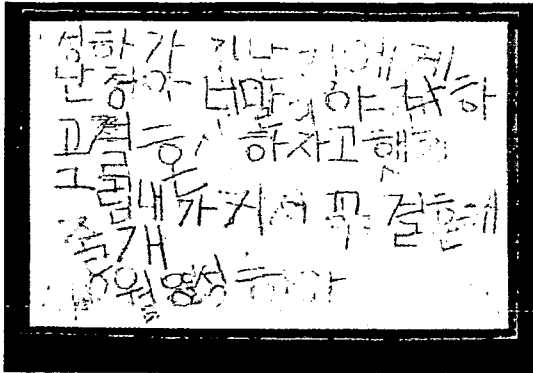
유아들간에 편지는 서로의 감정을 산고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개인의 정보를 교류하였다. 편지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계발하여 주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민지에게 민지야 안녕, 나 재임이야, 그러네 너가 왜 동생이 두명인지 물었지? 엄마가 동생두명을 낳았어. 그런데 왜 두명 인지는 모르겠어 다음에 가르쳐줄게, 사랑해, 재임이가 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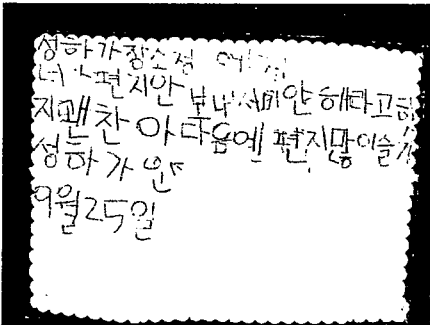


성하야 안녕 오를너집에 갈꺼야 성하야 사랑애어른대서 결혼하자 난경이가 성하에게 9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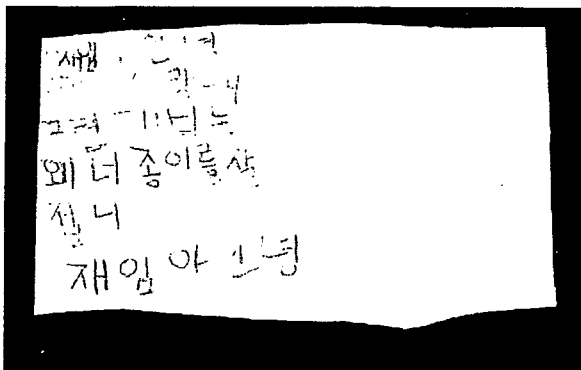


성하가 김난경에게 난경아 너말이
야 나하고 결혼하자고 했지 그럼 내가
커서 꼭 결혼해줄게 10월 8일 성하가

첫번째 시기와 달리 유아들은 이제 답장을 기대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고, 편지를 받은 유아는 이에 답장을 하게 되었다. 편지는 유아들 개인간의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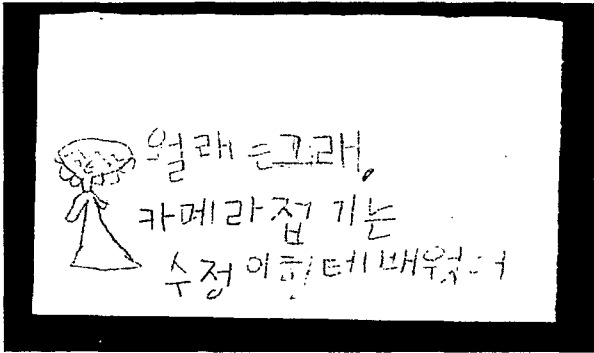


성하가 장소정에게
너 편지안 보내서 미안해라고 했지 괜찬아
다음엔 퍼니 많이 슬개
성하가 9월 25일



재임아 안녕 재임아 사랑해
그런데 저는 왜 너 종이를 잘
접니
재임아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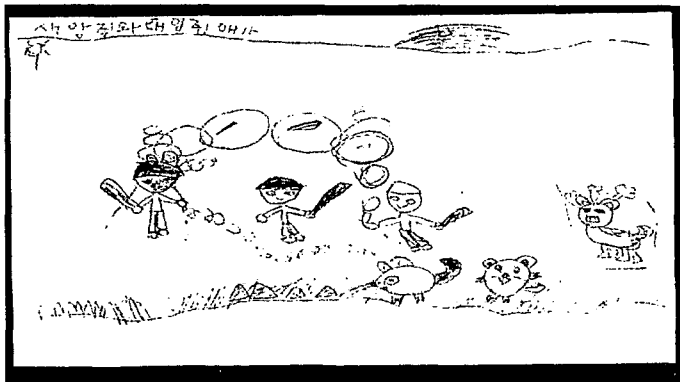
월래는그래, 카메라잡기는
수정이한테배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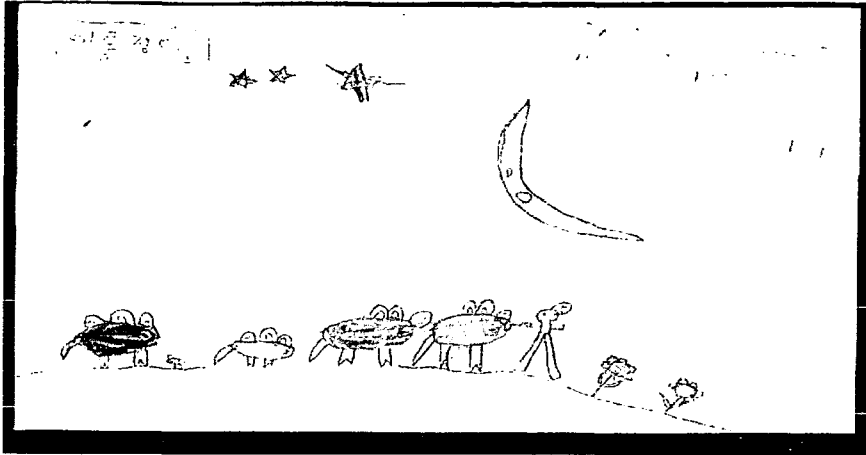


◀ 세 번째 시기: 그림 이야기책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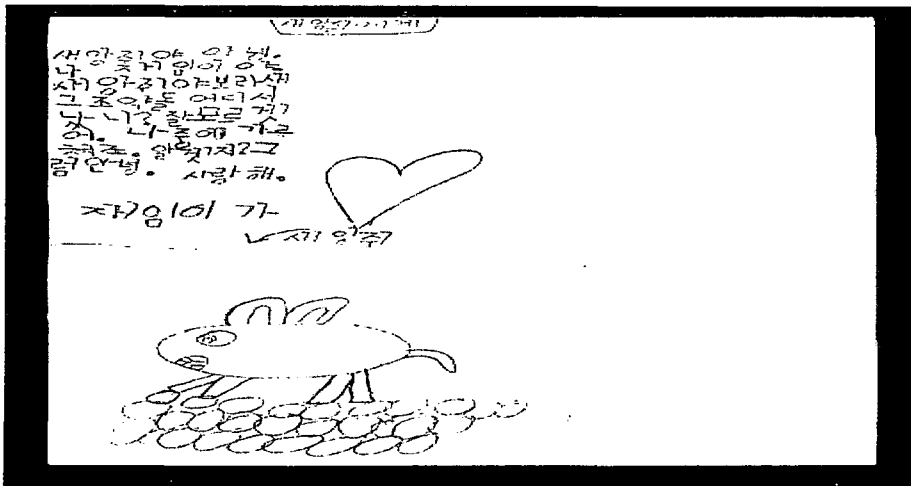
유아들간의 편지 쓰기 활동은 그림 이야기책 함께 읽기를 하면서 그림 이야기책의 주인공에게도 편지를 쓰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는 유아가 그림 이야기책과 적극적으로 상호교류하면서 그림 이야기책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유아가 작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유아들은 「새앙쥐와 태엽쥐」 그림 이야기책을 듣고 나서 주인공에게 먼저 그림만으로 편지 쓰기를 하였다.





다음은 유아가 그림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궁금하였던 점을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생쥐에게

새앙쥐야 안녕. 나 재임이야

새앙쥐야 보라색 그 조약돌 어디서 났니? 잘모르겠어. 나중에 가르쳐줘. 알겠지?

그럼안녕. 사랑해.

재임이가

6) 행동변화

- ① 그림 이야기책을 함께 읽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편지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게 되었다.
- ② 유아들은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주고 받으면서 우정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 ③ 유아들의 편지쓰기는 그림 이야기책의 내용을 재구성하게 되었다.

활동 3. 의성어와 의태어 찾아 말과 문장 만들기

1) 활동의 배경

좋은 그림 이야기책의 글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이용되어 유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언어기호의 음성(significant)과 개념(signifié) 사이의 연합관계가 필연적이 아니다. 따라서 의성어와 의태어는 동일한 소리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는 상징적 언어이다.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소리를 다양한 의미로 사고하게 되고, 사고의 확장과 언어를 이용한 상징적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의성어와 의태어는 언어의 일반적인 면 뿐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구성원의 감정내지는 의식을 간직하고 있는 언어이다.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지각하고 이를 사용하면서 한국인 특유의 언어 내지는 감정을 이해하게 한다.

2) 활동 전개 시기

활동 시기:

2001년 9월 첫째 주: 의성어와 의태어 찾기

2001년 9월 둘째 주: 의성어와 의태어 찾기와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하여 말과 문장 만들기가 순환적으로 나타난다.

활동시간: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

3) 활동 자료 및 환경구성

(1) 활동자료

다양한 모양의 종이, 전지, 연필, 색연필, 우드락, 하얀 전지, 클리어 화일등

(2) 환경구성

유아가 찾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교사는 워드 작업을 하여 하얀 전지를 댄 우드락에 붙여주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쓴 글과 그림을 맞는 단어 밑에 붙였다. 우드락에 붙여놓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한달 가량 게시하여 두고 유아가 자신들이 만들 말과 문장을 붙이게 하고, 관찰하게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의성어와 의태어를 게시하기 위하여 게시되었던 글은 클리어 화일에 넣어 도서영역에 비치하여 유아들이 다시 볼수 있게 하였다.

4) 교사의 역할

교사는 유아에게 그림 이야기책에서 나온 재미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먼저 찾아 유아들에게 들려주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그림 이야기책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유아가 의성어와 의태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여 유아의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관심을 연장시켜주었다. 유아가 찾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벽에 게시하면서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경험을 확장하여 갔고, 교사는 유아의 요구대로 새로운 의성어와 의태어를 게시판에 붙여주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게 되었다.

5) 활동 전개 과정

◀ 2001년 9월 첫째주: 의성어, 의태어 찾기 ▶

· 교사와 유아는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기 전과 읽은 후에 재미있는 말을 찾아보기로 하였다(9월 4일).

교사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유아에게 읽어주고 난 후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교사: 참 재미있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미끌미끌, 엉금엉금

유아들은 재미있는 말을 찾기 위하여 그림 이야기책을 다시 읽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림 이야기책에서 시작된 의성어, 의태어 찾기는 점차 유아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다.

· 9월 5일

그림 이야기책 「아무도 모를거야 내가 누군지」를 읽는다.

교사: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기 전에) 어제와 같은 재미있는 말을 찾아보자.

유아: (그림 이야기책을 읽는 도중) 초롱초롱

유아: 예구예구, 살금살금이 있어요.

유아: 동화 다시 읽어주세요. (재미있는 말) 기억 못했어요.

유아들과 함께 재미있는 말을 찾아 전지에 붙인다.

◀2001년 9월 둘째주- 10월 넷째주: 의성어와 의태어 찾아 말 만들기▶

유아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말을 만들어 게시판에 붙였다.

유아: 보들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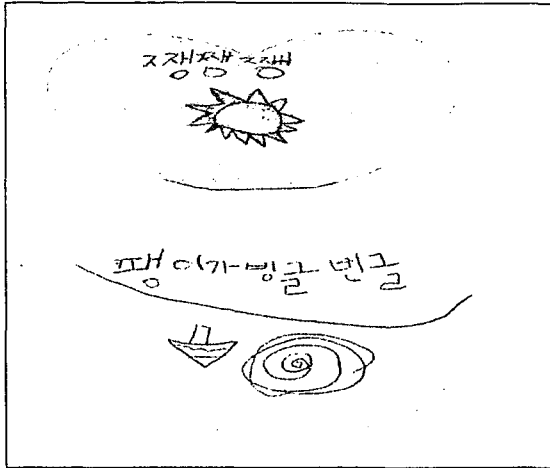
거품이 보들보들하다

유아: 싹둑싹둑

유아: 사과먹을 때 아삭아삭

비가 줄줄, 물 먹을 때 꿀각꿀각

유아들은 글과 그림을 함께 그려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유아가 찾은 의성어, 의태어와 이 말을 이용한 말 만들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쟁쟁쟁

햇빛이 쟁쟁쟁

빙글빙글

팽이가 빙글빙글

눈이 빙글빙글

팽이가 빙글빙글 도라가요

눈이 빙글빙글 최면술의 걸렸다

몰라후프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갈갈갈

할머니가 갈갈갈

초롱초롱

눈이 초롱초롱

크레파스 초록색이 초롱초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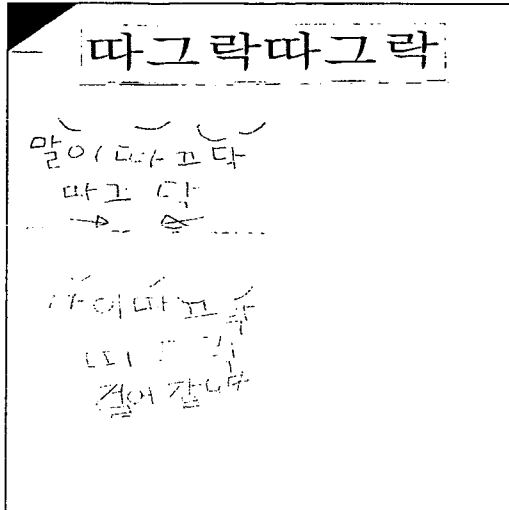
각시탈이 초롱초롱



따그락따그락

말이 따그닥따그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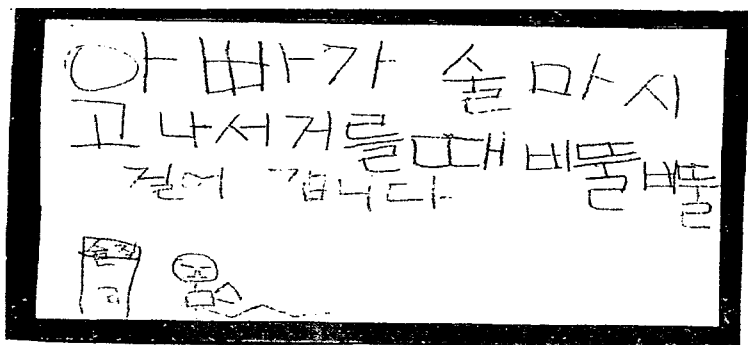
얼룩마리 따그락따그락



방긋방긋

나비 방긋방긋

아기가 방긋방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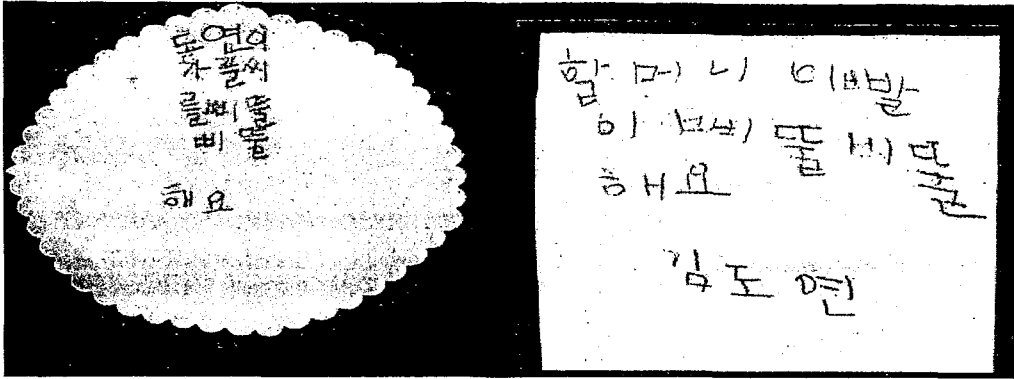


삑뚤삑뚤

술취한 아빠가 비뚤비뚤

도연이가 꿀씨를 뽀뽀뽀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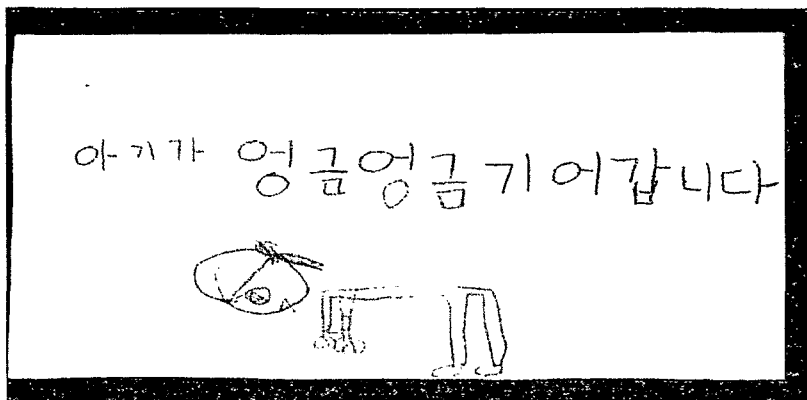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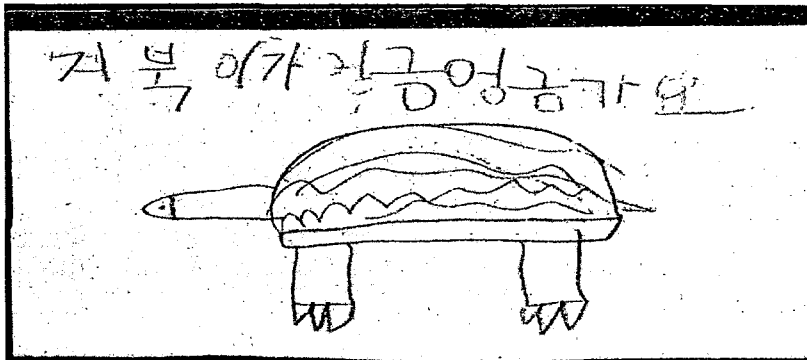
아빠가 술마시고 나서 거를 때 비뽀비뽀 걸어갑니다



엉금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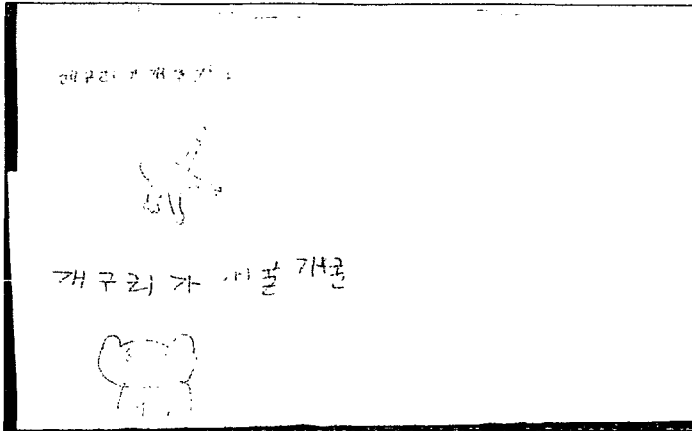
거북이가 엉금엉금가요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개굴개굴

개구리가 개굴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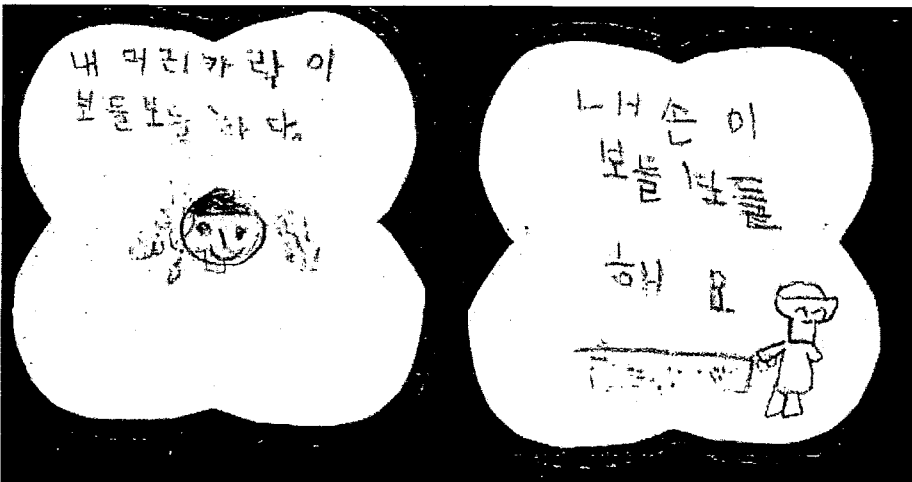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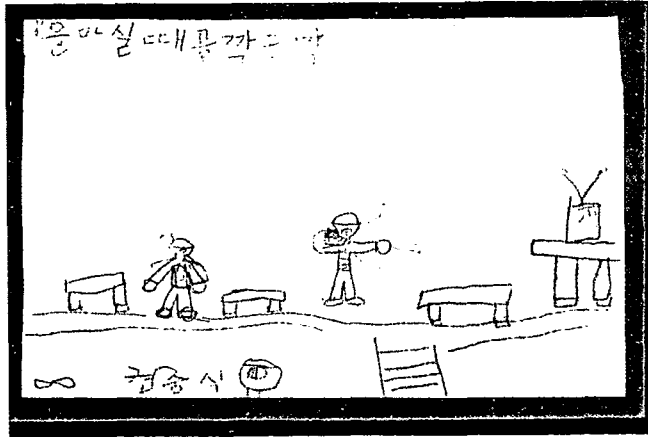
보들보들

웁이 보들보들

내머리카락이 보들보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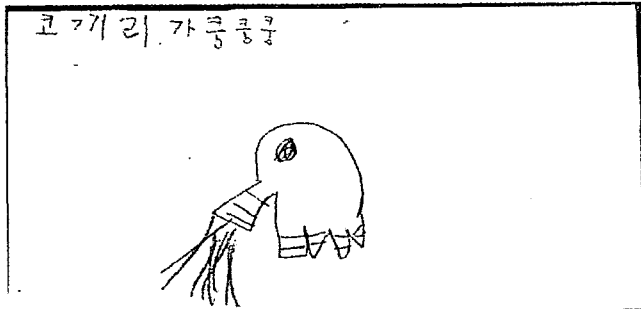
내손이 보들보들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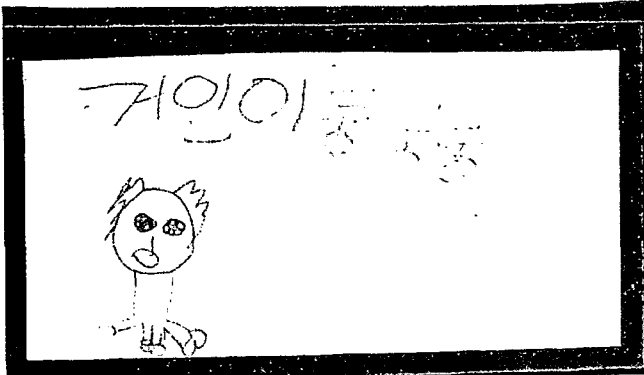


폴짝폴짝
물을 마실 때 폴짝폴짝
차를 먹어요 폴짝폴짝

쿵쿵쿵
곰이 쿵쿵쿵
코끼리가 쿵쿵쿵간다
거인 쿵쿵쿵



쿵쿵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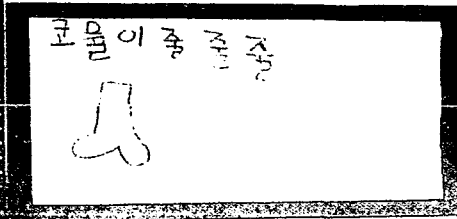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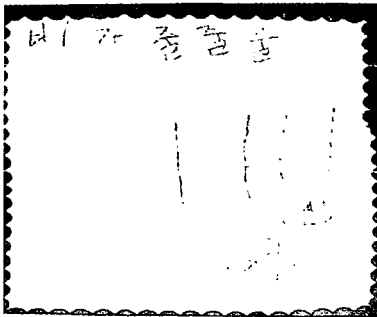


줄줄줄

비가 줄줄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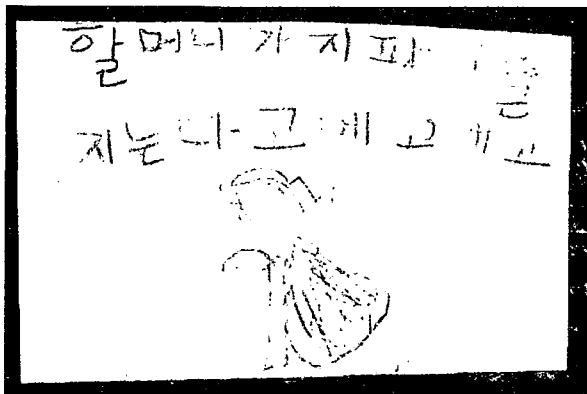
밖에 비가 네리대 줄줄

코물이 줄줄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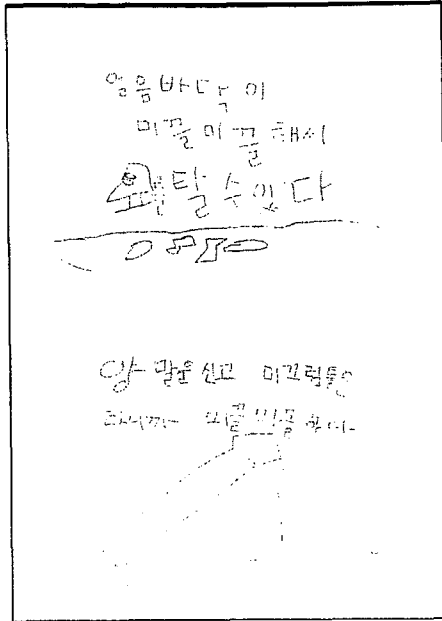


쓱쓱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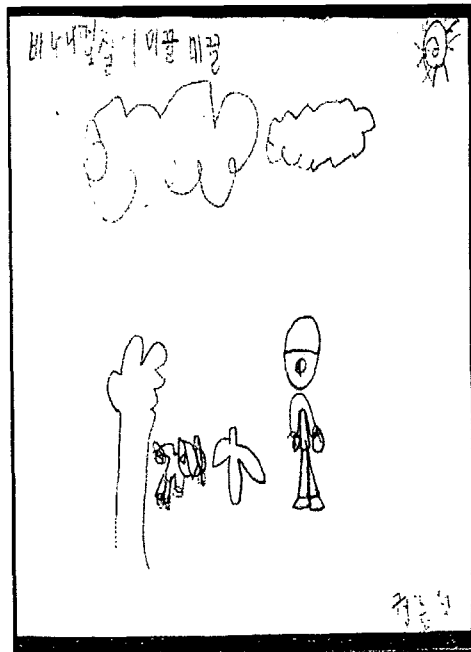
차를 따올 때 쓱쓱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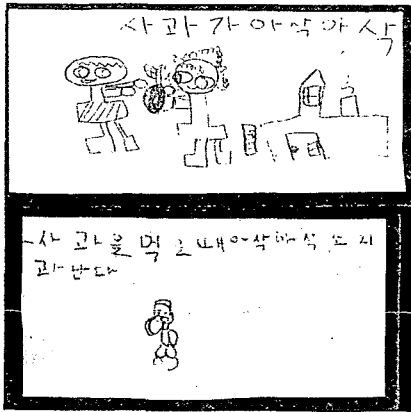


에구에구
 에구에구 할머니 지팡이를
 지는 다고 에고에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지는다고
 에고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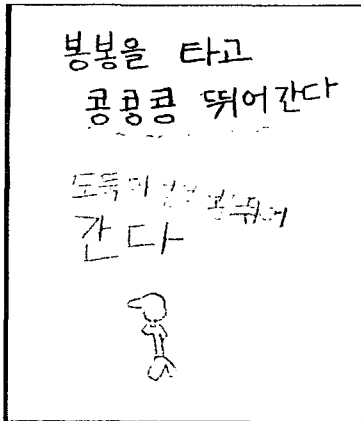


미끄러미끄러
 바닥이 미끄러미끄러
 얼음바닥이 미끄러미끄러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바나나껍질이 미끄러미끄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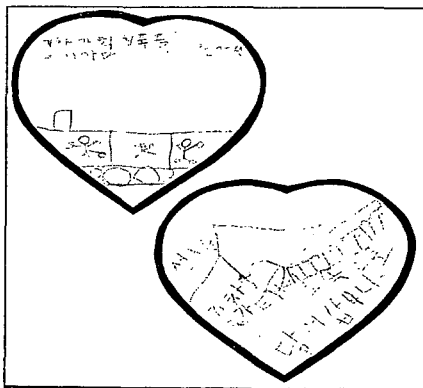




아삭아삭
사과가 아삭아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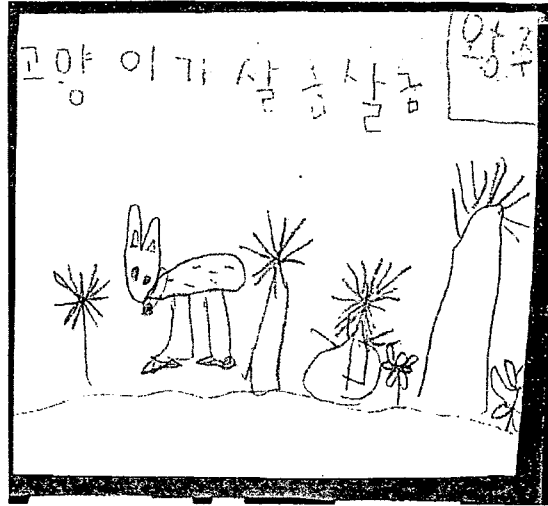


콩콩콩
빙빙을 타고 콩콩콩 뛰어간다
도둑이 콩콩콩 뛰어간다



칙칙폭폭
기차가 칙칙폭폭 달려간다
기차가 퉁퉁속으로 달려갑니다

살금살금
 고양이가 살금살금
 고양이가 살금살금 걸
 여가다
 사냥꾼이 사냥한다고
 살금살금 기어간다



반짝반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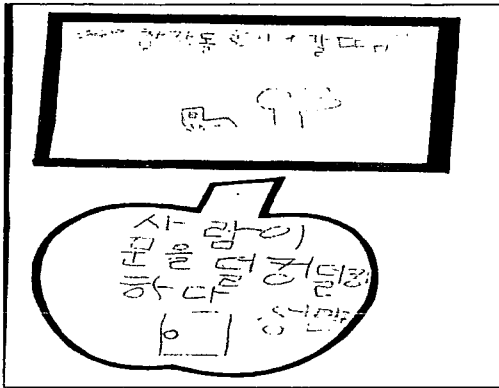
별이 반짝반짝하다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입니다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로 말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현상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만드는 말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었다.

◀2001년 11월: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하여 말 만들기 활동의 심화▶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찾고, 찾은 의성어와 의태어로 말을 만드는 활동은 지속되었다.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유아들도 의성어와 의태어로 말 만들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하던 유아들은 점차 의성어와 의태어 단어를 이전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언어의 일반적 의미보다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하여 말을 만들어 그 의미를 구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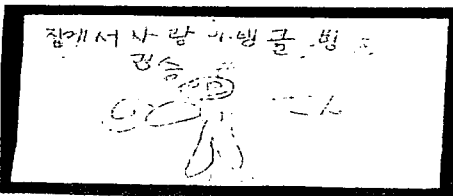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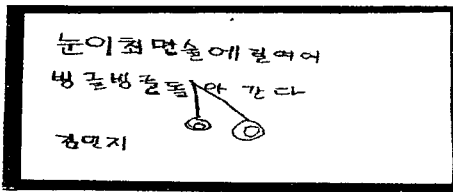
덜컹덜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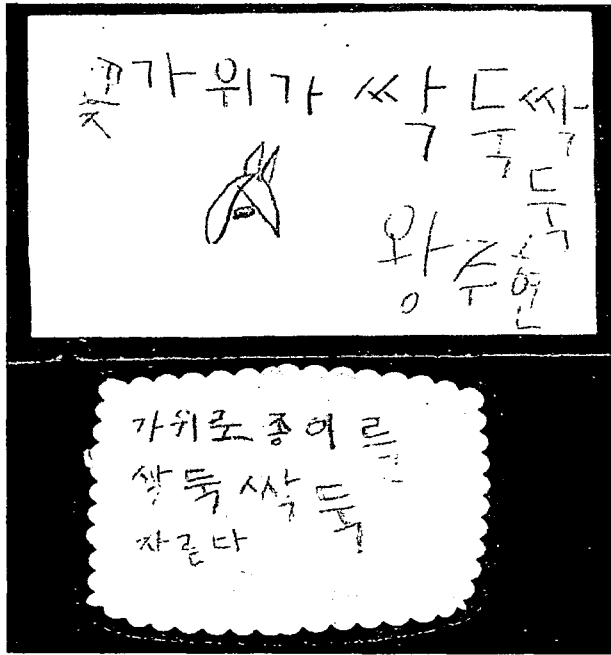
차가도로 지나갈 때 덜컹덜컹
사람이 문을 덜컹덜컹하다



빙글빙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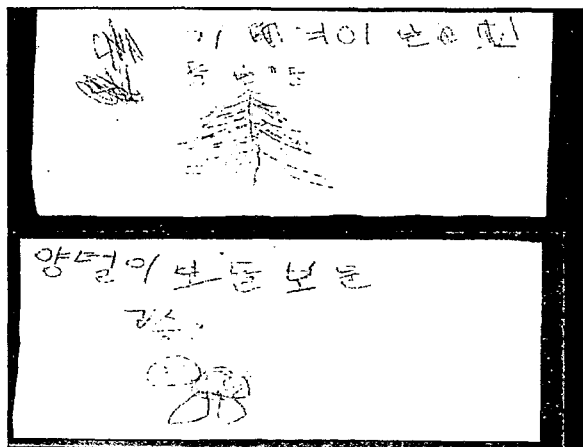
눈이 최면술에 걸여어 빙글빙글돌아간다
집에서 사람이 빙글빙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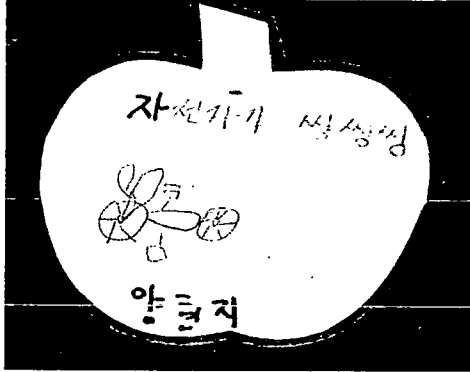
싹둑싹둑
꽃가위가 싹둑싹둑

꿀꺽꿀꺽
물먹을때 꿀꺽꿀꺽 소리가남다



보들보들
기둥이보들보들
양털이보들보들

씽씽씽



자전거가 씽씽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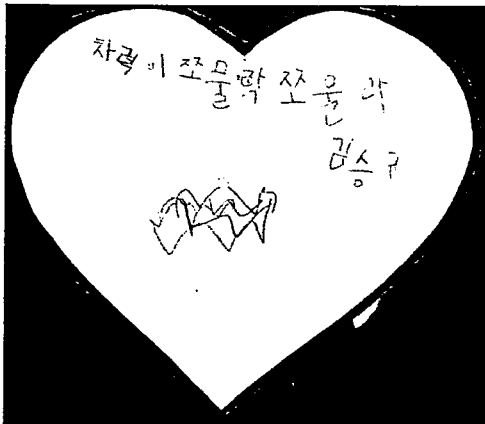
뽕뽕뽕

뽕뽕뽕이 뽕뽕뽕치다

뽕뽕뽕이 뽕뽕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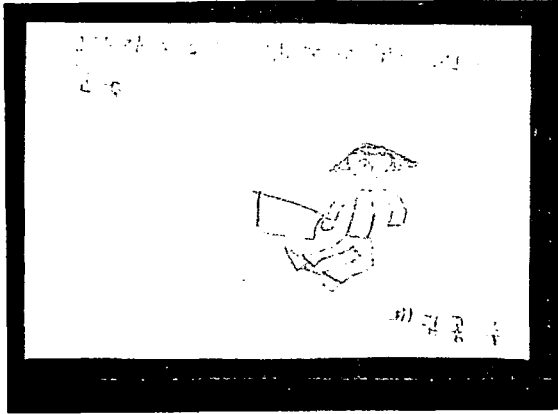
샤분샤분

샤분이 샤분샤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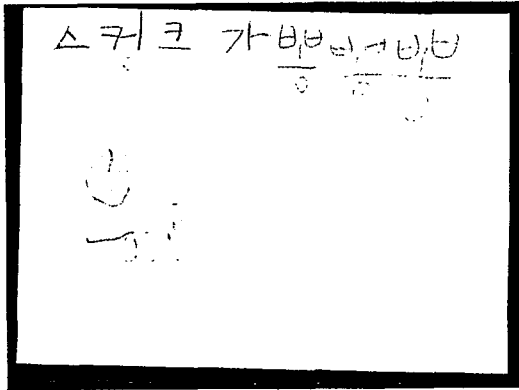


조물락조물락

차력이 조물락조물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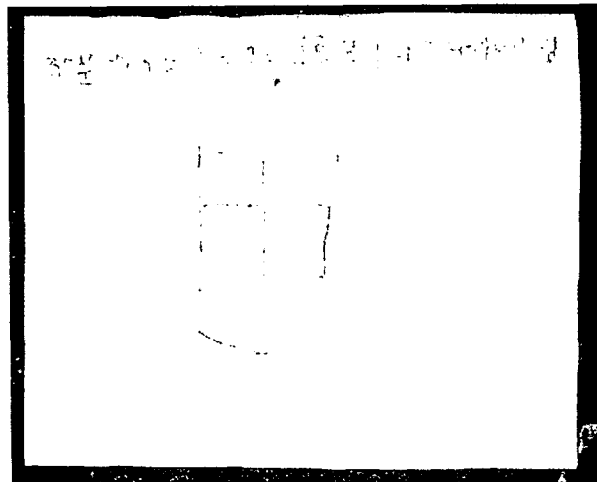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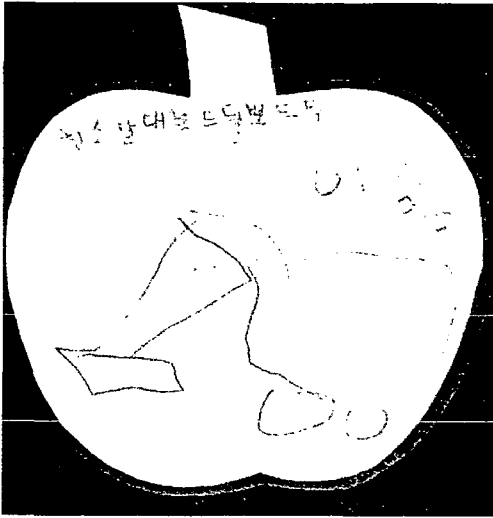
쓱쓱쓱
 엄마가청소를할때쓱쓱쓱청
 소를 한다



뽕뽕뽕
 스텡크가뽕뽕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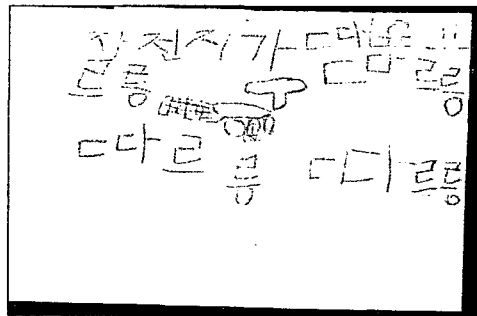
또로롱또로롱
 창문에구슬이
 또로롱또로롱굴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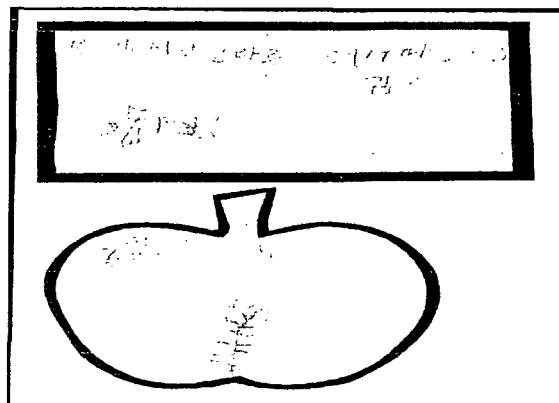


뽀드득뽀드득
 차력이뽀드득뽀드득
 청소할대뽀드득뽀드득
 손이씻슬데 뽀드득뽀드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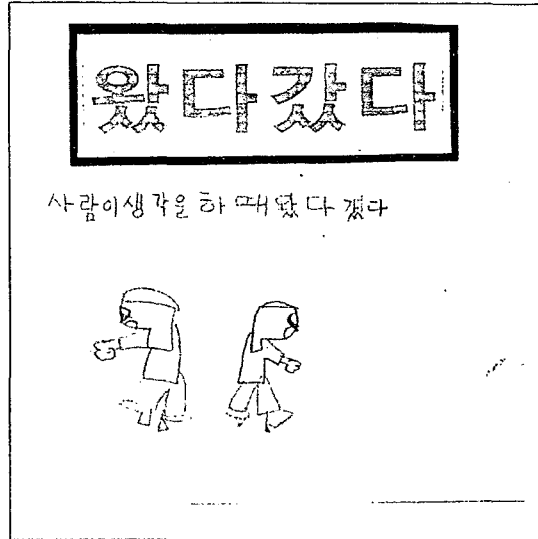
따르릉따르릉
 자전거가따르릉따르릉 따르릉



딱금딱금
 방에서 보일라를트러
 서딱금딱금
 장미가시가딱금딱금



왔다갔다
사람이 생각을 하때왔
다갔다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자신의 세계에서 찾아 만들어 갈 뿐 아니라 그 의미를 말을 만들어 말하고 표현하면서 재구성하여가고 있었다.

6) 행동변화

- ① 유아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 ② 유아는 주변의 현상을 의성어와 의태어를 표현하게 되었다.
- ③ 유아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말을 만들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게 되었다.

활동 4. 그림 이야기책 만들기

1) 활동의 배경

그림이야기책 함께 읽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유아들은 자신들이 책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그림 이야기책을 읽고 난후

유아: 호랑이를 다르게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생각해와서 (그림 이야기책을) 만들게요. (2001년 9월 24일)

이 유아의 그림 이야기책 만들기 생각은 활동으로 즉시 연계되지 않았으나 유아들이 그림 이야기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싹트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찾아 말 만들기 활동의 지속적인 경험은 유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 이야기책 만들기 활동으로의 연계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또한 주제 환상극 놀이를 통한 동화 만들기 경험속에서 유아들의 그림 이야기책 만들기 활동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가고 있었다.

유아들은 그림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다른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그림이야기책 만들기로 연계되었다. 유아들에게 그림이야기책 만들기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면서 유아들이 이야기로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재구성하게 되면서 자신의 세계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한다. 작가로서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그림 이야기책 읽기가 단순한 단어의 해독이 아닌 그림 이야기책의 세계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2) 활동 전개 시기

활동시기: 2001년 9월 네째주 - 10월 4째주

활동시간: 자유선택활동

3) 활동 자료 및 환경구성

(1) 활동자료

16절지 흰 종이,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2) 환경 구성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하여 말 만들기 게시판은 계속 게시하여 유아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아가 만든 그림 이야기책은 도서 영역에 다른 그림 이야기책과 비치하여 유아들이 함께 보도록 하였다.

4) 교사의 역할

다른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활동에서 역시 교사는 유아가 활동을 주도 하여 가고 교사는 지원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였다. 유아들은 교사에게 그림 이야기책을 만들겠다고 하며 자료를 요청하고, 교사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교사는 유아가 쓴 그림 이야기책을 다른 유아들에게 읽어주어 그림 이야기책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아들에게 알려 다른 유아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유아들의 그림 이야기책 만들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아와 그림 이야기책 만들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활동 전개 과정

· 2001년 9월 25일

9월 24일 한 유아가 그림 이야기책을 읽고 나서 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제안을 하여

· 2001년 10월 15일 - 10월 30일

교사는 유아들에게 재미있는 말로 그림 이야기책을 만들어보기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사: 재미있는 말로 동화를 만들 수 있을까?

유아: 어떻게 만들어요?

교사: 선생님이 한 번 만들어 볼까?

유아: 예. 한번만 해 보세요.

교사: 햇빛이 쨍쨍 무더운 날에 꽃밭에는 예쁜 꽃들이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유아: 아(감탄하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애들아 동화를 만들었는데 그림은 그리고 싶지 않니?

유아: 그림을 그리면은 진짜 동화책 같겠죠? (10월 15일)

유아들이 만든 그림 이야기책의 제목은 「할머니와 개구리」, 「꽃과 나」, 「똥」, 「아기와 할머니」, 「술취한 아빠」, 「개구리」, 「사람과 거인」, 「아빠는 큰 물고기를 잡고 싶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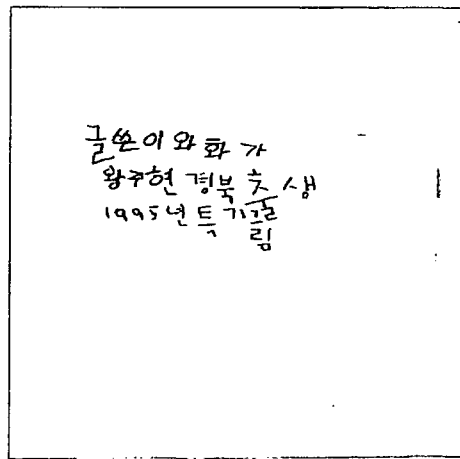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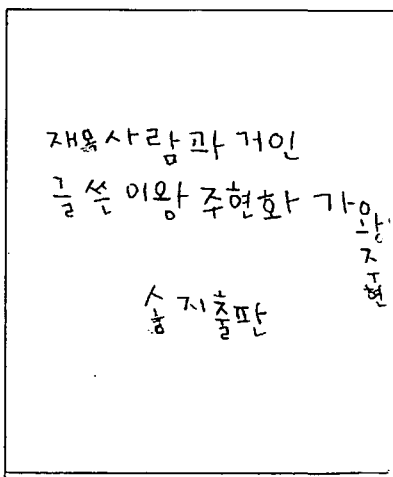
제목: 사람과 거인

글쓴이 왕주현 화가 왕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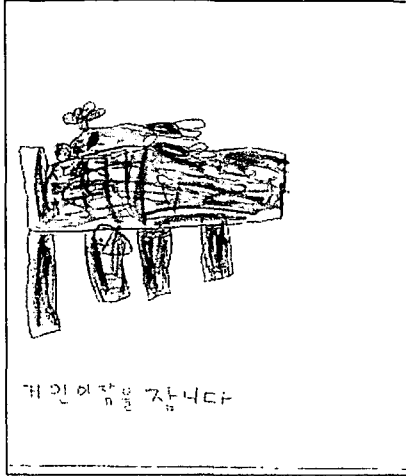
솔지출판

글쓴이와 화가 왕주현 경북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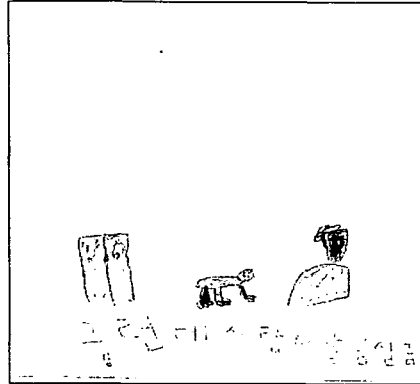
1995년 특기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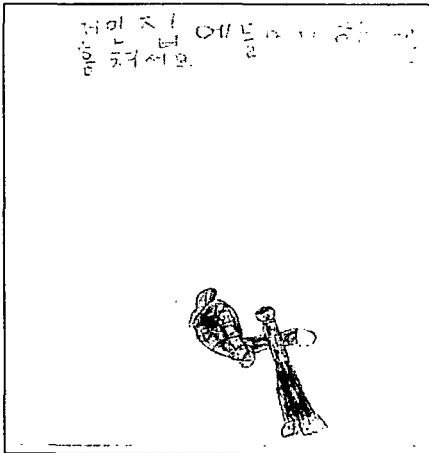
1쪽
거인이 잠을 잠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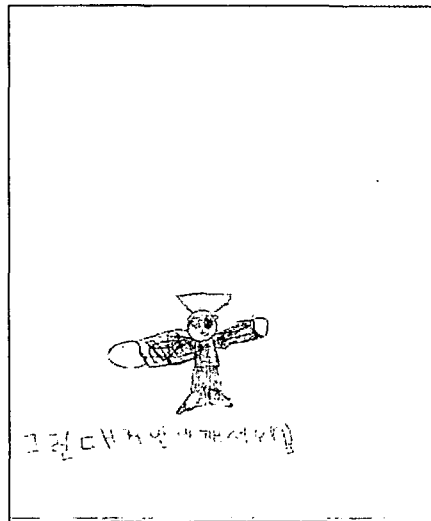
2쪽 그런데 사람이 살금살금



3쪽 거인집에 들어가 하프를 훔쳐
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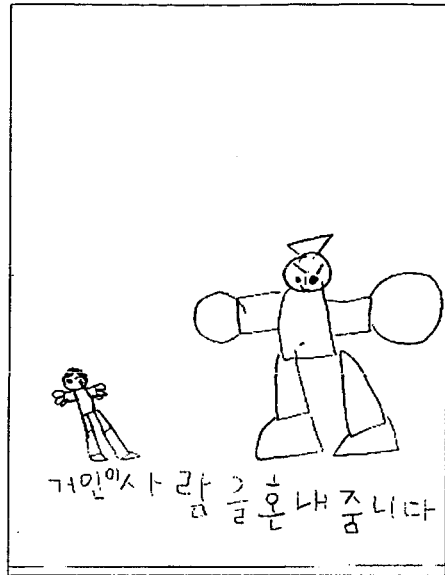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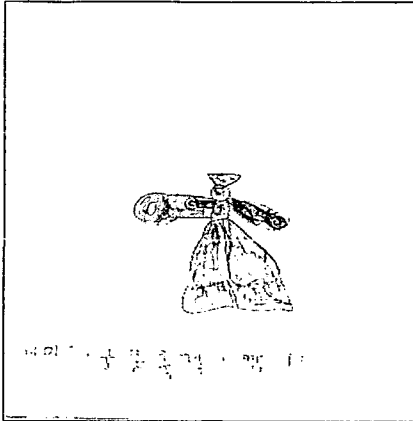


4쪽 그런데 거인이 깨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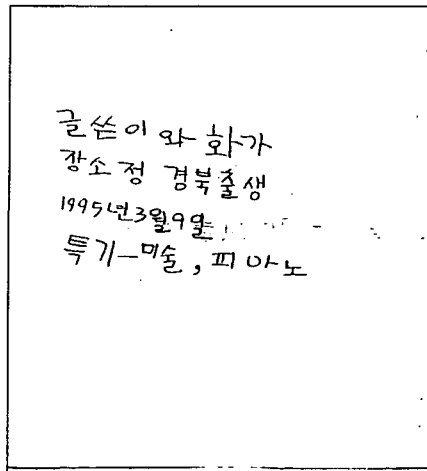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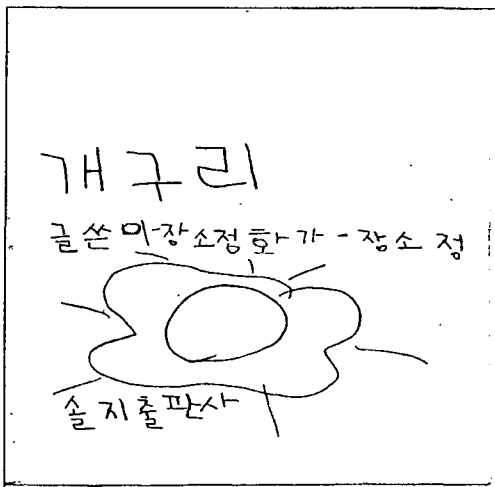
6쪽 거인이사람을 혼내줍니다

5쪽 거인이 쿵쿵쿵 걸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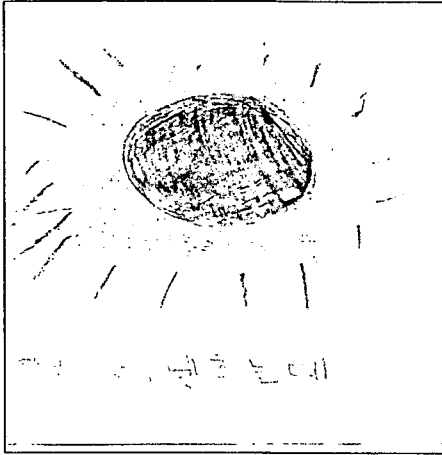


제목: 개구리
글쓴이 장소정 화가 장소정
솔지출판사

글쓴이와 화가 장소정 경북출생
1995년 3월9일
특기-미술,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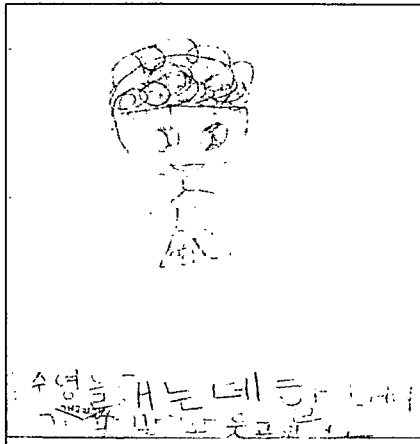
1쪽 햇비치쟁쟁빛치는데



2쪽 개구리가 개굴개굴 수영을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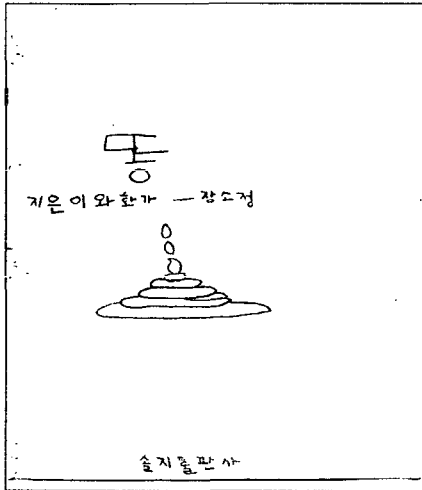
3쪽 수영을하는데 할머니가 개구리를 보고 깔깔깔 웃고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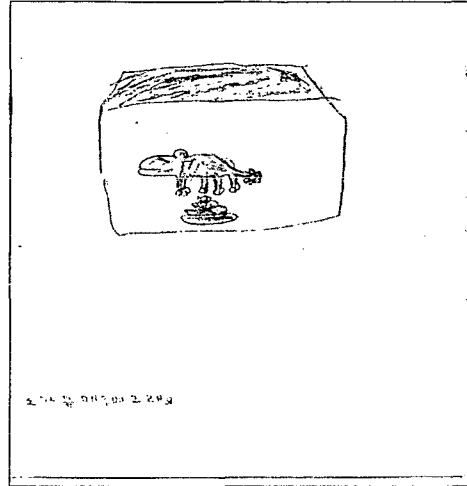
제목: 똥

지은이와 화가 -장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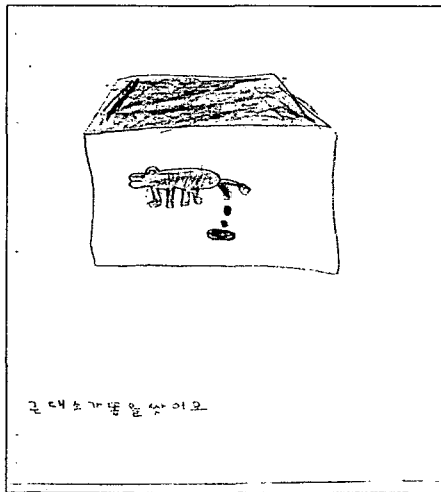
솔지출판사



1쪽 소가 음매음매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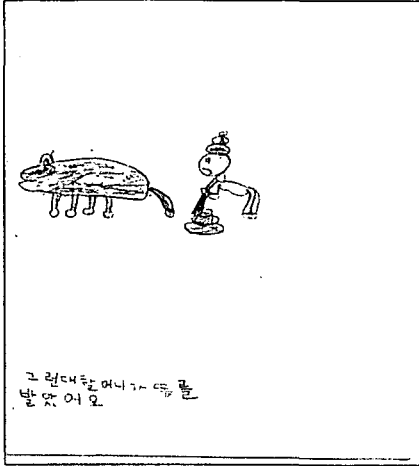
2쪽 근대소가똥을 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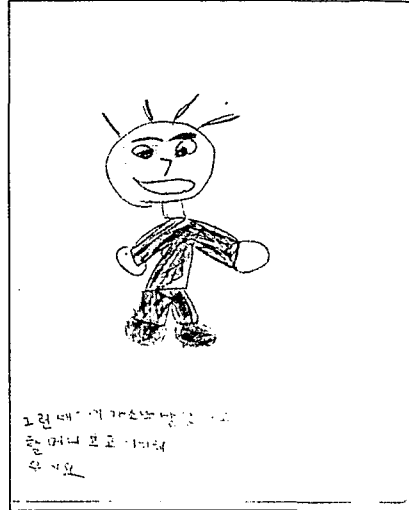
3쪽 근대돼지가 똥을 싹다고 꿀꿀
꿀꿀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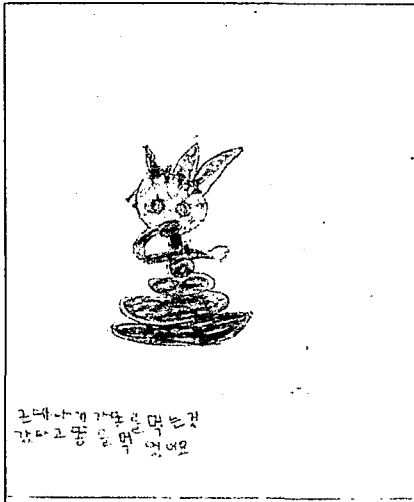
4쪽 그런데 할머니가 똥를 밟았어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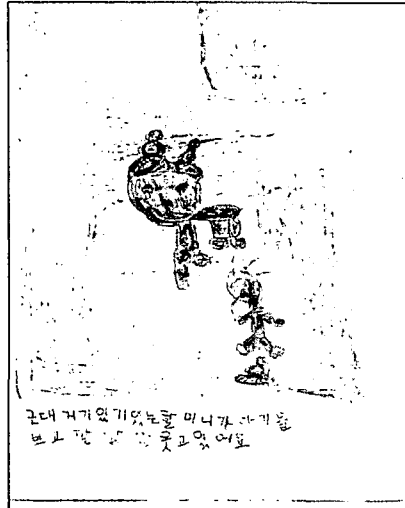
5쪽 그런데 아기가 소똥 밟았다고
할머니 보고 히히히 웃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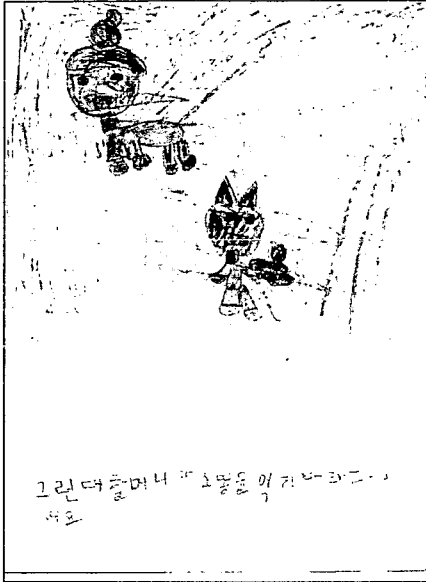
6쪽 근대 아기가 똥를 먹는 것 같
다고 똥을 먹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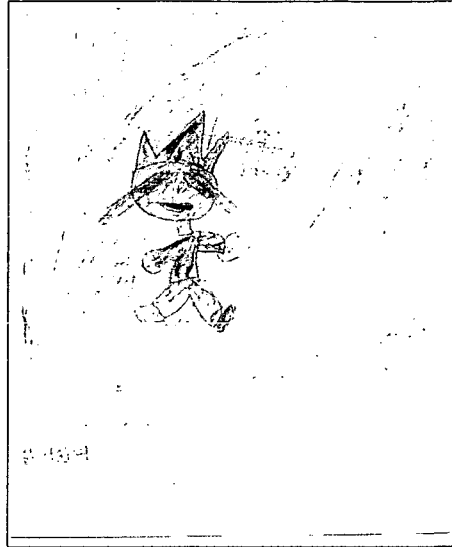
7쪽 근대 거기있는 할머니가 아
기를 보고 팔팔팔 웃고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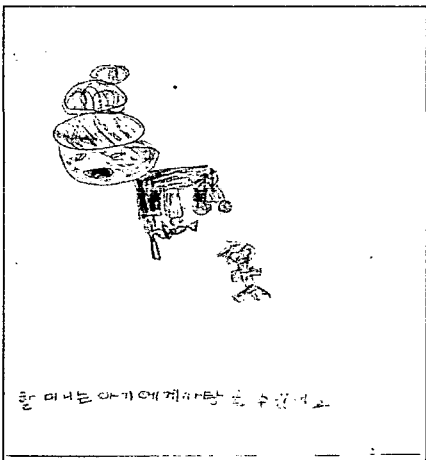
8쪽 그런데 할머니가 소똥을 먹지
마라고하세요



9쪽 싫어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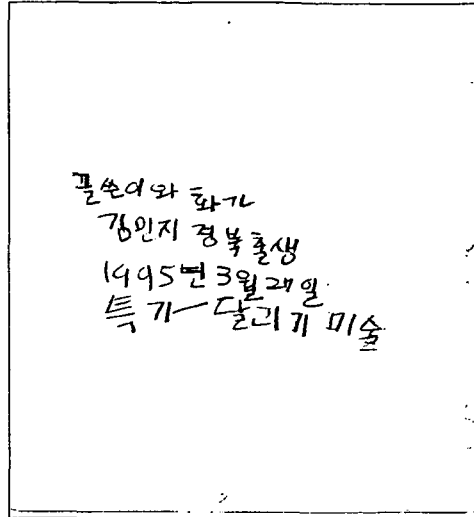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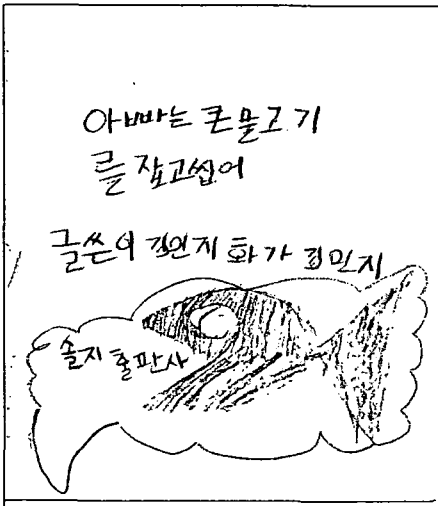


10쪽 할머니는 아기에게 사탕을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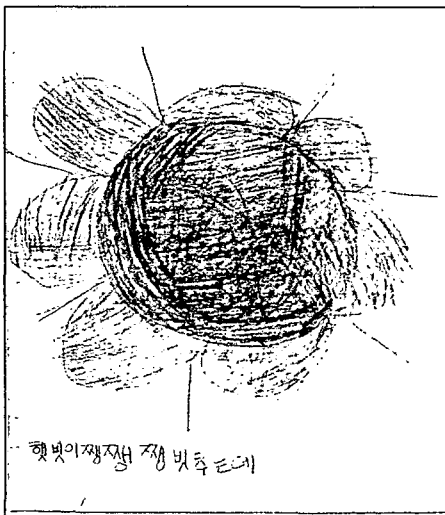
제목: 아빠는 큰 물고기를 잡고 싶어
 글쓴이 김민지 화가 김민지
 솔지출판사

글쓴이와 화가 김민지 경북출생
 1995년 3월27일 특기-달리기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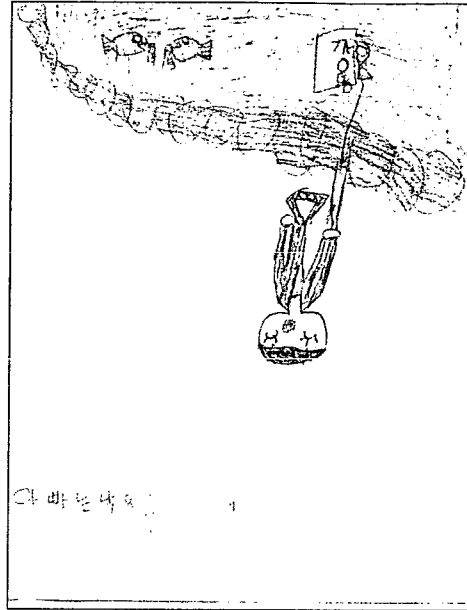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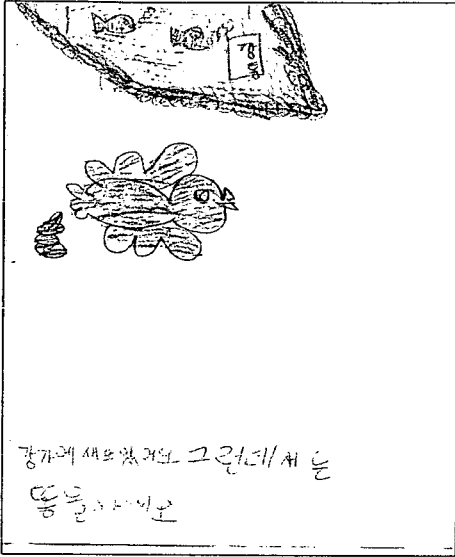


1쪽 햇빛이 쨍쨍 빛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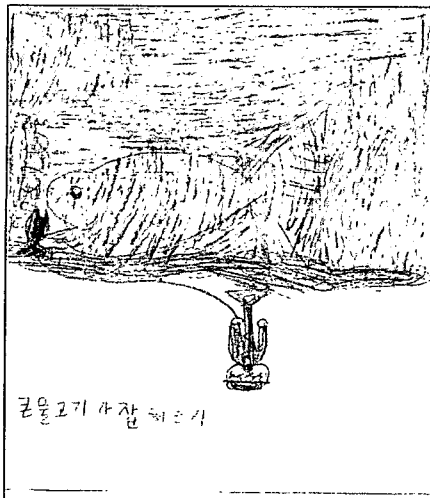
2쪽 아빠는 낚시를 하로 강에 갔어요



3쪽 강가에 새도 있어요 그런데 새는 4쪽 아빠는 낚시를 하는데
똥을 싸서요



5쪽 큰물고기가 잡혀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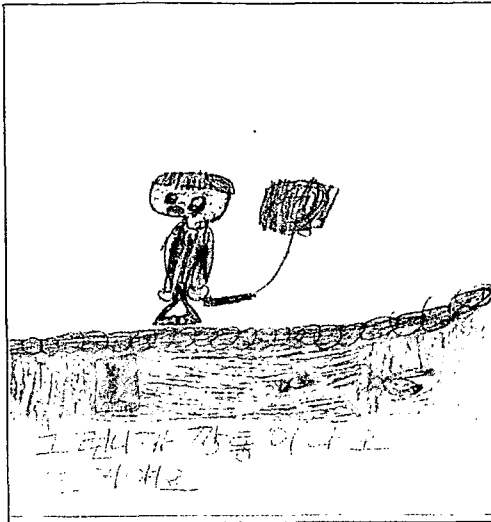
6쪽 강에 빠지려고 해요



7쪽 그런데 이게 무슨일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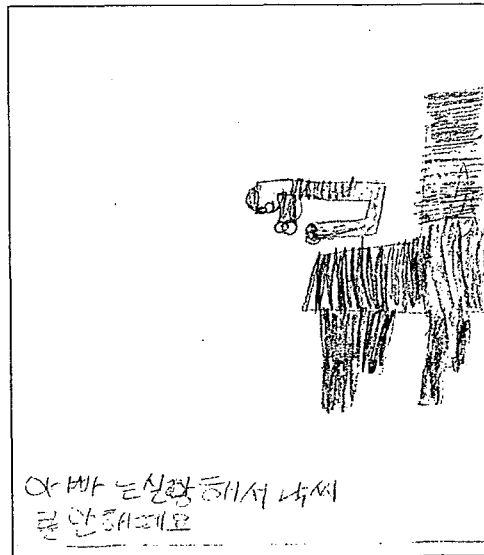
8쪽 그런니까 강통이 나오는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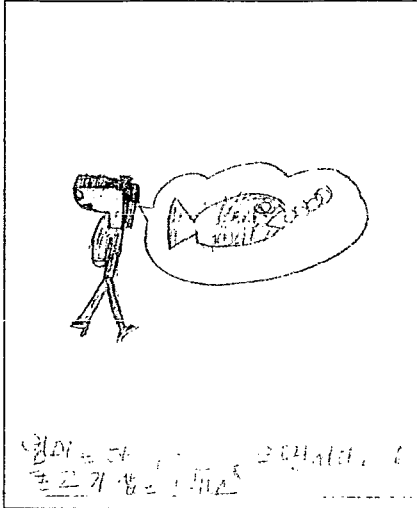
9쪽 집에 돌아갔네요



10쪽 아빠는 실망해서 낙서를 안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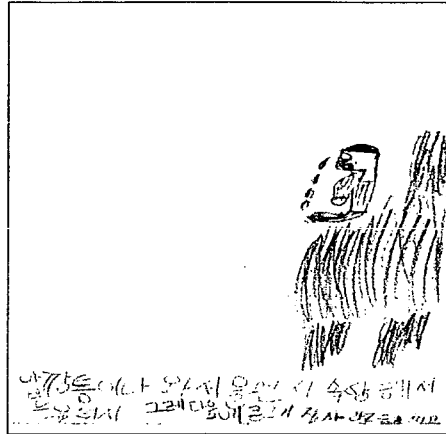


11쪽 엄마는 하하하 웃으면서 다
음에 큰고기 잡으면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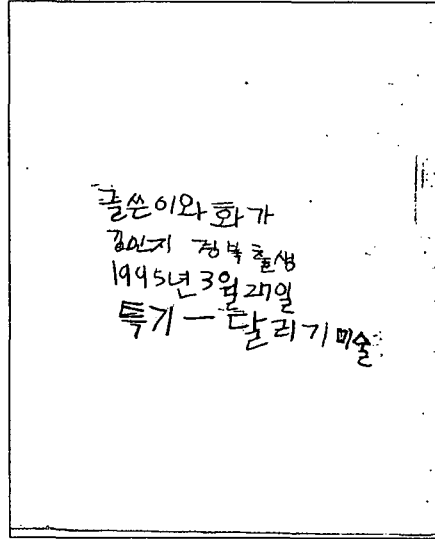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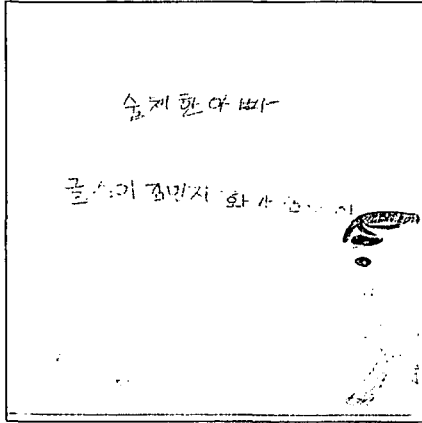
12쪽 아빠는 강통이나와서 울면서
속상해서는 울면서

그레 다음에 큰고기 잡자라고 해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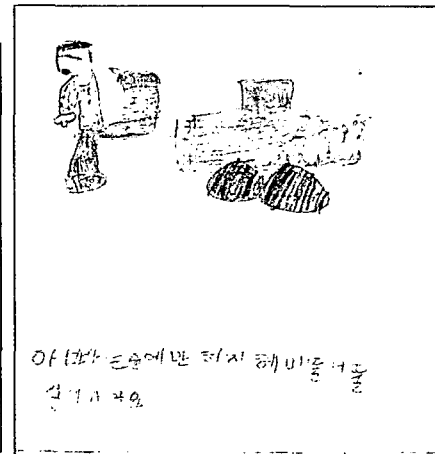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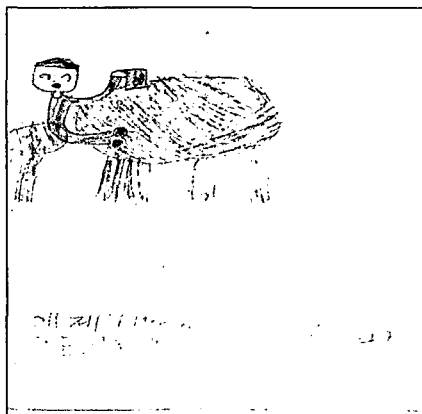


글쓴이와 화가 김민지 경북출생
1995년 3월 27일 특기-달리기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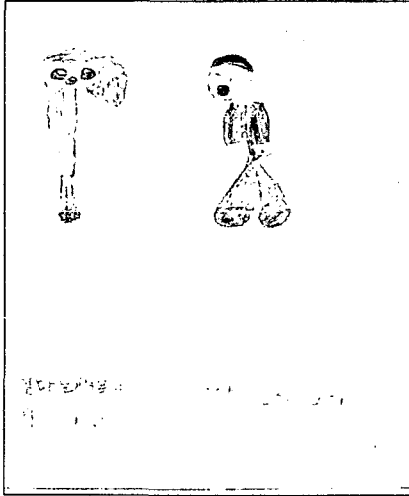
제목: 술체한 아빠
글쓴이 김민지 화가 김민지
술지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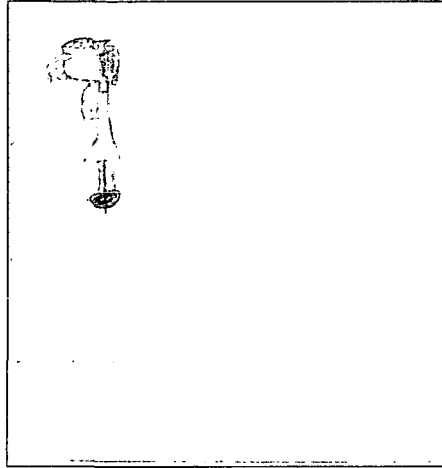
1쪽 에제아빠가 술집에서 술을 몇
2쪽 아빠는 술에만 히치해 비둘비
있어요 그런데 풀 걸어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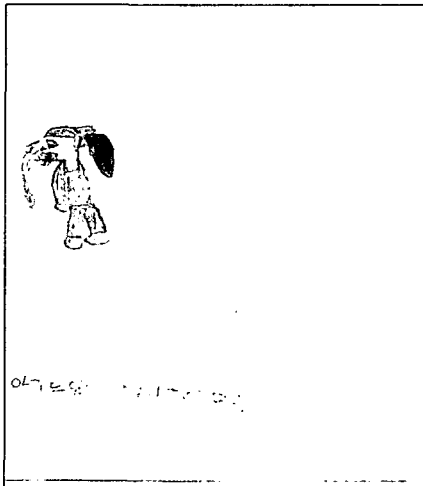
3쪽 엄마눈이 초롱초롱하는데 아
빠는 " 누구여 화를 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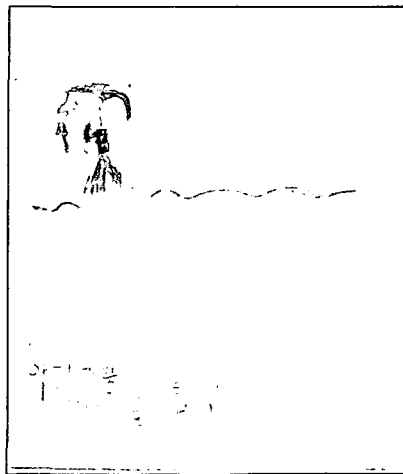
4쪽 엄마는 잉잉잉 울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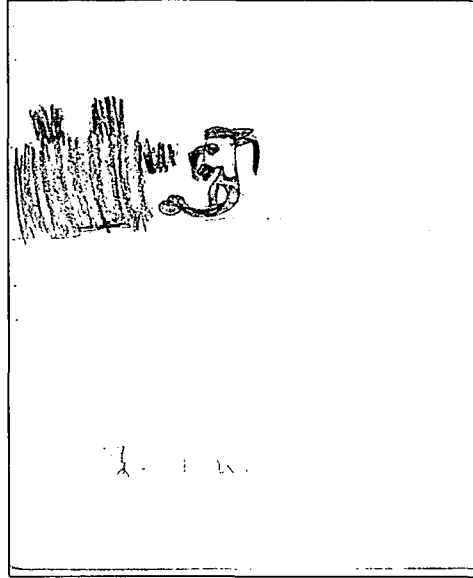
5쪽 아기도 엄마가우니까 잉잉이
울었어요



6쪽아기가 울고있는데 바닥이
미끌미끌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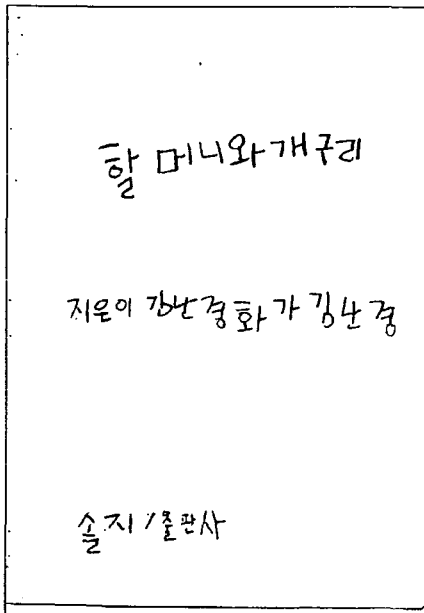


7쪽 쿵넘어져서요



제목: 할머니와 개구리
지은이 김난경화가 김난경
솔지/출판사

지은이와 화가 김난경 1995년 8월 11
일 출생
특기-피아노



지은이와 화가 김난경
1995년 8월 11일 출생
특기-피아노

- 6) 행동변화
- ①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유아들은 작가로서의 관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유아들은 작가와 작품속의 인물간의 관점을 차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유아들이 그림 이야기책의 출판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 5. 재미있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해보기

1) 활동의 배경

유아들이 문자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표현하면서 나타나는 활동은 유아들이 같은 언어적 표현을 쓰지만 유아들의 그림이나 유아들이 의성어와 의태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의 맥락은 다양하였다. 의성어와 의태어 그 자체가 상징적인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쓰면서 다양한 의미를 구성하여갔다. 상징적인 언어 사용은 유아들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소리와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나타났다.

· 데굴데굴이라는 의태어를 표현하면서 한 유아는 바닥에서 자신을 굴리면서 데굴데굴을 표현하였다.

유아: · 동그란 것은 다 데굴데굴이에요.

· 동그란 블럭도 데굴데굴이에요.

이러한 유아의 시도는 다른 유아에게도 영향을 주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그 소리와 움직임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점차 자신들의 환경에 있는 소리와 모습을 주의깊게 관찰하게 되었다.

2) 활동 전개 시기

활동시기: 10월 3주 - 11월 1주

활동시간: 자유선택활동과 나들이 활동

3) 활동 자료 및 환경구성

(1) 활동자료

녹음기, 테이프, 종이

(2) 환경 구성

실외 모래 놀이터에 여러 가지 재질의 그릇을 준비하여 서로 부딪쳐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변의 소리(물 흐르는 소리, 다양한 종류의 그릇 부딪히는 소리 등)를 녹음하여 유아에게 들려주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4) 교사의 역할

교사는 유아가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하고 모습을 관찰하도록 실외 놀이터에서 유아들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찾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면서 이를 말로 표현하도록 지원하였다.

5) 활동 전개 과정

◀ 첫 번째 시기: 의성어와 의태어를 소리와 모습으로 표현하기 ▶

· 10월 31일

교사는 게시판에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유아들은 이미 자신들이 찾은 의태어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은 왔다 갔다라는 의태어를 찾아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왔다갔다하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유아: 훅훅

양팔을 벌리고 훅훅 소리를 내면서 표현하였다.



교실에서 훅훅 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사진



여자 유아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동글동글을 표현하고 있다.

· 유아들은 실외 놀이터와 산책길에서 바깥세계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의태어를 찾아내어 표현하였고, 자신들이 이미 찾은 의태어를 바깥세계에 적용하며 그 의미를 다르게 구성하게 되었다.

유아: · 흙과 잔디를 만지면서 보들보들

-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며 몸이 흔들흔들, 그네가 흔들흔들
- 장미가시를 만지며 뽀족뽀족, 따끔따끔
- 수돗가 대야의 물이 얼은 것을 만지면서 미끌미끌
- 햇빛에 비치는 유리를 보며 반짝반짝
- 잔디를 만지며 까칠까칠



산책하는 길에 월월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보고, 만지며, 관찰한 현상을 적절하게 재미있는 말(유아들의 표현)을 찾아나갔다.

산책하는 길에서 주운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예구 예구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 두 번째 시기: 소리를 듣고 몸과 글, 그림으로 표현하기 ▶

교사와 연구자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현상을 표현하려는 유아의 반응에서 이번에는 유아의 관찰이 언어에 의해 고정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유아들이 표현한 의성어가 과연 실제의 소리와 얼마나 다르게, 같게 들리는지를 자극하기로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실외 모래 놀이터로 나가 그릇을 두드리고, 그릇끼리 부딪혀 보고, 모래의 양을 달리 하여 소리를 내어보고 의성어로 표현하였다.

· 11월 8일 우리 소리 찾으러 가요

실외놀이터를 돌아다니며 관찰한 소리에 대한 유아들의 이야기이다.

- 유아: · 앞에서 뒤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 바람이 사람 귀에 귓속말 할 것 같아요.

- 미끄럼틀에서 찌르르
- 열음을 만지며 미끌미끌해요, 차갑기도 하고

모래놀이터에서 유아가 코펠을 흔들자 플라스틱 손잡이가 코펠 표면에 부딪혀 나는 소리를 듣고 유아들이 나눈 이야기이다.

- 유아: ·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자 딱딱딱딱
- 종소리 같아요, 부처님이 내는 소리
 - 기차소리
 - 아니예요. 장구치는 소리
 - 종소리 같아요, 교회종소리 어디에서 들어보긴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요.
 - 팡팡팡 망치질하는 소리 같아요
 - 천둥소리 같아요

한 유아가 냄비에 돌을 넣어 굴리면서 소리를 낸다.

- 유아: · 군인들 아저씨가 싸울 때 총소리
- 바위가 산길로 굴러갈 때 드르럭드르럭

한 유아는 그릇에 주먹을 대서 소리를 낸다.

- 유아: 집에 들어오면 푹푹푹하는 소리

· 교실로 돌아와서 실외놀이터에서 만든 소리를 녹음하여 유아에게 들려주며 유아와 교사가 나눈 이야기이다.

교사: 소리 찾아 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소리를 찾았나 들어볼까?

- 유아: · 옛날 소리 같아요
- 옛날 악기 소리 같아요.
 -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소리

· 완전 악기...춤추면서 나는 악기소리 같아요

교사: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유아: · 짹짹

· 구두신을 때 딱딱소리

· 이상해요

· 요리사 소리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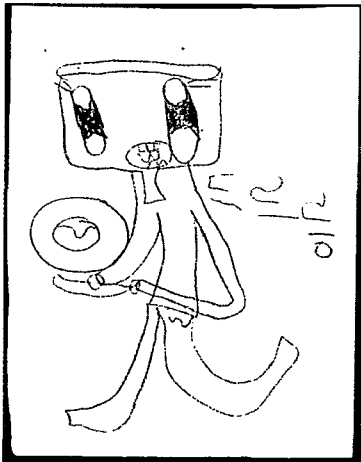
· 음료수 소리, 음료수 짹 누르면 나는 소리

· 물소리, 탬버린 소리, 장구치는 소리, 딱따구리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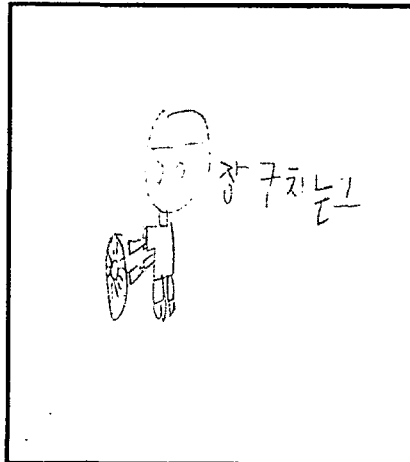
· 11월 2째주

교사와 유아는 모래 놀이터에 있는 쇠로 된 그릇과 플라스틱 그릇을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듣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드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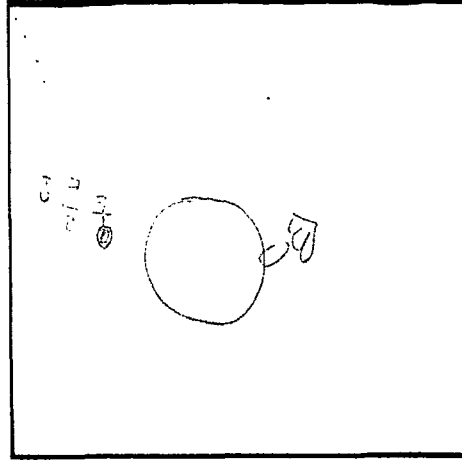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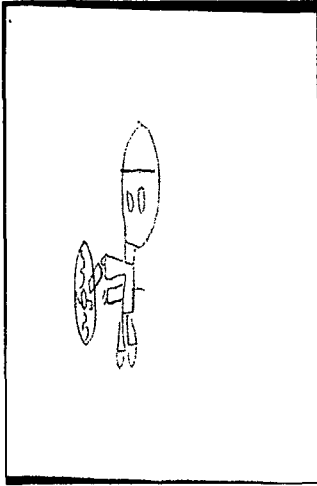


장구치는그



유아들은 플라스틱 그릇을 두드리며 나는 소리를 북소리로 상징화하였다.

쿵쿵쿵



플라스틱 그릇에 돌을 굴려 나는 소리를 뱃속에서 나는 꾸르륵 소리로 표현하였다.

배가 꾸르륵꾸르륵



후라이팬과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유아: 잘살라고 스님이 내는 목탁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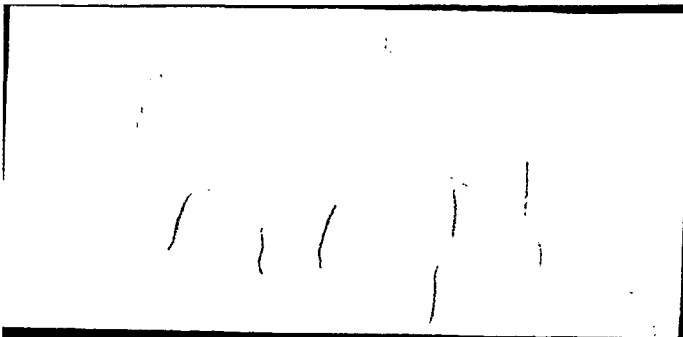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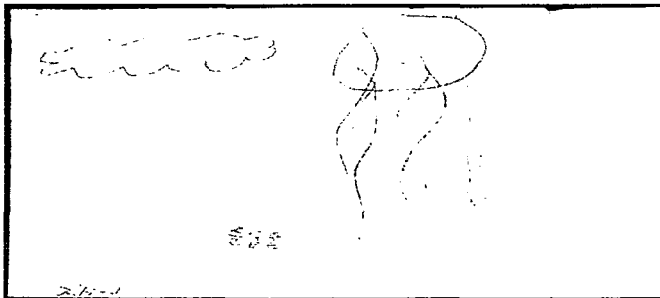
라고 하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수돗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유아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유아: · 오줌을 싸요.
· 쭈루르 쭈루르
· 물소리에요

그리고 유아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수돗물 흐르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쭈쭈쭈



유아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리를 몸짓으로 언어로 표현하여 의성어와 의태어의 상징적 표현을 경험하여갔다.

6) 행동변화

①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소리와 몸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심화시켰다.

②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하게 되었다.

③ 유아들은 주변 세계의 현상을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활동 6. 동시 짓기

1) 활동의 배경

9월 말에 교사와 연구자는 유아들에게 「자장자장」 동시집의 동시를 읽어 주었으나 유아들이 동시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1월 중순에 연구자는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시」집을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이 책의 표지를 보고 내용을 펴보면서 궁금해하였다. 유아의 관심에 따라 동시 들려주기 활동을 다시 시도하게 되었다. 동시를 듣고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동시를 만들어보겠다고 하여 이루어진 활동이다.

2) 활동 전개 시기

활동시기: 11월 중순 - 11월 말

활동시간: 언어 활동, 자유선택활동

3) 활동 자료 및 환경구성

(1) 활동자료

동시집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시」, 다양한 색깔의 종이, 연필, 색연필

(2) 환경구성

유아에게 동시를 들려주고 동시집을 언어영역에 비치하여 유아들이 자유로이 동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교사의 역할

교사는 유아에게 동시집의 동시를 한 편씩 읽어주고 그림 이야기책 읽기에

서와 마찬가지로 유아에게 동시를 들려주고 유아의 동시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 나누었다.

(6) 활동 전개 과정

· 11월 3주 동시 읽기

교사는 언어활동시간에 동시를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교사가 선택한 동시를 읽어주었으나 점차 유아들이 다시 듣고 싶은 동시를 들려주었다.

· 11월 4주 동시 만들기

제목: 단풍잎

알록달록 단풍잎 노랑노랑 단풍잎

빨강빨강 단풍잎 아주예쁘다나는 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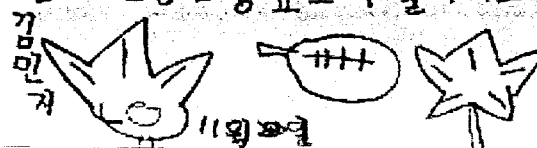
노랑단풍잎이 조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노랑노랑단풍잎은 다 떨어지고

빨강빨강단풍잎 또 다 떨어지고 김민지 11월 20일

제목: 단풍잎

알록달록 단풍잎 노랑노랑 단풍잎
빨강빨강 단풍잎 아주예쁘다나는 노랑
노랑단풍잎이 조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
온다노랑노랑 단풍잎은 다 떨어지고
빨강빨강 단풍잎 또 다 떨어지고
김민지 11월 20일

The image shows a child's drawing of autumn leaves. On the left is a stylized leaf with a stem and a small circle at the bottom. In the center is a speech bubble containing three vertical lines. On the right is another stylized leaf with a stem. The drawing is done in black ink on a light background.

이 유아는 가을의 현상인 단풍잎 떨어지는 모습을 시로 지었다.

제목-모자 김민지

알록달록 모자

정말조아요

알록달록모자

햇빛이 눈부실 때


모자를 써요

알록달록모자

할아버지가 쓰는

밀짚모자도 있어요

제목—모자 김민지
알록달록모자
정말조아요
알록달록모자
햇빛이 눈부실 때
모자를 써요
알록달록모자
할아버지가 쓰는
밀짚모자도 있어요



이 유아의 시는 모자와 알록달록이라는 의태어를 이용하여 시를 만들었다

제목 색연필-장소정

알록달록 색연필

멋쟁이 색연필

알록달록 색연필

그림을 그리고

알록달록 색연필

색칠을 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

우아정말 예쁘다

제목 색연필-장소정
알록달록 색연필
멋쟁이 색연필
알록달록 색연필
그림을 그리고
알록달록 색연필
색칠을 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
우아정말 예쁘다



이 유아 역시 알록달록이라는 의태어를 색연필과 관련지어 시를 지었다

제목: 지우개

쓱쓱쓱쓱 지우개

예쁜 지우개

쓱쓱쓱쓱 지우개

깨끗하게 지워주지요.

쓱쓱쓱쓱 지우개

네모, 세모, 동그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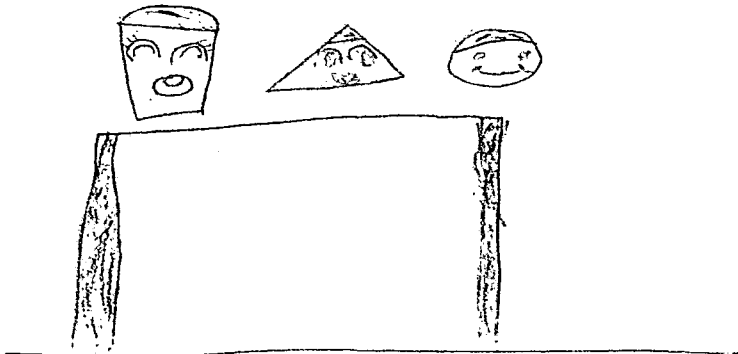
쓱쓱쓱쓱 지우개

지우개는 요술쟁이

지우개는 요술쟁이 박재임

저보고 쓱쓱쓱
 쓱쓱쓱쓱 지우개
 예쁜 지우개
 쓱쓱쓱쓱 지우개
 깨끗하게 지워주지요,
 쓱쓱쓱쓱 지우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쓱쓱쓱쓱 지우개
 지우개는 요술쟁이

<박재임>



이 유아는 쓱쓱쓱이라는 의태어를 지우개에 상징화하여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제목: 햇님과 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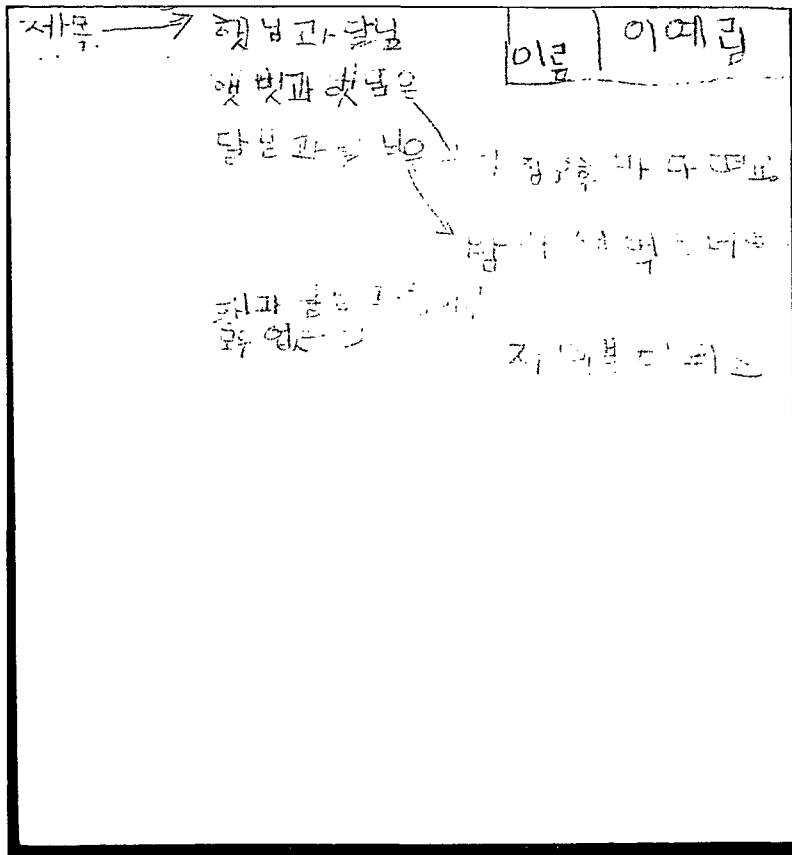
이름 이예림

햇님과 햇님은 아침 오후 마다떠요

달님과 별님은 밤과 새벽부터떠요

햇님과 달님과 햇빛은

모두없으면 저녁부터되조



이 유아의 시는 낮과 밤을 햇님과 달님의 현상으로 표현하였다.

제목 -> 전화기 11월 13일

전화만 오면 따르릉

따르릉 전하가오면

사람이손잡이를 잡아전-

확해요여보세요 내솔지어

린이집입니다 이형캐

말하지요 사람이전

확를 하면 따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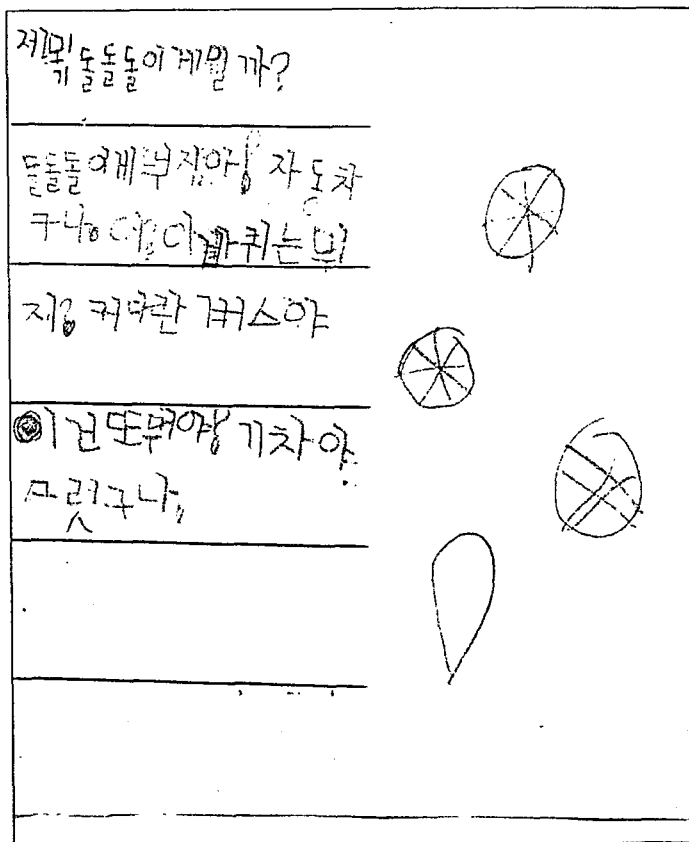
소리가나죠 전화기

말고휴대폰도있지

제목 => 전화기 11월 13일
전화만 오면 따르릉
따르릉 전하가 오면
사람이 손잡이를 잡아전 -
확해요여보세요 내솔지어
린이 집입니다 이형캐
말하지요 사람이전
확를 하면 따르릉
소리가나죠 전화기
말고 휴대폰도있지
요
— π —
— E —

이 유아는 전화의 의미를 시로 표현하였다.

제목: 돌돌돌이게 될까?
 돌돌돌이게 먹거야! 자동차
 구나. 어? 이바퀴는 뭐
 지? 커다란 버스야
 이건 또 뭐야? 기차야
 그랬구나.



이 유아의 시는 돌돌돌이라는 의태어를 바퀴에 상징화하여 시를 구성하였다.

제목: 문

문 문문이면 무엇이있을까요.

그레그레그레 데문이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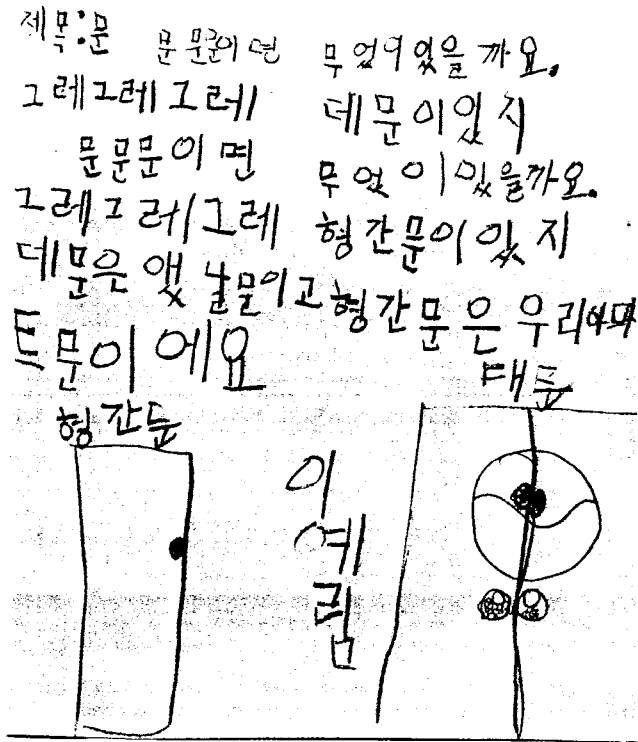
문문문이면 무엇이있을까요.

그레그레그레 형간문이있지

데문은 옛날이고 형간문은 우리아파

트문이에요

이에림



이 유아 역시 문과 그레라는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의성어와 의태어가 주로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목: 책

우리는 책이 조아요 왜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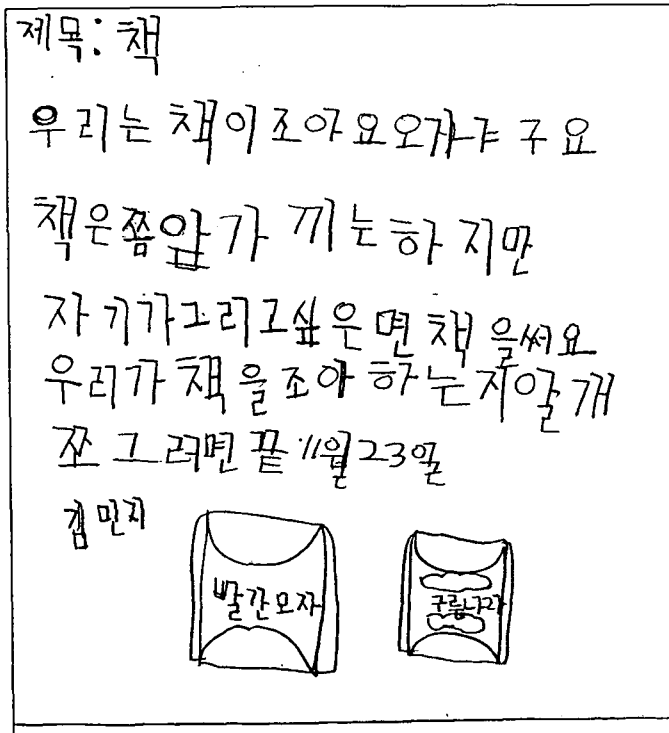
책은 좀 읽기 싫어 하지만

자기가 그리고 싶으면 책을 써요

우리가 책을 조아하는지 알개쵸

그런면 끝 11월 23일

김민지



이 동시는 유아들이 그림 이야기책을 원하면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는 감정을 표현하여 유아들에게 그림 이야기책 만들기가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제목: 구슬

구슬이 여러개 있습니다.

구슬은 부엌으로 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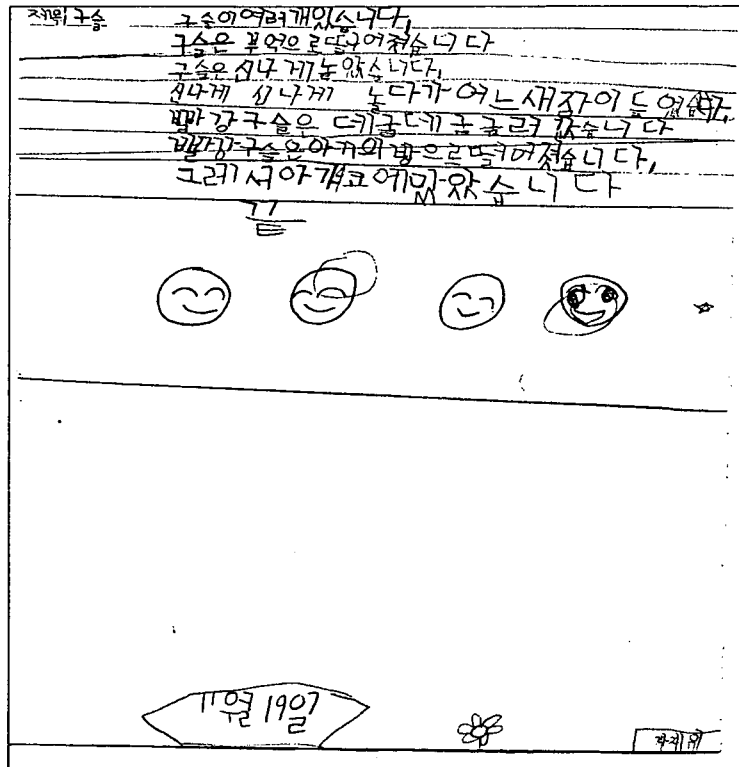
구슬은 신나게 놀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빨강구슬은 아기의 방으로 메굴메굴 굴러갔습니다.

빨강구슬은 아기의 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기코에 맞았습니다

끝



이 유아는 메굴메굴이라는 의성어를 구슬에 상징화하여 구슬이 굴러떨어졌을때의 현상을 적고있다.

제목 구름

구름이 둥실둥실떠다녀갑니다 구름이 해님을 불러

습니다 해님이 물여습니다 구름아나는 지금

바뿌단다 그래서 문노라조

그러니까 구름이 달님에게

대답을 해습니다 그래가치놀자

끝

제목 구름

구름이 둥실둥실떠다녀갑니다 구름이 해님을 불러

습니다 해님이 물여 습니다 구름아나는 지금

바뿌단다 그래서 문노라조

그러니까 구름이 달님에게

대답을 해습니다 그래가치놀자

끝

11월 19일 수요일 김민지

제목 - 꽃

꽃이 피었다

빨강 노랑 꽃

코스모스도 피었다

밖에는 날씨가 춥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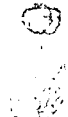
단풍잎이 다 떨어졌다

그런데 국화꽃도 피었다

제목 - 꽃

꽃이 피었다
빨강 노랑 꽃
코스모스도 피었다

밖에는 날씨가 춥다
단풍잎이 다 떨어졌다
그런데 국화꽃도 피었다



제목-치솔과 치약

치카푸카 칫솔

알록달록치약

사람이밥을 다 먹어서

치카푸카이를 딱아요

치카푸카이를 딱을 때

반짝빚치나요

제목 — 치솔과 치약

치카푸카 칫솔
알록달록 치약
사람이 밥을 다 먹어서
치카푸카이를 딱아요
치카푸카이를 딱을 때
반짝빚치나요



이 유아의 시 역시 치카푸카라는 의성어와 반짝반짝이라는 의태어를 칫솔과 치약에 상징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6) 행동변화

① 유아들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여 시에 이용하게 되었다.

②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하여 유아 세계의 현상에 표상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유아들은 시를 그림 이야기책의 산문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유아들의 시는 유아 주변의 현상을 깊이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고의 도구가 되었다.

제 II 장. 극 놀이 활동

1. 프로그램 구성요소

1 교사의 협의

솔지 극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연구원과 교사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교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은 극놀이방 설치, 비디오촬영, 극놀이방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극놀이방 교사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극 놀이방 설치를 위한 협의

기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장선생님 방을 극 놀이방으로 변화시켰다. 극 놀이 방으로 변화되기까지의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극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 극 놀이 방을 정한다. 타 영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간적 협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원장 선생님 방을 극 놀이 방으로 변환할 것을 합의한다.
- 극 놀이 소품을 구하기 위하여 부모들에게 협조를 구한다.

(2) 비디오 촬영을 위한 협의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을 만들기 위해 교사는 우선적으로 유아들의 극놀이가 풍부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극놀이를 활성화시

키기 위해 교사는 유아들이 수행한 극놀이 과정에서 어떤 언어, 동작, 분장을 사용하였는지를 회상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유아들이 진행하는 극 놀이 장면을 관찰하였다가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아들의 극놀이를 주도적으로 관찰할 교사 선정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점은 다음과 같다.

- 비디오 촬영은 원장선생님이 시간 나는 대로 담당하기로 한다.

그런데 한계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원장선생님 혼자 극 놀이 방을 자주 촬영할 수가 없다. 교사의 관찰 결과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에 극 놀이가 풍부하게 발생하지만 이 시간에는 교사나 원장이 차량운행을 나가거나 유아들의 등원지도에 신경을 써야하므로 많은 좋은 극 놀이 에피소드를 촬영하지 못해 사라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근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아동복지학과에게 자원봉사자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봉사하기로 하였다.

(3) 극 놀이 방 교사선정

극 놀이 방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1명과 원장이 역할을 분담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 일주일에 4번 정도 자유선택시간에 발생하는 극 놀이를 비디오로 촬영한다.
- 극 놀이 중 유아들이 요구하는 소품을 검토하였다가 환경을 구성한다.

- 극 놀이 촬영한 내용을 전사한다.
-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발생하는 극 놀이를 비디오에 촬영한다.
- 오후 종일 반 놀이는 원장이 촬영한다.

(4) 극 놀이 시간대 구성을 위한 협의

극 놀이는 집단의 크기별로 두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유아들이 극 놀이 방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진행하는 자유선택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극놀이 활동이다. 이는 소집단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소집단 극놀이 에피소드를 촬영한 내용을 감상하는 극 놀이 감상 및 토의평가이다. 이는 대집단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이루어지는 소집단 극 놀이 활동은 실제 유아들이 놀이에 참여하여 역할과 그에 따른 소품을 정하고 놀이 순서를 정하는 놀이 전개활동이다. 이는 어린이집 일과 중 오전의 자유선택활동시간과 오후 늦게까지 원에 남게되는 유아들끼리 이루어지는 자유놀이 활동시간에 가능하다. 또한 대집단 활동인 극 놀이 감상 및 토의평가활동은 오전 중 유아들의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이루어진 극놀이 내용과 오후 중 자유놀이 시간에 이루어진 극놀이 내용을 교사가 촬영해 두었다가 유아들에게 보여준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놀이 에피소드를 TV를 통해 감상하면서 놀이에 대한 유아 스스로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두 활동 중 소집단 활동인 자유선택 극놀이는 어린이집의 일과에 배정된 시간대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대집단 활동인 극 놀이 감상 및 반응하기활동은 새로운 또 하나의 대집단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하기에 일과 중 대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중 어디에 배정하여야 할지가 문제가 되었다. 즉 극 놀이활동이 하루의 일과 중 어느 때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토의하였다. 처음에는 점심식사시간 바로 전 극 놀이 감상, 토의 및 평가하기 시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대집단 활동이 너무 많이 오전에 몰려 있게되어 집단 구성의 균형이 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 시간대를 점심식사 후로 배정하였다. 유아들의 관리가 힘들고 대집단 활동의 연속으로 인한 유아들의 피로감을 우려하여 점심식사시간이 끝난 이후의 오후 활동으로 재구성하였다.

(5) 타인의 극 놀이 공유하기

극 놀이 에피소드는 주로 2-8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집단 모임의 시간대에 모든 학급의 유아들은 비디오를 통해 친구들이 놀이한 내용을 관찰함으로써 타인의 극 놀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종일반 유아들은 극 놀이를 하면서 오후를 보내기 때문에 극 놀이가 풍부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극 놀이한 내용을 촬영해두었다가 다음 날 비디오 감상하는 시간에 모든 학급 유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오후반 극 놀이 활동은 모든 유아들에게 극 놀이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도록 하였고 전 학급의 유아들에게 극놀이 활동을 전이하는 효과를 갖게 함으로써 극놀이를 활성화시켰다.

2 환경구성

교사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크게 극놀이방을 어느 공간에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극놀이 방에 비치해야 할 소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극 놀이 방

극놀이 방은 본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던 원의 기존 환경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극놀이 방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교사의 제안에 따라 원장선생님 방을 극놀이 방으로 변화시켰다. 타 영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간적 협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장선생님 방을 극놀이 방으로 변환할 것에 모두가 합의하였다.

기존 원장 방은 원의 1층에 있고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반 교실은 2층에 있었다. 따라서 극놀이 방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활용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오후에 늦게까지 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극놀이 방이 독립된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정감을 주기도 하였다. 늦게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몇몇의 유아들에게는 친구들이 모두 다 가고 없는 넓고 큰방보다 작은 극놀이방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또한 극놀이 방의 소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부모들에게 협조문을 보냈다.

원장실을 극놀이방으로 변환시킨 후 유아들은 새로운 방에 대한 호기심을 크게 나타내 보였다. 새로운 방은 유아들에게 극놀이에 대한 동기유발을 불러일으켰으나 몇 가지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우선 소품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극놀이 방 환경구성을 위한 부모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가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품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원에서 새롭게 변형하여 소품으로 비치하였다.

또 다른 한계점은 교실과 극놀이방이 공간 멀다는 것이었다. 극놀이방이 교실과 떨어져 있다보니 어린이들이 다른 활동과의 연결에 애로가 있는 듯하였다. 이 점에 대해 교사와 협의한 결과 극놀이 방을 교실과

인접한 공간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극놀이방은 교실의 옆 복도 빈 공간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상의 극놀이 방 구성의 변화과정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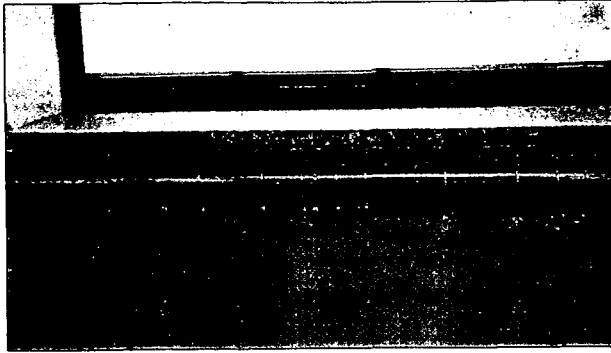
① 환경구성 전

극놀이방 환경을 구성하기 전에는 원장의 사무를 보는 공간이었으므로 유아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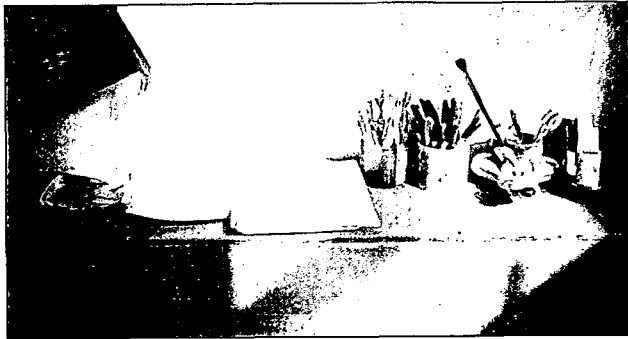


② 환경구성 후

극놀이 방 환경이 구성된 이후 극놀이 방에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극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로 채워졌다. 소품은 주로 가정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벽면에는 각종 소품을 걸 수 있는 걸이를 장치하였고, 극놀이 동안 자연발생적 문해가 일어날 것을 감안하여 문해자료들을 비치해두었다. 또한 교실의 안정감을 살리기 위하여 커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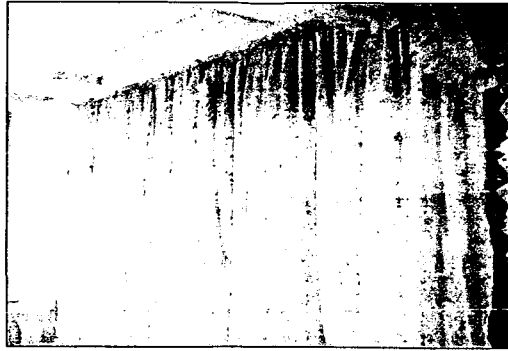
각종 소품을 벽면에 걸 수 있도록 만든 벽걸이



극놀이 시간동안 문해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문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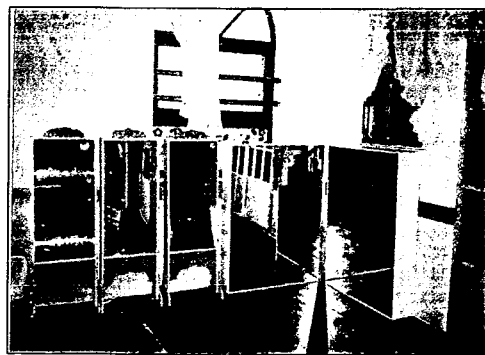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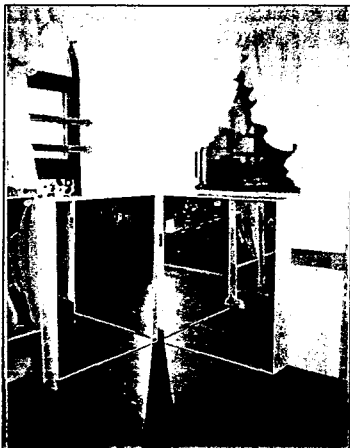
가정에서 수집한 각종 극놀이 소품



벽면의 장을 커튼으로 가림으로써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돕고 정돈되어 보이도록 하였음

③ 극놀이 방 재구성

교실과 극놀이 방이 멀어서 불편해하는 유아들을 돕기 위하여 교실과 인접한 2층 복도로 극놀이 방을 재구성하였다. 이 때 극놀이하는 유아들의 동작을 스스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아들의 키에 맞는 거울을 ㄱ 자모양으로 비치해 두었다.



<유아들의 동작을 스스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ㄱ 자 모양의 이 비치되어 있는 극놀이방의 모습>

(2) 극 놀이 소도구

가정으로부터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극놀이에 적합한 소품으로 변형시켰다. 이 때 교사는 완벽한 소품을 주기보다 캐릭터의 특징을 살린 상징적 도구를 제시한다. 이는 캐릭터 역할을 떠올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이야기를 동작으로 극화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아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자신의 역할에 적합한 분장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한 착안으로 원에서 제작하여 제공한 소도구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1: 동물의 꼬리와 모자



예2: 동물의 머리띠



사슴뿔을 연출한 머리띠를 쓰고 있는 유아의 모습

예3: 문어를 연상하게 하는 의상

(이 의상은 「지각대장 존」에서 과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음)



<닭의 벼슬을 머리띠에 붙여쓰고 붉은 옷을 입고서 닭의 모습을 분장한 유아 모습>

3 극 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유형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란 극 놀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활동은 크게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와 주제 환상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유아들은 놀이를 하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유아들의 이야기는 실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바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실생활 그자체 인 것은 아니다. 실생활에서 많은 이야기의 단서를 가져오지만 자신의 생각을 보태어 실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놀이에 담아내기도 한다. 소망이 많이 삼입될수록 놀이의 상상의 범위는 넓어진다. 유아들의 극 놀이 에피소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착안하여 유아들의 자연발생적 놀이를 촬영해두었다가 그대로 번안하여 이야기 창작하기 활동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2) 주제환상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주제환상극놀이는 유아들이 도서 영역에서 그림이야기책을 읽고 감상한 후 극놀이 방에서 그림이야기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역할을 정하여 그들의 행위와 정서를 동일시하기 위해 역할놀이 하는 것을 말한다. 유아들은 그림이야기책의 내용과 유사하게 역할을 정하고 대화를 하지만 여러 차례 놀이가 진행되면서 역할, 대화, 분장, 사건 등이 보다 창의적으로 수정, 변형, 첨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를 촬영해두었다가 그것을 감상한 후 그림이야기 창작하기 활동으로 전개된다.

4 극 놀이 시간

극놀이는 시간별로 집단의 크기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시간별로 이루어지는 극놀이는 다음과 같다.

① 오전 극놀이

모든 유아들이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극놀이를 할 수 있다. 이 때 주로 소집단 극놀이가 이루어진다.

② 오후 극놀이

소집단으로 이루어진 극 놀이를 교사가 비디오에 촬영해두었다가 모든 유아들이 모이는 시간에 대집단으로 극놀이 비디오 감상하기 활동을 한다.

③ 오후 극놀이

종일 반 유아들은 오전반 유아들이 귀가한 후 주로 극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5 교사의 역할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이 되는 역할은 유아들의 자연발생적 극 놀이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일이다. 유아들의 자연발생적 극 놀이는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이나 오후 종일 반 놀이시간에 주로 발생한다. 유아들은 주도적으로 놀이를 진행해 나간다. 즉 놀이의 역할을 정하고 놀이의 순서를 정하고 역할에 적합한 분장을 하고 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 이러한 상황을 교사는 비디오 촬영을 해둔다.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가 심화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개입을 하거나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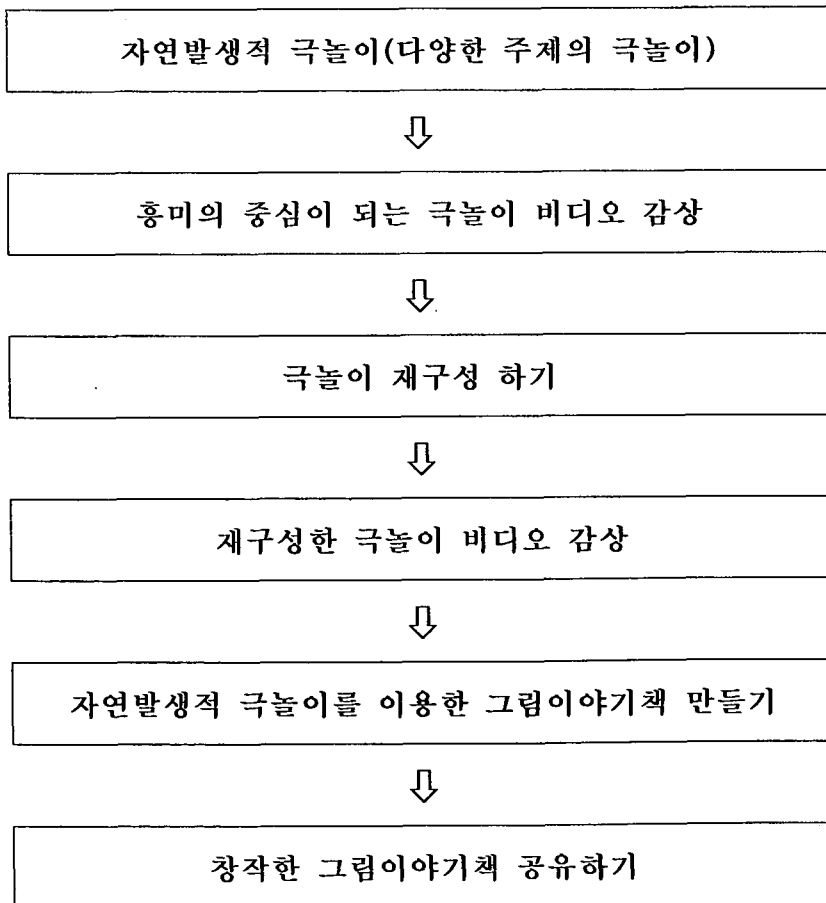
6 기대효과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들은 다음과 같은 발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언어, 동작, 분장을 위한 소품을 사용한다.
- 유아들이 표현한 언어, 동작, 분장을 시각적으로 재인식한다.
- 시각적으로 재인식한 언어, 동작, 분장을 놀이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놀이가 풍부해진다.
- 풍부해진 놀이에서 나타난 언어, 동작, 분장을 시각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처음부터 진행되어온 놀이의 변화과정을 탐색한다.
- 놀이의 장면을 그림으로 시각화한다.
- 놀이에서 발생한 구어를 문어로 바꾸어 본다.
- 각각의 유아들이 표현한 문어와 그림을 공유한다.

2.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적 극놀이(다양한 주제의 극놀이)

극놀이방의 탄생 이후 유아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극놀이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극놀이가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교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의 극놀이를 모두 수집하여 그 중 유아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활발한 극놀이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유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극놀이를 심화시켜 나가게 하고 유아들의 자연발생적 구어를 문어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교사는 우선적으로 유아들의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관찰하고 극놀이 상황을 모두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유아들의 자연발생적 극놀이는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이나 오후 종일 반 자유놀이시간에 발생한다. 유아들은 주도적으로 놀이를 수행한다. 즉 역할을 정하고 놀이의 순서를 정하고 놀이 소품을 결정하고 분장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 이러한 상황을 교사는 비디오 촬영을 해 둔다.

솔지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발생한 자연발생적 극놀이는 오후 프로그램의 종일반 자유놀이 시간이었다. 자연발생적 극놀이 상황을 교사는 일주일간 비디오에 촬영해두었다. 교사가 수집한 극놀이 유형은 결혼식 놀이, 시장놀이, 인디언 놀이, 동물꼬리놀이 등이 있었다.

1) 결혼식놀이1

(1) 활동탄생배경

극놀이 방이 구성된 첫째 날 유아들이 놀이한 것 중 가장 흥미롭고 진지하게 수행된 것은 결혼식 놀이였다. 이는 민지라는 여자아이가 드레스 소품을 입고 흰 면사포를 머리에 쓰면서 시작되었다. 민지는 남자

유아에게 신랑이 되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부와 신랑이 정해지고 결혼식은 시작되었다.

(2) 교사의 역할

- 극놀이 하는 유아들을 관찰한다.
- 유아들의 극놀이 모든 장면을 비디오 촬영한다.
- 도움을 요청하는 유아들에게 도움을 준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여자: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머리에 쓴다 남자유아를 향해) 니 신랑 할래?

남자: 그래 (신랑은 검정색 양복을 입는다.)

남,녀: (옆에 있는 다른 유아를 가리키며) ‘딤 딤 딤 딤’하고 불러

여자: 부케를 던지고 옆에 있던 다른 여자 유아들이 받았다.

② 유아들의 행동의 변화

· 결혼식놀이를 위해 신랑과 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부와 신랑의 역할에 적합한 분장을 하였다.

·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장에 입장하고 다른 유아에게 부케를 던짐으로써 극을 간단하게 끝마쳤다.

· 유아들 사이에 언어적 사용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 역할 연출을 위해 분장의 사용과 동작의 사용이 주로 이루어졌다.

· 놀이의 에피소드는 아주 짧았으며 놀이의 역할 또한 신랑, 신부가 전부였다. · 음향효과를 내기 위해 역할에 참여하지 않고 옆에 있던 유

아에게 “땀 땀 땀 땀”이라는 결혼행진곡의 음향을 목소리를 사용하여 내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2) 결혼식놀이를 위한 문해 활동

(1) 활동탄생배경

결혼식놀이를 보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유아들이 결혼식과 관련 되는 글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사는 문해 자료를 비치해두었고 이에 따라 유아들은 결혼식과 관련되는 문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필기도구, 각종 종이 류, 가위, 풀

(3) 교사의 역할

· 자연발생적 극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해 활동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환경을 구성해주고 자료를 마련해준다. 교사가 마련해 준 문해 자료는 각종 종이 류, 필기도구, 가위 등과 같은 것이었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결혼식놀이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동안 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제작하기 위해 자연발생적 문해 활동이 탄생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 결혼식장이라고 글을 쓰고 붙이기
- 식당이라고 장소를 정하여 쓰고 붙이기
- 신장 신부 이름을 쓰고 붙이기

이를 사진으로 찍은 장면은 다음과 같다.



<결혼식장이라고 쓰고 극놀이방 벽면에 붙이는 장면>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극놀이에서 필요로 하는 소품을 제작하기 위해 글을 결혼식과 관련 되는 글을 쓰고 오린다.
- 제작한 글자를 결혼식장의 환경을 연출하기 위한 적당한 곳에 비치 한다.

3) 결혼식놀이2

(1) 활동탄생배경

최초의 결혼식 놀이가 발생한 후 유아들은 결혼식놀이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었다. 때문에 극 놀이방에 들어온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결혼식 놀이를 하기를 원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결혼식 소품(여자 한복, 남자 양복, 면사포, 꽃다발)

(3) 교사의 역할

- 극놀이 하는 유아들을 관찰한다.
- 유아들의 극놀이 모든 장면을 비디오 촬영한다.
- 도움을 요청하는 유아들에게 도움을 준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신부: 입장

신랑: 너희들 다 앉아야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사회자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남자: 난 동물 손님 할거야

관객: (바닥에 앉아있는 관객을 가리키며) 여기만 있고 이상하잖아요
(유아 몇 명이 일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앉음)

관객: 너무 많이 있어 복잡해요

신랑: (신부에게) “야 니 꽃 저쪽으로 들어”

(신부는 다른 손으로 꽃을 옮긴다.)

신랑: 신부 입장해! 빨리 하자.

신부: 야, 누가 피아노 쳐 탄탄탄...

(극놀이 방에 함께 있던 다른 아이들이 모두 ‘탄탄탄’하고 음성으로 피아노의 소리냄)

신랑: (신부 면사포 고쳐준다.) 신부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아이: (어떤 아이를 보면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여기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지 신부 아버지는 00가 해

(다른 유아들의 역할을 정해주며 바쁘게 다닌다.)

신랑: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신부는 신랑의 팔짱을 끼고 슬금슬금 걸기 시작한다.)

사회자: 신랑입장, 신부입장

신랑: (사회자에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해야지

사회자: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뽀뽀해야지

신부, 신랑: 신랑이 신부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자 신부는 피한다.

신부: 누가 이 꽃 할 사람?

유경: 좋아 내가 잡아야지

신부: 꽃 던지면 잡아 누가 어머니 할 사람? 윤경이?

(윤경이를 보면서) 손도 잡아주어야지, 그럼 어린이 할래?

 응? 어린이도 잡으면 돼

신부: (부케를 던진다.)

유경: (부케를 잡고 좋아한다.)

② 유아들의 행동 변화

- 역할이 증가하였다.
- 극놀이 에피소드가 길어졌다.
- 언어의 사용이 풍부해졌다.
- 타인의 극놀이 진행순서와 언어의 사용을 알려주었다.

3) 동물결혼식놀이

(1) 활동탄생배경

전날 결혼식에서 동물 관객이 되고 싶어하는 유아가 있었다. 그것

이 계기가 되어 동물결혼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결혼식 소품(여자 한복, 남자 양복, 면사포, 꽃다발)

(3) 교사의 역할

· 동물분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트지를 비치해 두었다. 또한 동물 결혼식과 관련되는 이야기인 「꼬마곰에게 뽀뽀를」 그림이야기책을 극놀이 방에 비치해 두었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사회자 : 난 짹짹이야, 동물 사회자야

유아1, 2: 옷을 갈아입음

사회자: 조용조용 나 꼬리 있어 머리 빨도 달음

사회: 김민지가 머리 다 풀고 남자여야 해요

민지: 검정 옷을 갈아입고 검은 모자를 씌(신부아버지역할을 한다.)

민지: “짹짹” 야 아빠해 아빠해 아빠 왔단 말야

신부: 치마 들어줘요. 드레스 옷 들어줘

유아들: 한복 갈아입음

“땡땡땡”

사회자: 신랑입장(마이크: 쿠킹호일 속 심지를 사용)

신랑입장(마이크: 봉을 사용)

유아들: 그 다음 치마들어 주는 사람이 빨리 들어줘

(한 유아가 치마를 들어준다.)

유아들: 00야 피아노를 쳐 (입으로 “땡땡땡 소리를 낸다.”)

신랑은 아빠 손 잡고 입장해야지

(사회자를 보며) 그 다음 잘 살 수 있어라고 해야지

사회자: 그럼 잘 사시유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각종 동물의 역할을 연출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분장을 하게 되었다(동물의 꼬리, 뿔의 소품을 사용한다.)

· 동물의 음성을 상징하는 의성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 교사가 극놀이 방에 「꼬마 곰에게 뽀뽀를」의 그림이야기책을 비치해 둔 결과 주제환상극놀이 활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다음으로 주제환상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꼬마 곰에게 뽀뽀를」를 감상한 후 자연스럽게 발생한 주제환상극놀이 장면들이다.



「꼬마곰에게 뽀뽀를」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모습



「꼬마곰에게 뽀뽀를」 분장한 모습



「꼬마곰에게 뽀뽀를」에서 암수 스킹커가 뽀뽀하는 장면

4) 결혼식놀이3

(1) 활동탄생배경

결혼식놀이에 흥미를 갖고 있는 유아들이 오후에 남아 지속적으로 결혼식 놀이를 하기를 원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결혼식 소품(여자 한복, 남자 양복, 면사포, 꽃다발)

(3) 교사의 역할

- 극놀이 하는 유아들을 관찰한다.
- 유아들의 극놀이 모든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둔다.

- 도움을 요청하는 유아들을 돕는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유아: 손잡고 와 딱딱딱따

유아들: 딱딱딱 (합창)

사회자: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습니까?”

신랑, 신부: (둘은 보고 서로 웃기만 한다.)

관객: “들을 뽀뽀시키고 안아주세요”

관객: (박수 치며 좋아함)

사회: “부케를 던져”

신랑: (부케를 받는다.)

신부: “잠깐, 또 이제 누가 할래”

(신부역할을 맡은 여자유아가 신랑의 역할을 바꾸어 하기를 제안하자 다른 남자 유아가 신랑의 역할을 맡아 결혼식놀이는 반복해서 다시 일어난다.)

<놀이자와 역할을 바꾸어서 놀이를 다시 한번 더 진행한다.>

신부와 신랑: (엉덩이에 꼬리 달아 동물 분장을 한다.)

사회자: “신랑 입장”

신부: “ ‘신랑....와 신부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사회자: “신랑 주현이와 신부 민지는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 (신랑의 손을 잡고 걷는다.)

사회자: “신랑과 신부는 행복하세요”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관객: 모두 웃음

사회자: (신랑과 신부를 가리키며) “뽀뽀하세요”

“안아주세요”

신부: “인사하자” (신랑과 신부는 마주보고 인사를 한다)

“아빠가 꽃 받아야지”

신부 아빠: (꽃을 받는다.)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유아들은 아기가 탄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극놀이가 발생한지 둘째 주가 되는 날이었다. 이날, 민지라는 유아가 극 놀이를 마친 후 자신이 놀이한 에피소드를 글로 직접 적어서 교사에게 주었다. 극놀이 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지는 않고 아주 간단하게 적었기는 하였지만, 유아들이 직접 극놀이 흐름을 글로 적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극놀이를 통한 이야기 만들기 문해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5) 식당놀이1

(1) 활동탄생배경

어린이집에 새롭게 탄생한 극 놀이 방이 개방된 이후 유아들은 이 방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이 곳에서 유아들은 여러 가지 의상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입고 벗었다. 한 여자 유아는 극 놀이 방이 좋다고 글로 쓰는 유아도 있었다. 또 다른 유아는 ‘과일 사세요’라고 말하였다. 교사가 이에 ‘무슨 과일이예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유아는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요 사과 , 토마토 , 바나나.... 모두모두 싱싱해요.’ 라고 말하였다. 교사가 ‘그래요 맛이 어때요’ 라고 하자 유아는

‘과일이 꿀처럼 맛이 있어요’ 라고 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발생한 결혼식놀이 후반에 한 유아가 결혼식이 끝나면 식당에 가야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식당놀이가 전개되었다. 유아들은 식당에 앉아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시키기 시작하였다. 여기 어떤 것 팔아요? 얼마예요? 라는 질문과 답이 오고 가다가 한 유아가 음식의 이름과 가격을 적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식당놀이가 전개되었는데 한 유아가 주인이 되었는데 교사에게 와서 음식 주문 요청을 하자 극놀이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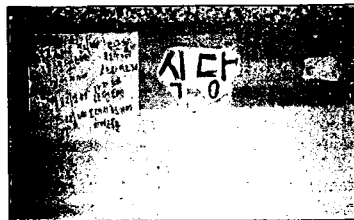
(2) 자료 및 환경구성

· 교사가 제시한 자료

각종 필기도구, 각종 종이류, 가위, 풀

· 유아들이 스스로 구성한 환경

유아들은 식당놀이를 위한 환경구성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와 관련되는 문해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식당」 간판, 가격표를 만드는 것이 주가 되었다. 유아들이 제작한 가격표에는 빵 - 2000원, 커피 - 500원, 고추 튀김 - 500원, 커피 - 1000원, 우유 - 500원, 꿀 - 1000원, 사과 - 1000원, 도너츠2개 - 2000원이라고 적혀있다.



<유아들이 놀이 도중 제작한 간판과 가격표>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이 놀이자의 역할을 맡아주길 원할 때 놀이자의 역할을 해주었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이상의 메뉴를 만들어서 식당의 벽면에 붙인 후 유아와 교사의 놀이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았다.

유아1: 뭘 드실래요

교사: 커피가 하나는 500원 하나는 1000원인데 왜 가격이 달라요

유아1: 하나500원 맛이 없고요 2개 1000원 맛이 있어요

교사: 아 그래요 그런데 나는 2개 못 먹는데 그래도 맛있는 커피가 먹고 싶어요

유아: 그러면 오늘만 맛있는 커피를 한 개 500원에 줄게요

교사: 고마워요 빵이 왜 이렇게 비싸요

유아: 맛있는 빵만 모아놓아서 그래요

교사: 무슨 빵인데요

유아: 야채 빵, 땅콩 짬 빵, 치즈 빵 그래요

교사: 참 맛있겠어요 빵과 커피를 주세요

유아: 맛있게 드세요

(교사가 먹는 시늉을 끝내자)

유아: 계산하세요

교사: 아 ! 참 어쩌나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네

유아: 그럼 카드 주세요

교사: 카드가 없는데요

유아: 카드를 만들어요 지금 만들어 줄까요

교사: 예

유아: 무슨 카드를 만들래요

교사: 음 ~

유아: LG카드를 만들면 좋아요

교사: 그래요

(이 때 유아는 또 카드라는 소품을 종이로 만들었다. 유아는 종이에 다 카드라고 쓰고 “LG카드” 라고 쓰고 들고 와서 사인을 요구했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계속하였다.)

유아: 카드로 계산을 하면 1000원을 DC해줄게요

교사: 고마워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발생한 다른 유아들의 놀이가 있었다>

유아: “ 과일 한 개만 사세요

교사: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유아: 아주 싱싱한데요 또 사과 있어요

교사: 얼마예요?

유아: 500원인데요

교사: 너무 비싸다.

유아: 파인애플은 200원 이에요

이건 여름에 따고 이건 가을에 따고(신선도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

이 아이는 제철 과일이 싼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에 가을 과일을 더 비싸게 부름)

유아: 3개 밖에 없다.

유아: 이거 밥이야 커피 따라야겠다.

유아: 4개 따를게 음료수 줘

유아: 이밥 여기 있어

유아:(접시에 음식을 차리며 상에 갖다놓음) 내가 갖다 놔

유아:꽃이 중간에 있으면 좋지(소품 꽃다발을 식탁 중간에 세우려고 노력함)

유아:(식당티켓을 만들어서 131415를 읽음)

유아: 그냥 이제 테이프로 매달아봐야지(컵의 길이가 짧고 플라스틱 인데 꽃이 너무 많아 컵이 자꾸 무너진다.)

유아: 너무 많아요(휴지를 가지고 와 컵 속에 채운다 그래도 컵이 무너진다.)

유아: 좋은 생각이 났어 ! 원장선생님 테이프로 부쳐주세요

교사: 컵을 테이프를 사용해서 컵을 고정시켜준다.

유아: 맞다!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발생한 다른 유아들의 놀이가 있었다>

유아: 너네 결혼 안 할거야 우리 식당 놀이해 결혼놀이는 사람이 많아야해

꼬리잡고 드레스를 잡고 요리하려면 앞치마를 입어야지

유아: 한복을 입음

유아: 한복을 입음 재미있다 너무너무 재미있다. 한복을 입으며 즐거워함

(어린반 유아는 언니 드레스 입는 것 도와준다.)

유아: 누구 나랑 결혼해야지. 누가 남자해야지. 그러니 빨리빨리 결혼하자.

신랑 입장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옆 유아에게)

유아: 면사포 쓰고 ‘땀땀’해! (계속 걸으면서) 야, 신부 입장해

유아: 신부 입장

나 다시 있을래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놀이 도중 “LG 카드”가 필요하게 되자 유아가 이를 종이에 그려서 오린 후 놀이 소품으로 사용하였다.

· 유아는 카드사용에 대한 경험을 부모와 한 적이 있는 아이였다. 자신이 알고 있는 카드에 대한 사용법을 놀이에 그대로 표출하였다.

· 이 날 오후에는 이 놀이에 흥미를 느낀 유아 몇몇이 모여 직접 돈을 만들어서 식당 놀이를 했다

·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졌다가 금방 주제가 뒤섞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6) 동물꼬리놀이

(1) 활동탄생배경

교사가 제시해준 여러 가지 동물의 꼬리를 가지고 분장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어 동물의 흉내를 내어보고 백년 묵은 여우 흉

내를 내기도 하는 등의 동물꼬리놀이를 시작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여러 다른 동물의 꼬리

(3) 교사의 역할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한다.

비디오 촬영을 한다.

소품을 비치해둔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유아: 이게 남자꺼야

유아: 나 꼬리하고 싶어 선생님 해주세요

유아: 히히히 왕주현 나도 해줘라

유아: 꼬리가 달려다 아이유

유아: 나도 꼬리 없어요

유아: 이거 누구 할 사람?

유아: 김예찬 나 좀 봐

유아: 꼬리가 달려네

유아: 내 꼬리가 달렸네

유아: 앞으로 날아라, 하하하하

유아: 백년 묵은 여우하자

유아: 꼬리를 숨겨야해

유아들: 모두 옷안에 꼬리를 하나씩 숨긴다

유아: 우리 백년 묵은 여우 한다.

유아: 꼬리 있나?

유아: 꼬리 있다. 봐봐 (엉덩이의 치마를 들어 꼬리를 보여준다.)

사람으로 변했어 꼬리 없는 아이들 모두 사람 해

유아: 나는 백년 묵은 여우니깐 “아....우.....”해야지 (계속해서 여우소리를 낸다.)

유아: 남자야 백년 묵은 여유다.

유아: 총각은 누가 할래?

유아: 난 백년 묵은 여우 동굴에 있는 백년 묵은 여우다.

난 꼬리3개 할거야

(모두 꼬리하나씩 엉덩이에 달고 폴짝거리며 뛰어다닌다.)

“뛰뛰 리야야”

유아: (꼬리 3개를 한꺼번에 엉덩이에 달고 또 머리에는 뿔을 쓰고 거울을 보면서 기어다닌다.)

“비야 부아.....으흐 딱딱....끼기...”

(엉덩이를 흔들며) “꼬리가 3개나 있어”

유아: (전화기를 들어 거울을 보며) “뽀뽀....야.....”

(유아들은 각기 꼬리 분장한 후 아주 즐거워함)

유아: 문어야요. (옷을 입고 앉아서 기어다닌다. 잠시 후 선다. 추장모자를 쓰고는)

“아야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옷을 입고 또 벗는다.)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동물의 음성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 의상으로부터 동물의 형태를 생각해내고 동일시하였다.

7) 인디언놀이

(1) 활동탄생배경

한 유아가 검정색 망토를 입고 추장모자를 쓰고는 “아야아.....” “아 프리카. 아프리카....”라고 외치자 그에 동기가 유발된 동료들이 함께 추장모자를 쓰거나 분장에 동참하면서 인디언놀이가 시작된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검정색 망토, 인디언 모자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한다.
- 비디오 촬영을 한다.
- 소품을 비치해둔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에피소드 바꾸기 위해 모두 옷을 갈아입기 시작

민지: 이제 누가 남자 할꺼야

이제 내가 피아노 칠꺼야 누가 남자할꺼야

신데렐라 놀이 할거다

유아: 내가 왕자 할게

유아: 요술하는 거 있어야 한다.

(모두 옷을 바꿔 입음)

유아: 신데렐라 놀려줄려고 빨리 작품 만들자

유아: 병사들이 없어

유아: 난쟁이 할래 난 난쟁이

유아: 나도 난쟁이 할래

유아: 신데렐라 누군데?

유아: 나 난쟁이

유아: 신데렐라 아가씨 어디 갔지?

유아: 신데렐라 즐었어?

유아: 모자가 왜 없지?

유아: 나 따라와

노란색 부칠게 있어야 하는데 없어(검정시트지 조각를 들며)

유아: 앞치마 드레스?

유아: 너 누구데?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서 다님

유아: 선생님 이거 좀 부쳐주세요

유아: (인디언 모자를 씌) 우리가 인디언 이야오.....

유아: 오.....(따라서 소리냄)

유아: 인디언들이야 여자 인디언(웃음)

유아: 오.....인디언 창이 없어

유아: 너 여자 인디언이니?

유아: 종이 봉 들고 인디언 창이야 랄랄랄.....

유아: 소파에 앉음

유아: 여기 비켜 여기는 왕이 앉고 여기는 신하가 앉아야하는데

유아: 비키지 않음

유아: 책상 위에 앉음

유아: 내가 신하 할래

유아: 난 난쟁이 할래

유아: 선생님? 나 신데렐라?

유아들: (모두들 돌아다니면서 즐거워함)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인디언 놀이를 하는 동안 유아들의 놀이 속에는 지금까지 해온 결혼식놀이나 동물꼬리놀이 등과 같은 주제의 놀이 에피소드가 섞여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유아들은 놀이가 풍부해짐에 따라 새로운 놀이를 창출하게 되는데 새로운 놀이의 창출은 역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놀이가 기초가 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 인디언 놀이를 하는 도중에도 결혼식놀이, 신데렐라, 백설공주 놀

이 등의 주제가 혼합되어 나타났다.

2 흥미의 중심이 되는 극놀이 비디오 감상

(1) 활동탄생배경

결혼식에피소드 비디오감상하기활동은 극놀이를 하는 장면을 교사가 비디오 촬영해두었다가 감상하기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유아들의 자연발생적 극놀이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비디오 테잎

(3) 교사의 역할

극 놀이 비디오를 유아들에게 보여준 후 교사는 유아들의 극 놀이 장면을 마치 그림이야기책을 들려줄 때와 마찬가지로의 형식으로 유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극놀이한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들려주었다. 교사는 '너희들이 극 놀이 한 내용을 동화식으로 들려줄 테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비디오 감상한 결혼식 극놀이 에피소드 원본를 이야기식으로 변형시켜 들려준다.

(4) 전개과정

① 결혼식 극놀이 에피소드 원본

신랑: 너희들 다 앉아야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사회자의 필요성을 뜻함)

유아: 난 동물할거야

유아: (바닥에 앉아있는 관객을 가리키며)여기만 있고 이상하잖아요.

(유아 몇 명이 일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앉는다.)

유아: 너무 많이 있어 복잡해요.

신랑: (신부에게) 야, 니 꽃 저쪽으로 들어

(민지 다른 손으로 꽃을 옮김)

신랑: 신부 입장해 빨리 하자

신부: 야 누가 피아노 쳐 탄탄탄...(아이들 모두 탄탄탄 피아노 소리
냄)

(신랑이 신부 면사포 고쳐줌)

신랑: 신부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객: 애가 이렇고 또 ...가 여기 있고 남편이 있어야지 아버지는 ...가
하고

말하면서 역할을 정해주며 바쁘게 다닌다.

신랑: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신부 신랑 팔짱끼고 슬금슬금 걷기 시작한다.)

사회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랑이 사회자에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해야지

사회자: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뽀뽀해야지

신부: (신랑을 피한다.) 누가 이 꽃 할 사람?

유경: 좋아, 내가 잡아야지.

신부: 꽃 던지면 잡아 누가 어머니 할 사람? 윤경이

엄마 손도 잡아주어야지 어린이 할래?

유경: 응?

신부: 아니 어린이도 잡으면 돼

(민지가 부케를 던지고 다른 유아가 잡는다.) 유경이 부케 잡고 좋아
함

② 극놀이 원본을 이야기 식으로 변형시켜 들려준 내용

솔지 어린이가 만든 극놀이 이야기입니다.

신랑 성하와 신부 민지가 결혼식을 했어요.

신랑 성하가 ‘너희들 다 앉아야지 또 신랑 입장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했어요. 주현이가 ‘난 동물할거야’ 라고 했어요.

소정이가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의 친구들이 자리를 옮겨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성하가 너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복잡하다고 했어요. 또 성하는 민지를 보면서 ‘야, 니 꽃은 저쪽으로 들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하는 주례사를 보면서 신부 입장 해, 빨리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부는 야, 누가 피아노를 쳐, 탄탄탄... 도현이와 친구들은 탄탄탄 피아노 소리를 내었어요. 성하는 민지의 면사포를 예쁘게 고쳐주었어요 주현이는 야 신부 아버지가 있어야지 했어요. 그랬더니 소정이가 야, 신부는 아빠 팔장을 끼고 걸어가는 거야 하고 말했어요 성하는 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니깐 신부 민지가 신랑의 팔장을 끼고 슬금슬금 걸었어요, 사회자 주연이가 신랑 신부에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또 ‘아들 딸 잘 낳으슈’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하하하’웃었어요 부끄러워말고 신랑이 뽀뽀를 했어요. 신부는 이 꽃 누가 잡아야지 하니까 유경이가 ‘내가 잡을께’라고 했고 신부가 부케를 던지니까 유경이가 잡았어요. 유경이는 부케를 잡고 좋아했어요. (유경은 왜 좋아했을까요?)

③ 유아들의 행동변화

· 극놀이 내용을 회상한다.

교사가 이야기 식으로 극 놀이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동안 유아들은

'야, 우리가 극 놀이 한 거다' '저건 민지가 한 말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가리키면서 내용을 상기시키고 지적해주었다.

· 극놀이 내용의 잘못을 인식하고 지적한다.

교사는 이야기 식으로 끝까지 들려준 후 '너희가 한 극 놀이를 이야기 식으로 들려주었는데 여기서 끝이 났구나!'라고 말하였다. 유아들은 '결혼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였다. 교사가 '뭐가 잘못되었니?'하고 묻자 '신부랑 신랑 친구가 없고 폭죽이랑 눈처럼 뿌리는 것이 없어요' 또 '신랑과 신부는 사진 찍은 후에 한복으로 갈아입고 절을 해야해요' '어른이 있어야하고 음식도 있어야해요' '앞에 칼 들고 그 사이에는 신부 신랑이 지나가기도 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 극놀이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내용, 소품, 역할 등을 추가한다.

결혼식에서 빠진 소품과 여러 가지 결혼식의 다양한 축하장면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신부 엄마는 자리에 미리 앉아있어야 해요'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혼식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말하였다. 주례사, 사회자, 사진사와 비디오 찍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 유아들은 결혼행진곡의 피아노 소리 대신에 말로 '땀땀'이라고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힘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아노 소리를 녹음기에 담아서 틀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3 재구성한 극놀이

(1) 활동탄생배경

유아들이 비디오를 보면서 새롭게 첨가되거나 변형되기를 토의한 내용으로 극놀이를 다시 수행하였다. 이날 유아들은 전날 토의한 내용에

또 다시 새롭게 변형을 요구하기도하였다. 주로 역할과 환경에 대한 재 구성을 제한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전날 유아들이 극놀이에 더 참가되기를 언급하여 준비한 여러 가지 소품들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폭죽 등)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한다.
- 비디오를 촬영한다.
- 소품을 비치해둔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교사가 나가자 유아들은 극 놀이를 하기 위하여 각자 분장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민지는 드레스 입고 다른 유아들도 분주 유아들의 소리가 너무 분별이 불가능한 가운데 극 놀이가 시작되었다.

극 놀이 재구성하기에서 발생한 극 놀이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다.

명철: 의자도 있어야지

주현: 지금부터 주례자가 나오겠습니다.

성하: 주례자 없어 그러면 신랑 신부 나와야지.

그럼 지가 주례자로 가짜로 하면 되잖아. 이게 뭐예요?

(유아들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주현은 서성거린다.)

중석: 주례사가 없어

성하: [주현을 가르키면서] 니가 사회와 주례를 다 하면 되잖아

성하: 야 가짜로 주례, 사회자 해 빨리

주현: (머리를 긁음)

사회: 신랑입장

모두: 째 째 째

한 아이 등장함

주현: 신부 입장(아빠유아와 함께 걸어나옴)

관객: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관객: 그래 비누방울도 있어야 하는데

민지: 야 빨리 칼 들고 있는 사람 나와

(신랑신부가 서 있고...)

도현 - 야 빨리 주례를 해 나 혼자 째째하니까 힘들어

사회: 잘 살수 있습니까?

성하: 야 빨리 박수 안치나? 뽀뽀하세요.

민지: 뿌려야지

관객: 엮어줘야지 주고 안아 줘야지

신랑: 안아줌

관객: 진짜 엮어

신랑: 엮혀[엮어 주다가 넘어짐]

관객 웃음이 터져 나옴

(신랑이 신부를 엮어주자 신부는 좋아한다.)

관객: 꽃가루를 뿌려, 확 뿌려

신부: 꽃다발을 던진다.

(모두 꽃가루를 뿌리는데 환호성을 지름, 소란스럽다.)

성하: 야, 이제 음악 그쳐

소정: 황성하 이리 와봐 절하는 방으로 가야지

소정:[다른 유아를 가르치면서] 야 빨리 한복 좀 가져다 줘

민지: 한복을 입으시오(자기도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음)

주현: 민지 보고 있잖아 얼굴에 빨간 거 바르잖아

명철: 올라서서 앉아봐, 붓으로 화장을 칠해줌 , 머리 손질도 하여줌

비누방울 사왔으면서 얼굴에 동그라미 오려 붙이고 주현은 거울을 들고 민지에게 보여준다. 민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는다. 머리를 빗고(빛이 없으니 가위를 뒤로하여 머리를 빗기는 흉내를 낸다.)

한 여자 유아가 민지의 팔을 잡아준다.

관객: 야 민지 너 이렇게 하는 거야 (한복을 입은 꼬마 인형을 보여주면서)

상원: 이것은 만지면 안 돼! 절하는 음식이야!(소꿉놀이 장난감을 상위에 차린다. 신랑신부는 신랑신부의 엄마 아빠 역을 유아 앞에 패백상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 절을 할 때 한 유아가 신부의 팔을 잡아준다.)

신부: 전부 일어서!

관객: ‘찰깍’ (소리를 내며 사진 찍는 흉내를 낸다.)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역할의 재구성이 일어났다.

극놀이를 시작하려고 하자 한 유아가 제안하였다.

-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어요

교사 - 뭐가 잘못 이니?

- 신랑 신부 부모님을 정해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 신랑 신부 친구도 있어야 되요

- 문 있는 곳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요
-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어야 되요
- 폭죽도 있어야 해요
- 눈처럼 뿌리는 것도 있어야해요
- 주례하는 사람말고 옆에 서서 사회를 보는 사람도 있어야해요

교사 - 사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

- 신랑 입장 , 신부 입장하는 사람 요
- 그런데요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고 꽃을 던지고 하면 신부는 어디로 가서 한복을 갈아입고 얼굴에 동그랗고 빨강 색 있죠 그것을 얼굴에 붙이고 신랑은 임금님과 같은 옷을 입고 어른 들게 절을 해요

교사 - 왜 절을 하니?

-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절을 해요
- 그러면 음식이 있어야 해요
- 술도 있어야 해요

· 의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신랑과 신부의 옷과 부모님의 옷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들의 의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신랑신부의 결혼 입장통로를 만들기 위해 칼(육사의 입장식을 연상)을 등장시켰다. 결혼 축하를 위한 꽃가루와 패백 상을 위한 음식모형들이 극놀이 환경의 소품으로 비치되었다.

· 공간사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패백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극놀이 공간의 협소함을 해결하고 싶어하였다.

· 1차 극놀이보다 2차 극놀이에서는 분장하는 수준이 섬세해졌다.

·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동안 유아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유아들은 극놀이에 역할에 맞는 옷과 음식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른이 필요하며, 주례가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절하는 방 필요(패백 이야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너무 좁음, 신랑 신부엄마 아빠 있을 곳을 정해야하는 등 공간적 문제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놀이할 때 누가 더 필요한지 찾아야한다고 말함으로써 좀 더 필요한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유아들은 사진 찍는 사람, 주례사,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육사결혼식행사를 생각하여 이야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역할 맡을 사람 정하기와 다양한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 재구성한 극놀이 비디오 감상

(1) 활동탄생배경

교사는 유아들이 2차 결혼식 놀이한 내용을 비디오에 담아두었다가 유아들에게 극놀이 내용을 감상하자는 제안을 한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유아들이 2차 결혼식 놀이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잎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이 놀이한 내용을 비디오 담아두었다가 비디오 감상활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 비디오를 감상하는 동안 유아들의 반응을 살피고 극놀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평가 시간을 갖는다.

· 비디오에 담긴 극놀이 내용을 이야기 식으로 들려준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비디오 감상하기가 끝난 후 유아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유아: 선생님 우리 결혼식 하는 것 다시 하고 싶어요 사회자도 가짜고

유아: 맞아요 그때 사회자가 없어서 주례자가 사회도하고 주례도 했잖아요

유아: 그리고요 중간에 사진사가 사진도 찍어야하는데 사진도 안 찍고.....

민지: 비디오를 보니까 드레스도 안 예뻐요 솔지 옷 예쁜 것 입고하고 싶어요

명철: 그런데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도 끼워 줘야 돼요

민지: 우리 집에 커플반지 있는데 2개 있어요

소정: 그러면 신랑 신부가 한 개씩 나누어 끼면 돼요

성하: 신부를 안고 옆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 옆는 것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소정: 그래도 해야 돼 결혼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명철: 결혼할 때 칼을 들고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칼이 없어서 옷걸이로 칼이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칼도 준비를 해야 돼요

재임: 어른들한테 절을 할 때 신부가 한복을 입고 신랑도 한복을 입고 신부는 손에다 하얀 수건도 올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예요

주현: 결혼식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그런데요 신부 얼굴에 빨간 것 동그란 것도 붙여야 해요. 맞아요 신부도 머리를 이렇게 [비녀] 이렇게 할머니들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해요 사진도 한번 밖에 안 찍었는데 사진은 신랑 신부를 먼저 찍고, 부모님과 찍고, 신랑 신부 친구들과 사진도 찍어야 되요. 신부를 화장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요.

교사: 그러면 화장은 누가 하면 될까 ?

명철: 내가 할거예요

현지: 나도 하고 싶어요

소정: 그러면 같이 하면 되요

- 그런데요 극 놀이 방이 좁아서 우리 친구들이 다 못 들어가요

- 맞아요 다른 곳에서 극 놀이를 해요

교사: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니?

- 식당에서요

- 아니야 그곳도 좀 좁아 그곳보다 밖에 놀이터 옆에서 해요

- 맞아요 신랑 신부에 박수를 치는 사람 있고 의자도 몇 개씩 놓아 둘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요

교사: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의준: 의자는 우리 교실 있는 의자를 가지고 가면 되요

성하: 그런데 박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요

도연: 선생님 나 혼자 땀땀 피아노 소리를 내니까 너무 힘들어요

교사: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규리: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 되잖아요

성하: 안 돼 피아노가 얼마나 무거운데 어떻게 밖으로 가지고 가냐

명철: 아 ~ 알았다 선생님 피아노를 치면서 녹음을 해서 녹음기를 켜면 안 되요

유아들: 우와 ~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공간적 협소함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공간적 협소함에 대해서는 지난 번 극놀이 감상하기 활동에서도 유아들 사이에서 거론된바가 있지만 공간적 협소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극놀이 한 것을 다시 지적하는 것이었다.

- 보다 나은 음향효과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아노 소리를 녹음해서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다.

- 더 많은 유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유아들은 결혼식장에 하객이 많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실제 결혼식에서는 많은 하객이 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 놀이의 역할이 첨가되기를 원하였다.

이는 분장사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인데 이 역시 지난번 극놀이 감상에서 제안된 안건이었지만 실행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제안한 것이었다.

5 재구성한 극놀이 2

(1) 활동탄생배경

유아들은 극놀이 장소의 협소함을 호소하면서 바깥으로 나가 넓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 놀이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아들의 그러한 제안에 따라 어린이집 마당에서 결혼식놀이가 이루어졌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의자, 카메라, 음식, 상, 꽃가루,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한다.
- 필요한 소품을 바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 비디오 촬영한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유아들은 의자를 마당으로 가져 나와 줄을 맞춰 앉는다. 마치 결혼식장을 연상하게 한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분장을 한다.

사회자: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신랑, 신부: 네 네

주례: 뽀뽀하세요

신랑신부: 입술 자국 묻었어

주례: 반지 끼워주세요

사진은 요?

소녀: 꽃가루를 뿌린다.

신랑신부: 꽃가루를 맞으면 행진한다.

사진사:(사진 촬영하는 흉내를 낸다.) 꽃가루를 사람들에게도 뿌려주세요

단체 사진 찍어요.

다음은 가족사진 찍어요.

신랑신부 친구들 들어오세요.

사회: 모두들 폐백실로 가세요

유아들: 환경구성을 한다. 음식을 차리고 나른다.

남아: 여기 잠깐 이거 놔두고, 컵 많이 있어 차려

유아: 고기 여기 놓고 먹어야지

유아들: 폐백 준비를 위해 연지 끈지를 만들어 신부에게 붙인다.

유아들: 너무 웃기다.

신부: 아야 아야

남아: 이 정도면 됐어

유아: 신부의 두 팔을 모아서 그 위에 수건을 걸어준다.

(폐백장면이 거의 갖추어졌다.)

여아: 술은 누가 먹어요

남아: 할머니도 먹어야지

유아: 지금 먹는 시간이다. 이리와

유아들 : 음식 먹는 시늉을 낸다.

사진사: 제일 크고 비싼 건 비싼 고기야

‘찰깹’

(한쪽에선 유아들이 계속해서 음식의 그림을 그린다.)



유아들이 재구성한 결혼식놀이의 장면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공간적 협소함을 해결하고자 극놀이를 어린이집 마당에서 하고자 결정하였다.



극놀이를 재구성하기 위해 유아들이 소품을 옮기는 장면

· 분장사가 놀이 역할에 등장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여자 미용사가 신부를 분장해주고 남자 미용사가 신랑을 분장해 주는 모습이다.



6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1) 활동탄생배경

전 활동에서 유아들이 극 놀이 방에서 놀이한 내용을 비디오 촬영해두었다가 유아들과 함께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에 대한 제목, 저자, 출판사, 제작 연도 등과 같은 책이 되기 위한 형식에 대해 토의한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스케치북, 크레파스, 필기도구

(3) 교사의 역할

· 그림이야기책 형식 갖추기(이야기 제목, 출판사, 저자 약력에 관한 내용 및 쓰는 방법)를 위한 토의를 유도한다.

- 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들을 돕는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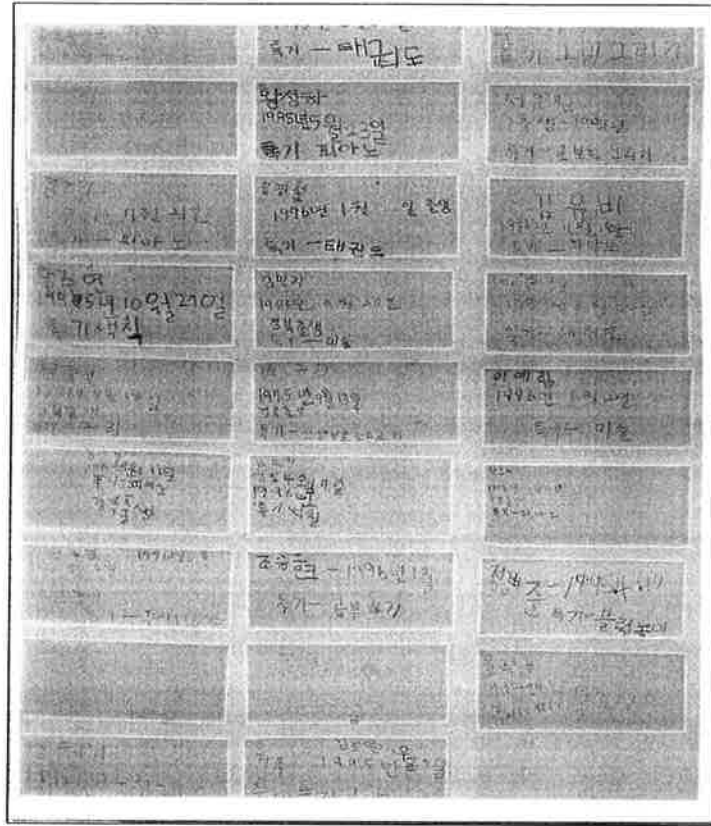
· 그림이야기책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눈다.

교사가 극 놀이를 한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이면 좋을까?라고 물었을 때 유아들은 지혜 반 결혼 이야기, 민지와 성하의 결혼 이야기, 극 놀이 방 이야기로 나왔다. 그 중 최종적으로 「지혜 반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 지은이를 누구로 할까?라는 질문에 지은이는 극 놀이를 했던 친구들이라고 답하였다. 그리하여 지혜반 모든 유아들이 지은이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따라서 그림이야기책에 지은이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지 의논하였다. 그결과 생일과 자기가 만든 책을 소개하자고 하였다.

또한 출판사를 결정할 때 유아들은 솔지 출판사라고 하기를 원했다. 뿐만아니라 출판 날짜를 써야한다고 하여 “ 2001년 9월 0일”로 결정하였다.

0일이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반응으로 느껴진 교사가 왜 “0” 일이니?라고 유아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유아들은 “언제 극 놀이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즉 극놀이를 많이 했는데 언제 극놀이한 것을 기록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이상으로 교사가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제목, 저자, 출판사 등과 같은 동화책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이야기를 나눌 때 유아들은 이야기책의 표지, 그림의 의미, 제목, 저자, 속표지에 저자의 약력소개, 출판사, 책의 수상 여부에 관한 표지, 출판사의 마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유아들이 만든 저자소개-

· 극 놀이 내용 중에서 각자 그리고 싶은 장면 그림으로 그린다.

그림이야기책의 표지와 이야기 각각의 장면의 그림을 누가 그릴지에 관한 역할을 정한다. 또한 교사는 이야기의 장면을 나눈다. 교사가 들려준 극 놀이 이야기의 각각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그림이야기책이 되도록 한다. 장면은 전체 유아들이 나누어 갖는다. 어떤 유아들은 전날 토의한 책의 표지, 형식에 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림책이 완성되면 교사는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유아들의 반응을 살핀다.

· 그림이야기책의 표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표지를 만든다.

그림이야기책의 표지는 유아들이 그린 그림이야기의 내용 중에서 앞장과 뒷장 2장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선정된 두 장은 다음과 같으며 이 내용을 그린 유아들이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다.



-앞표지-



-뒷표지-

· 이야기의 순서를 정하여 그림이야기책 페이지를 결정한다.

유아들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모두 모아서 이야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림이야기책의 페이지를 결정한다.

순서를 쉽게 정하기 위해 교사는 이야기의 처음 중간 나중의 3수준을 사용한다. 각자의 유아들이 그린 그림을 모든 유아들과 함께 보면서 이 내용이 처음에 해당하는지 중간에 해당하는지나중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본다. 그런후 처음의 집단에 모인 모든 그림의 순서를 다시 1,2,3의 순서를 결정한다.

중간에 해당하는 집단의 순서는 처음집단의 맨 마지막 수를 이어받는다. 중간집단의 순서가 다 결정되고 나면 나중 집단의 순서도 같은 방

식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림이야기책의 모든 페이지가 결정된다.

· 유아들이 꾸민 각각의 장면을 묶어 그림이야기책을 완성한다.

교사가 동화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 준 후 유아들의 책에 대한 반응을 살핀다. 그림책의 내용에 만족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극 놀이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를 1편, 2편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 그림책이 완성되면 도서 영역의 책꽂이에 상업용 도서와 함께 꽂아두고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제시해준다.

유아들의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하여 만든 그림이야기책의 그림과 본문을 한 장면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랑 쪽에는 엄마, 아빠가 앉아 있고 신부 쪽에는 신부 엄마만 앉아 있어요. 신부 아빠는 신부를 신랑 있는 쪽까지 데리다 주었어요. 구경꾼들은 “축하해요”라고 말하면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사진사 아저씨는 신부를 데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찍어주고 또 신랑과 신부의 사진도 많이 많이 찍었어요.



2. 신랑 신부는 주례사 왕주현이에게 걸어가고 있고 구경꾼들은 박수를 치고 있어요. 피아노 앞에는 사회자(권중석)이가 서 있어요. 중석이가 왕주현이를 보고 "결혼식 빨리 하자"라고 했어요.



3. 하늘에는 햇님도 있고 구름도 있고 신랑 신부는 주례사 옆에서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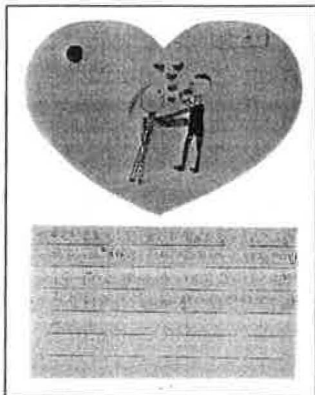
4. 신랑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하늘에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구름도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시끄러웠어요.



5.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녹음기에서 “땀 땀땀”하고 음악이 나와요. 주례사는 “잘 사슈”라고 말해요. 소정이가 신랑에게 “꽃 있어야 해”라고 말하며 신랑에게 꽃을 갖다 주었어요.



6. 신부와 신랑이 주례사 앞에 섰는데 왕주현주례사가 신랑 신부에게 말했어요.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슈”라고 말하니까 구경꾼들이 “하하하”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주례사가 또 “아들 딸 잘 낳을 수 있어요?”라고도 했어요.



7. 민지 언니 신부가 성하 오빠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신랑이 “뽀뽀하지마 뽀뽀하면 얼굴에 립스틱 묻어”라고 말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민지 언니가 성하 오빠 잡아당겨서 뽀뽀를 했어요.



8. 주례사가 “결혼 반지를 끼워 주세요”라고 말하니 신랑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신부에게 끼워 주었어요.



9. 신랑 신부는 주례사가 “퇴장”하고 말하니 손목을 잡고 걸어나갔어요. 걸어가는데 “땀 땀 땀”하고 녹음기에서 피아노 음악이 나왔어요.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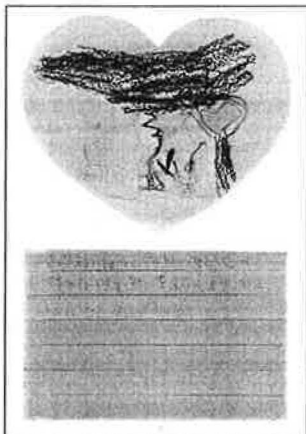
10. 신랑과 신부가 걸어나오는데 유빈이와 소희가 신랑 신부에게 꽃가루를 뿌려주었어요. 유빈이와 소희가 신부에게만 꽃가루를 뿌려주니까 신랑 성하가 유빈이와 소희를 보면서 “야, 나도 꽃가루를 뿌려줘”라고 그랬어요.



11. 결혼식을 하려고 극놀이 방에서 화장을 하는데 민지가 현지의 허리를 꼭 붙잡고 화장을 했어요. 민지가 부끄러워 웃었어요. 내가 "야 가만히 있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지는 자꾸자꾸 웃었어요. 그래서 립스틱을 잘못 발랐어요. 그래서 장소정이가 휴지를 가져와 잘못 바른 립스틱을 닦아 주었어요. 재임이에게도 립스틱을 발라주었어요. 옆에서 윤란경이가 "나도 립스틱 발라줘"라고 했어요. 명철이는 남자 친구들에게 물을 뿌려서 리를 멋있게 해 주었어요.



12. 신랑이 입장해서 걸어가는데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13. 신랑과 신부가 지나 갈 수 있게 병준이와 민규가 칼을 들고 있어요. 하늘은 검은 구름이 있어요.



14. 신랑이 입장하려고 서 있는데 강인이 오빠가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 문을 열어라”하면서 자꾸자꾸 왔다갔다했어요.



15. 신랑과 신부가 서 있고 신부 민지 언니가 부케를 던졌는데 유빈이가 부케를 받았는데 그림은 내가(소희) 받았다고 그렸어요. 부케를 내가 너무 받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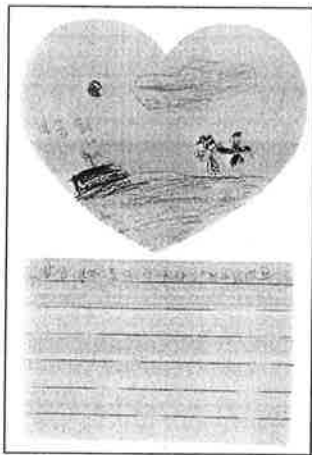
16. 신랑은 윙크를 하고 신부는 부케를 던졌어요. 유빈이가 부케를 받았어요. 소희가 부케를 받고 싶어 “잉잉잉” 울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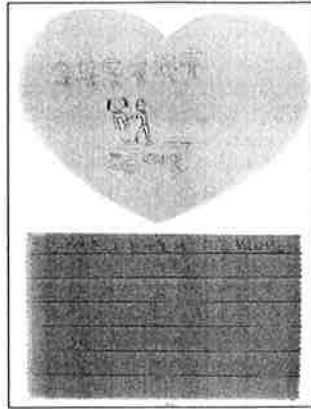
17. 병준이와 민규가 칼을 들고 있는데 사회자가 “신랑입장”하고 말하니까 신랑이 입장을 했어요. 신부 엄마와 신랑 아빠는 의자에 앉아있어요. 하늘에는 용처럼 구름이 있고 햇빛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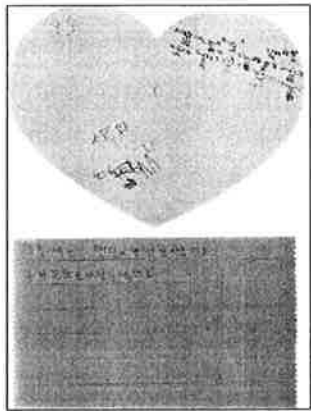
18.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 주례사는 사진을 찍어요. 사진사가 “하나, 둘, 셋”라고 하면서 신랑, 신부, 주례사는 “김치”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요.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데 불빛이 났어요. 란경이와 의준이는 사진을 찍는 것을 구경을 했어요.



19. 신랑 신부가 돌이 서서 사진 찍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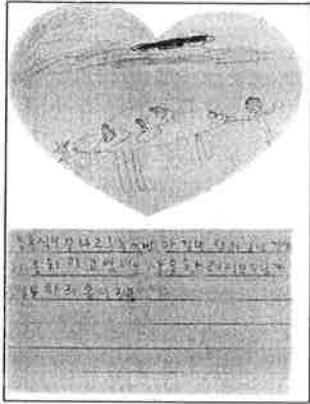
20. 신랑과 신부와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요.



21. 하늘에는 햇님이 반짝 반짝거리고 구경꾼들은 사진을 찍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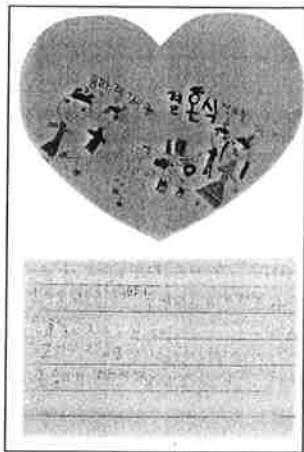
22. 결혼식장에는 신랑 신부 구경꾼들은 다 퇴장을 하고 없어요.



23. 결혼식이 끝나고 극놀이방 안 김명철과 김난경이는 상을 차리고 있어요. 상을 차려서 부모님께 절을 하러 음식 준비를 해요.



24. 신부 아빠 신부 엄마는 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고 빨간 동그라미 스티커도 붙이고 절을 하려고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상에 음식을 다 차리지 않았어요.



25. 신랑신부가 신부엄마, 아빠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신랑 신부에게 돈을 주려고 돈을 들고 있어요, 신랑신부는 절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잘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26. 결혼식이 끝나고 구경꾼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맛있는 것 많이 많이 더 주세요”하고 말했어요.



27. 결혼식이 끝나자 사람들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머리를 가져온다고 말했어요. 식당에는 의자가 있어요. 식당 주인은 배가 고프는 사람인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배고픈 사람이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알았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주문을 받았어요. 신랑신부와 모두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7 창작한 그림이야기책 공유하기

(1) 활동탄생배경

유아들이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은 도서 영역에 있는 책꽂이에 다른 동화책과 함께 비치해둔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책을 꽂을 수 있는 공간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이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유아들이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을 도서영역에 꽂아두도록 안내한다.
- 유아들이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을 활용하여 추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유아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을 도서 영역에 꽂아놓고 그림이야기책을 서로 읽어주거나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② 추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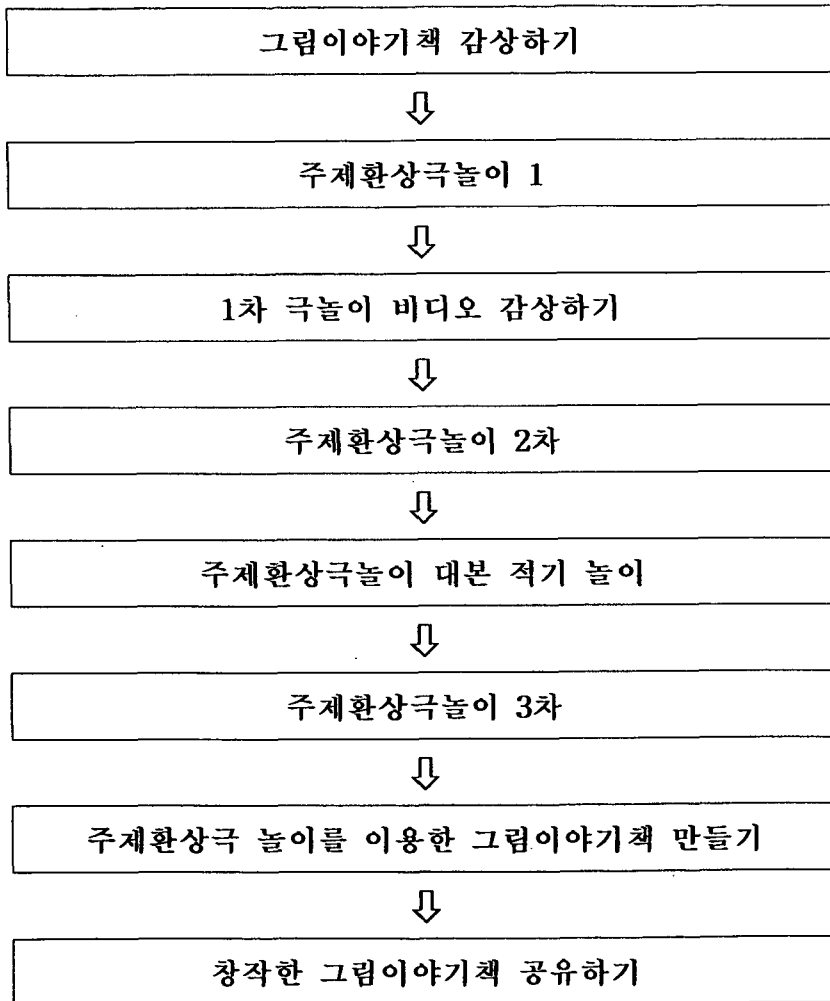
- 유아가 만든 그림이야기책과 기존 그림이야기책 비교활동
- 극놀이 비디오 대화내용과 유아들이 만든 그림이야기책의 본문 내용 비교활동 (구어와 문어를 비교하는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유아들이 창작한 「지혜반 결혼식 이야기」 그림이야기책이 다른 도서와 함께 도서 영역에 꽂혀 있는 모습>

3. 주제환상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주제환상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림이야기책 감상하기

(1) 활동탄생배경

교사는 한 달 동안 유아들이 도서영역에서 그림이야기책을 읽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살폈다. 도서 영역에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여 읽는 그림이야기책 중 많은 유아들에게서 극놀이와 관련있는 반응이 잘 나타난 그림이야기책이 있었다. 이러한 유아들의 반응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 「지각대장 존」, 「마녀워녕」의 그림이야기책을 감상하는 동안에 발생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극놀이를 돕는 그림이야기책

(3) 교사의 역할

유아들의 그림이야기책에 대한 반응을 관찰한다.

유아들에게 반응이 잘 나타나는 그림이야기책을 선정하여 토의를 유도한다.

(3) 전개활동

① 유아들의 활동

「괴물들이 사는 나라」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맥스가 괴물나라의 왕이 되어 '지금부터 괴물소동을 벌이자'라고 외치는 장면과 갖가지의 괴물들이 등장하여 함께 신나게 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유아들은 괴물처럼 풀쩍 펄쩍 뛰며 신나 하면서 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지각대장 존」

존이 지각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혼내는 부분과 마지막 장면에서

선생님이 혼을 내는 부분을 손짓 발짓으로 펄쩍뛰면서 표현하거나 음성을 사용하였다. 특히 유아들은 「지각대장 존」의 그림이야기책을 들고 와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지각대장 존」 그림이야기책을 다시 한번 더 읽어 주었다.

교사와 유아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 선생님 「지각대장 존」 한번만 더 읽어주세요.

교사: 애들아 병준이가 「지각대장 존」 다시 한번 더 들고 싶어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니?

유아들- 읽어 주세요.

교사 - 왜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니?

유아들-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교사: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야기란 무엇이니?

유아1: 이야기는 재미있고 내용이 길어요.

유아2: 동시는 이야기가 없고 내용이 짧아요.

유아3: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유아4: 이야기에는 신랑이나 동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재미가 있어요.

(이 당시 유아들은 결혼식과 관련하여 자연발생적 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활동을 완성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타난 것 같다.)

② 유아들의 행동 변화

· 유아들은 그림이야기책 내용 중 쉬운 이야기, 친숙한 이야기, 재미 있는 이야기 등에 대해 반응을 잘 나타내었다.

· 흥미 있는 그림이야기책은 거듭 읽기를 원하였으며 그런 이야기의 내용 중 흥미 있는 인물을 동일시하고, 정서를 감정이입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과 정서를 표출하였다.

2) 주제 환상극놀이 1차

(1) 활동 탄생배경

유아들이 그림이야기책을 역할놀이를 연상시키고자 하는 반응이 「지각대장존」 그림이야기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지각대장 존」 그림이야기책을 읽은 후 극놀이 방에서 주제 환상극놀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그림이야기책 「지각대장 존」

1.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2. 한참을 가는데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불쑥 나와 책가방을 덩석 물었습니다. 존은 책가방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지만 악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3. 존은 할 수 없이 장갑 하나를 휘 던졌습니다. 악어는 책가방을 놓고 장갑을 물었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악어 때문에 늦고 말았지요.
4.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 지각이로군 그리고 장갑 하나는 어디다 두고 왔지? 학교에 오는데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나와서 제 책가

방을 물었어요. 제가 장갑을 던져주니까 그제서야 놓아주었어요. 장갑은 악어가 먹어버렸고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 이 동네 하수구엔 악어 따위는 살지 않아 넌 나중에 학교에 남아서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는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를 300번 써야한다. 알겠지?”

5. 그래서 존은 늦게 까지 학교에 남아서 300번 썼습니다.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는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6. 그런데 덩불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오더니 바지를 물어뜯었습니다.

7. 존은 간신히 나무 위로 기어올라갔습니다. 존은 사자가 심드렁해져서 돌아갈 때까지 나무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자 때문에 지각하고 말았지요.

8. “넌 또 지각이야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 게다가 바지까지 찢었군” “학교에 오는데 덩불에서 사자가 튀어나와 제 바지를 물었어요 나무위로 올라가 사자가 갈 때까지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이 동네 덩불에는 사자 따위는 살지 않아 저 구석에 돌아서서 큰 소리로 400번 외쳐라.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알았냐?”

9. 존은 구석에 돌아서서 400번 외쳤습니다.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10.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존을 덮쳤습니다.

11. 존은 파도가 가라앉고 물이 빠질 때까지 난간을 꼭 붙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

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파도 때문에 또 늦고 말았지요.

12. “그리고 넌 또 지각이야,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 계다가 옷까지 흠뻑 젖었군!” “학교에 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난간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내 살다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다. 이 동네 강에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사람을 덮치다니...말도 안 되는 소리 간혀 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이 안에서 꼼짝 말고 이렇게 500번 써라. ‘다시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고 지각을 했다간 이 회초리로 때려 줄테다. 알겠냐?”

13. 그래서 존은 교실 안에 갇혀서 이렇게 500번 썼습니다. “다시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14. 가는 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은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었지요.

15.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 난 지금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 있다. 빨리 날 좀 내려다오.” “이 동네 천장에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선생님.”

16. 다음 날에도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이 진행하는 주제환상극놀이를 관찰한다.

· 유아들의 모든 극놀이 장면을 비디오 촬영한다.

(4) 전개활동

① 유아들의 활동

유아: 하수도 구멍을 만들어야지

유아: 그래 하수도 구멍에서 악어가 나온다니까 적목으로 하수도를 만들자.

유아: 그런데 존 여자친구도 있어야지

유아: 야 여기에다 나무도 만들자

(유아들은 협동적으로 고무 블럭으로 5단을 쌓아 나무를 만들고 긴 블럭으로 다리와 집을 만든다.)

“야 빨리 해”

과도: 야 과도는 이렇게 하면 될 것같아.

(두 팔을 앞으로 펴서 날개짓을 한다.)

존: 가방을 맨다. 선생님은 검정 옷을 입고 회초리를 든다.

선생님: (존을 가리키며) 야 니가 결석했다고 이렇게 하나?

하면서 폴짝 뛰는 시늉을 낸다.

유아들: 모두 선생님처럼 폴짝 뛰는 시늉을 내어본다.

유아들: 책상은 이쪽으로 놓아야지

유아: 큐

존: 존이 나온다.

선생님: 존 장갑 한 쪽은 어떻게 했지?

존: 악어가요? 아니야, 악어가(말을 못함)

선생님: 어떻게 말을 이상하게 하나? 어떻게...(주걱을 들고 책상을 친다).

300번을 써라

존: 쓰는 시늉을 한다.

친구들: (존을 보며) 이제 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사자: 으헹

친구들: 야 올라가(존이 블록위로 올라간다.)

존: 블록 위로 올라간다.

친구들: 야 내려와

사자: 사라진다.

선생님: 야 또 지각이군 저 구석에 서서 거짓말 안 하겠다고 400번을 외쳐라

존: 사자가 나타난다는 거짓말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친구들: 빨리 학교가

존: 학교로 간다. 다리난간을 잡고 있다.

선생님: 선생님 또 늦었구나

존: 갈려는데요 파도가....

존: 털북숭이 고릴라 어디 있어?

털북숭이 고릴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난간을 붙들고 있는 선생님을 털북숭이 고릴라가 붙들고 있다.)

선생님: 살려 줘 오....살려줘(싱글빙글 웃으면서 큰 소리를 지른다.)

오 존 살려줘!!

존: (웃는다) 이제 끝났다.

유아들: 야! 재미있지 우리 또 다르게 하자. 1탄 2탄.....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역할을 맡은 유아가 대사나 동작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극놀

이에 참여한 다른 유아들이 알려준다.

- 많은 유아들은 선생님의 동작에 재미를 느낀다.
- 블럭, 책상을 사용하여 나무, 집, 다리, 학교를 만든다.
- 원저에 비해 에피소드가 짧고 유아들이 사용하는 문장이 짧다.
- 원저의 문장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유아들은 서로서로 극놀이를 해보고 싶어했다. 유아들은 배역이 겹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고 싶은 배역을 정하였다.

3) 1차 주제 환상극놀이 비디오 감상하기

(1) 활동탄생배경

유아들이 처음으로 수행한 1차 주제 환상극놀이 내용을 교사는 비디오 촬영을 해 두었다. 그리하여 교사는 유아들에게 비디오 감상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1차 주제 환상극놀이를 한 내용이 담긴 비디오 테잎

(3) 교사의 역할

- 비디오 감상 후 유아들이 수행한 극놀이에 대해 토의 시간을 갖는다.
- 유아들의 반응을 살핀다.

(4) 전개활동

① 유아들의 활동

비디오 감상하기를 하는 동안 나타난 유아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애들아 「지각대장 존」 그림이야기책을 친구들이 놀이한 것을 선생님이 비디오로 찍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자.”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 야 저것 좀 봐 웃기지 내가 악어를 연극했다면 나는 계속 존을 물어 뜯었을텐데..... 으악, 으악.....(음성으로 흉내를 낸다)

유아: 야 존이 학교에 혼자 가면 심심하겠다.

유아: 친구가 있으면 안 심심 할텐데.....

존의 역할을 한 유아: 맞아 친구랑 같이 가야지.

유아: 그런데 왜 존은 학교에 가면서 엄마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왜 안 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 우리도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지, 응

유아: 나는 사자다! 으악.....

유아: 나는 털복숭이가 재미있겠지.

유아: 선생님 어제 극놀이 한 친구들만 또 해야 되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유아: 그래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교사: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볼래?

유아들: 저도 요, 저도 요.....

교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

유아: 야 우리 가위. 바위. 보 해서 결정을 하자.

유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주제환상극놀이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들은 만약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관한 생각들을 교류하였다.

- 유아들은 비디오를 보면서 놀이자와 동일시하여 역할에 적합한 음성의 변화와 소리를 표출하였다.

- 주제환상극놀이에 참여한 유아들은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유심히 관찰하였다.

- 주제환상극놀이에 참여하지 못했던 유아들은 놀이를 해보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였다.

4) 주제환상극놀이 2차

(1) 활동탄생배경

전날 비디오 감상하기 활동은 유아들에게 주제환상극놀이에 대한 많은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유아들은 극놀이 영역에 몰리기 시작했고 한꺼번에 참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먼저 해야할 순서와 나중 해야할 순서를 결정하였다. 유아들은 서로서로 의논을 하여 배역을 정하여 주제환상극놀이를 하였다. 2차 주제환상극놀이에는 1차 주제환상극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아들과 참여한 유아가 동시에 있었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역할에 적합한 의상과 소품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의 극놀이를 관찰한다.
- 유아들이 소품이나 도구를 필요로 할 때 마련해준다.

· 비디오를 촬영한다.

(4) 전개활동

① 유아들의 활동

유아: 큐 빨리 찍어주세요

유아들: 분장을 한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흉내내어 본다.

존: 배낭을 맨다.

파도: (털북숭이를 보며)야 털북숭이 난 파도야 버버벅(아랫부분이 문
어발처럼 찢어진 치마를 입고 흔들거린다)

여자친구와 존: 야 털북숭이야, 존아 가자

존과 여자친구: 손을 잡고 걷는다.

존: 내가 존이야 난 털북숭이야

파도: 다리가 없다 다리를 만들자 야, 난 파도다

존과 여자친구: 선생님에게 빨리 300번 쓰라고 해야지

여자친구와 존: 300번을 쓴다. 그리고 바지와 치마를 찢지 않겠습니
다.

엄마: 그런데 악어가 깨물어서 내 엉덩이가 찢어졌어요

엄마: 존을 때린다. 사자 빨리 나와! 랄 랄 랄

사자: 여기로 와

유아들: 왜 이렇게 하니? 빨리 해야지

존과 여자친구: 악어한테 아니 커다란 사자가요 있어서 나무에 올라
가 있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사자가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선생님: 구석에 가서 400번을 외쳐라

존과 여자친구: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존과 여자친구: 이제 가자(둘은 손잡고 간다). 파도 어디 있어?

(블록 위를 지날 때)

파도: 파도가 덮치고 난간을 잡는다. 랄 랄 랄

존과 여자친구: 학교로 간다.

선생님: 오늘 바지 왜 이렇게 젖었어?

존과 여자친구: 우리가 가는데 큰 파도가 덮쳐서 옷이 다 젖었어요

파도가 다 갈 때까지 잡고 있었어요(난간을 잡는다는 뜻)

선생님: 아유, 엉덩이를 맞아야지

고무로 만든 블록으로 엉덩이를 치는 흉내를 낸다.

존과 여자친구: (선생님을 보고) 아니, 500번을 쓰라고 해야지!

여자친구: 악어 사자 파도 모두 나와! 사자 빨리 나와

털북숭이잖아

악어사자파도: 모두 존과 여자친구를 물어뜯는다.

존과 여자친구: 선생님 저 왔어요

선생님:??

존: 장난을 친다

존 여자친구: 옆드려서 운다.

선생님: 존 나 좀 살려줘 영영(웃는다.) 영영 운다.

고릴라: 선생님을 붙들고 있다.

존: 선생님을 구해준다.

선생님: 시계 어디 있니?

존: 시계 여기 있슈?

여자친구: 시간이 자꾸자꾸 지나가요

이제 12시야 뻘썩

<놀이가 한번 더 전개된다.>

유아들: 다른 유아들이 몇 명 들어오고 역할에 맞는 분장을 다시 한다. 또 어떤 유아는 역할을 바꾼다.

엄마: 안 돼 존 여기 앉아야지. 그래, 이제 학교 갈 시간이다.

랄랄라 랄랄라

존: 가방을 매고 노래를 부른다. 시계를 만진다.

사자: 엉덩이에 사자 꼬리를 달고 기어다닌다.

엄마: 시간이 왜 이리가. 잘 해요

선생님: 저번 달에도 또 지각 또 지각 또 지각 300번을 써라

존 쓰는 시늉을 한다.

존: 랄랄랄....

선생님: 존 빨리 나무위로 올라가

존: 아 사자 사자다

선생님: 또 지각이야

여자친구: 덤불 속에서도 사자가 불쑥 나와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너 400번을 외쳐라 400번 안 쓸려면 주걱으로 한번씩 맞겠다.

여자친구: 다 썼어요

선생님: 안 했잖아(주걱으로 손바닥을 치는 시늉을 한다.)

선생님: 왜 흠뻑 젖었지

여자친구: 다리를 건너는데 파도가 나와서 내 치마를 덮어씌웠어.

그래서 난간을 꼭 붙잡았어요

여자친구: 나 존 아니야 존 여자친구야.

선생님: 다음 번에 또 지각하면 주걱으로 10대씩 100대씩 때릴거야

선생님: 털복숭이가 어디에 살아야지(털복숭이에게 붙잡힘)

야 존 구해 줘

존: 으랏샤 으랏샤(선생님은 존보고 구해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존은 턱북숭이 고릴라로부터 선생님을 떼어내는 시늉을 함)

선생님을 구했다.

선생님: 으으으으

존: 빨리 와! 학교 갈 시간이다. 시계를 만진다.

엄마: 오늘은 할머니 집에 가거라.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전날 비디오를 통해 주제환상극놀이에 대한 동기가 유발된 유아들이 한꺼번에 극놀이방에 몰려와 여러 번에 걸쳐 극놀이가 이루어졌다.

· 한 유아가 주제환상극놀이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생각해내고 이를 다른 유아들이 흉내를 내었다.

· 역할에 대한 분장의 재구성이 나타났다.

· 환경구성의 변화가 나타났다.

· 문장 사용과 놀이의 에피소드가 길어졌다.

· 원저에는 없는 새로운 언어, 역할이 첨가되었다.

1차 때의 배역은 존, 악어, 사자, 파도, 선생님, 털 북숭이였으나
2차 때의 배역은 존, 존 여자친구, 존 엄마, 악어, 사자, 파도, 선생님,
털 북숭이였다.

존의 여자친구 이외에도 다른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유아가 제안하였지만 그러면 배역이 너무 많아져서 극놀이가 힘들어진다고 하여 더 이상 배역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 때, “지난 번 결혼식 놀이에서 배역이 너무 많아 힘들었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한 유아가 있었다.

· 첨가된 배역과 상호교류를 하기 위한 적합한 언어를 구사할 필요

성을 말하였다. 예를 들면 존이 학교 갈 때 존의 엄마에게 “엄마 다녀 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가야한다고 하였다.

- 학교에 갈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좋겠다고 하였다.
- 의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1, 2차 놀이 시 의상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때 의상

존 - 가방만 메고
악어 - 초록색 띠
사자 - 꼬리 달기
파도 - 빨간색 찢어진 옷
선생님 - 없음
털복숭이 - 없음

2차 때 의상

존 - 가방만 메고
악어 - 초록색 띠
사자 - 꼬리만 달고
파도 - 빨간색 찢어진 옷
선생님 - 없음
털복숭이 - 없음

- 존이 하수구에서 악어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 시계를 등장시켜 존이 등교해야할 시간과 귀가해야할 시간에 대해 기준을 말하고 행동한다.
 - 결말에서 존의 엄마는 존에게 학교를 가지 않고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하는 대사가 첨가된다.
 - 유아들은 1,2차 놀이를 진행하는 동안 주제환상극놀이에 대해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였다.
-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교사와 유아들의 나눈 대화 내용이다.

민지 - 그런데요 선생님 어제 우리가 극놀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극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소정 - 왜 안 들리는데

민지 - 동생들도 왔다갔다하고 몰라 친구 말소리가 잘 안 들려.

도연 - 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큰소리로 말을 하면 되지.

성하 -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연극을 해도 되요.

교사 - 어떻게 극 놀이를 해 보고 싶은데?

성하 - 있지요, 악어가 여자친구 치마를 마구 물어뜯으면 야 치마 물어 뜯지마 속 팬티 다 보인단 말이야 잉잉잉.....

민지 - 그러면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여자친구가 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친구가 안고 나무로 올라가는 거야.....

성하 - 아구, 힘들겠다!

5)주제환상극놀이 대본 적기 놀이

(1) 활동탄생배경

2차 주제환상극놀이가 끝난 후 다음날 유아들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주제환상극놀이의 대본을 적어보고 싶어하였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주제환상극놀이를 직접 할 때는 재미있었는데 비디오를 통해 보니까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주제환상극놀이 대본을 적어봐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 번에 주제환상극놀이 할 때 더 재미있게 주제환상극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각종 필기도구, 각종 종이류, 가위, 풀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의 대본 적기 놀이를 관찰한다.
- 글을 적지 못하는 유아들을 돕는다.
- 비디오를 촬영한다.

(4) 전개활동

① 유아들의 활동

- 유아들이 적은 주제환상극놀이 대본을 적는다.

여자 유아 두 명이 한 사람은 연극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을 적었고 한 유아는 극놀이 대본을 주로 적었다. 그러나 적는 동안 서로 물어가며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적기활동을 하였다.

주제환상극놀이 대본적기 놀이에서는 연극하는 사람 이름 적기와 지각대장 존 극놀이 대본 적기 활동이 나타났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연극 하는 사람 이름 적기>

존-황성하 선생님-김명철 사자-재임이 악어-도연이 파도-예림이 털
봉숭이-의준이 여자친구-민지 존 엄마-란경

<지각대장 존 극놀이 대본 적기>

존 여자친구-아침에 존하고 여자 친구하고 학교에 갈려고 길을 나섰
다. 하수구에서 악어가 나와서 여자 친구 치마를 물어뜯었다.

여자친구: 내 치마 물어뜯지마

팬티 물어뜯지마 속 팬티 다 보인단 말이야 여자 친구가 이렇

게 말했어요

악어: 악어는 자꾸 자꾸 치마를 잡아 당겼다.

존: 악어를 보고 나 잡아보라 매롱

악어: 화를 내면서 자꾸 자꾸 따라왔다.

존: 악어를 자꾸자꾸 때린다.

선생님: 존하고 여자 친구 왜 이렇게 지각을 하지?

여자친구: 울면서 말을 했어요 학교에 오는데요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각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존하고 여자 친구와 선생님이 300번이나 써 가져와 알겠지?

집으로 돌아갔다.

존과 여자 친구가 학교에 갈려고 길을 나섰다.

(동굴 속에서 사자가 나온다)

사자: 존의 여자 친구에게 걸어왔다.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사자 보면서 기절을 했다.

존: 여자친구를 안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사자가 돌아간 후 존과 여자 친구는 학교에 갔다.

선생님: 존과 여자친구는 왜 또 지각을 했느냐?

여자친구: 학교 오는 길에 동굴 속에서 사자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자 친구가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존이 나를 안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자친구: 존이 나를 구해 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래 존 여자 친구를 구해 준 것은 참 잘했구나. 그런데 왜 지각을 했지? 400번 써와라 400번을 쓴 존은 집으로 돌아갔다.

존과 여자친구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왔다. 존과 여자친구가 다리 위를 지나는데 파도가 덩석 달려들었다.

여자친구: 존 살려줘, 난 수영할 줄 몰라 살려줘

존: 존이 헤엄을 쳐 여자 친구를 구해주어 내 손목과 발목을 꼭 붙잡아 존과 여자 친구가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 학교에 갔다.

선생님: 존 여자친구 왜 지각했지, 왜 옷은 흠뻑 젖었어?

여자친구: 학교에 오는 길에요 큰 파도가 덩석 밀려나왔어요

존: 그래서요 여자친구가요 '나 좀 살려줘'했어요 내가 여자 친구를 구해주었어요

선생님: 존 여자친구를 구해준 것은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지각한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500번을 써라. 존과 여자친구는 500번을 썼다.

또 다음날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선생님: 존 나 좀 살려줘 난 지금 털복숭이 고릴라에게 붙잡혔다.

존: 선생님 내가 구해 줄게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털복숭이와 싸워서 구해 주었어요

여자: 존 기다려 내가 너를 구해주마.

② 유아들의 행동의 변화

· 유아들은 자신이 모르는 글자와 내용에 대해 다른 유아에게 물어보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적기활동을 하였다.

· 언어적 의사소통내용을 문어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내용을 문어로 표현하였다.

6) 주제 환상극놀이 3차

(1) 활동탄생배경

유아들이 1차, 2차 때는 극놀이를 할 때 소품에 관심이 없었는데 3차 때는 소품이 없다고 교사에게 요청을 해왔다. 유아들이 원하는

것을 교사가 지원을 해주었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제목, 역할에 적합한 의상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의 극놀이를 관찰한다.
- 비디오를 촬영한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황성하: 저는 지각대장 존입니다. 존 황성하입니다.

그런데 뭐라 해야할지... 어, 지각을 너무 잘해요.

여자 : 저는 사자입니다.

친구들: “으형 으형” 해야지

선생님: 존이 지각을 잘해서 선생님이 혼내요 선생님입니다.

여자 유아: 저는 존의 여자친구입니다.

여자 유아: 저는 털복숭이 고릴라입니다.

악어: 저는 악어입니다. 꼬리를 흔들어요

(한 아이가 나와서 “큐”라고 외친다.)

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그래

존 여자친구를 붙잡고 학교에 가자 악어가 나타났어요 내 속바지가
다 보여요

존: 메롱 메롱 메롱 나 잡아보시롱 도망가야지 여자 친구 손잡고 학

교 가자.

선생님: 너희 왜 지각했냐? 너희 둘, 왜 지각했어? (언성을 높인다)

여자친구: 있죠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나와 물에 빠졌어요 헤엄을 못쳐서 그래서 존이

선생님: 하수구에는 그런 악어 따위는 살지 않아 저기 구석에 가서 300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해

존: 여자친구: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또다시 치마를 찢지 않겠습니다.

존과 여자친구: 존이 여자친구를 손에 잡고 학교를 간다. “랄랄라...”

(여자친구가 넘어진다. 존이 도와서 일어서 세워준다.)

친구들: 덩불이다. 빨리 가자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학교를 간다. 니 나와야지(너 할 차례야)

사자: 사자가 나온다. 으헝

선생님: 왜?

여자친구: (선생님을 보며) 착하다고 해야지

선생님: (여자친구의 머리를 톡톡치며) 착하다.

그런데 왜 지각을 또 했냐?

여자친구: 학교로 가는데 덩불에 사자가 나와서...

선생님: 왜 또 지각했냐?

여자친구와 존: 그런데요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또 따라와 가지고 나무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자가 갈 때까지 나무 위에 우리가 있었어요.

선생님: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400번을 써라

존 여자친구: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존 엄마: 지각하지 말고 바로 가

존 : 알겠어요. 알겠어요. 빨리 학교 가.

(여자친구의 손을 잡는다.) 빨리 여기 있어

존 엄마: 존 다녀와

존: 엄마 다녀오겠어요 알겠어요

존의 여자친구의 손을 끈다. 너는 이쪽으로. 오고 나는 이쪽으로

여자친구: “존! 아악!” (강에 빠진다.)

존: 존이 여자친구 손을 잡고 난간을 붙잡고 헤엄을 친다.

여자친구: 존의 다리를 쥐고 (갈갈거림)빨리 학교 가자

선생님 저 왔어요

선생님: 왜 늦었나?

존과 여자친구: 강에서요 큰 파도가 나와 가지고, 나 수영 못 치는데
존이 구해줬어요 그래서 존이 파도가 나갈 때까지 존이 난간을 꼭 잡고
있었고 나는 요 존의 다리를 꼭 잡고 있었어요 파도가 안 밀려와 가
지고 왔어요. 있죠? 또다시 파도가 연못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 연못에 파도가 없어요 저기 가서 500번이나 써라

존과 여자친구: 강에서 파도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야 빨리 와, 선생님, 탈 탈 탈 탈

선생님: 털복숭이. 빨리 꼬리 잡아 선생님, 아니 내 배 잡아 이렇
게...(털복숭이가 선생님을 어떻게 잡아야할지를 가르쳐 준다.) 아 존 나
좀 살려줘

존 여자친구: 선생님 천장에는 털복숭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존: 야 그냥 가자. 야 구해줘야지 털복숭이 고릴라 이제 끝이다. 왜
여자 친구가 구해줬는데 존 여자 친구 여기 왔지? 그럼 400번을 써 거

라. 너희들 거짓말할래

여자친구: 존 가자

엄마: 오늘은 지각 안 했어요

존: 선생님도 구해줬는데

존: 왜

여자친구: 우리 이제 사자 악어 모두 다 나오는 거해봐요.

악어, 사자, 파도, 털북숭이: 존과 여자친구에게 사자 악어 파도 털북
숭이가 한꺼번에 나와서 괴롭힌다.

존과 여자친구: 학교에 간다.

선생님: 너희 왜 또 늦었냐?

존과 여자친구: 악어, 파도, 사자, 털북숭이가 모두 나타났어요.

옛날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어요.

선생님: 우와!! 펄쩍펄쩍 뛰다.

악어, 파도, 사자, 털북숭이: 모두 선생님을 덮친다. 악악 우와 우와
하고 모두 한꺼번에 달려든다. 모두 나와 함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다.

존: 이제 그만 하자. 우리 이제 집으로 오세요

이제 끝이다. 끝



② 유아들의 행동변화

· 분장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 존은 가방을 메었다.
- 여자친구는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앞치마를 들었다.
- 악어는 초록색의 옷으로 갖추어 입고 악어 눈이 달려있는 머리 띠를 하였다.

· 사자는 사자의 느낌이 나는 털옷으로 챙겨 입고 꼬리 달기

- 파도는 처음에 비해 의상이 달랐다. 즉 바다 색을 표현하기 위해 파랑 색 한복치마를 입었다.

· 선생님은 남방을 입고 모자를 썼다.

- 털복숭이 는 털이 북실북실한 옷을 입었다.

·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였다.

존 엄마는 “학교에 지각을 하면 안돼.” “다음에 또 지각을 하면 혼난다.” “ 옷을 찢어오면 혼난다.”라는 언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다.

· 새로운 사건을 첨가시켰다.

마지막 장면에서 악어, 사자, 파도, 선생님 털복숭이 고릴라가 함께 존과 여자친구를 혼내 주었다.

· 선생님의 성격묘사를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선생님은 존에게 혼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해주었다. 그래서 존과 여자친구는 선생님을 구해 주었다.



7) 주제환상극놀이를 이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1) 활동탄생배경

지각대장 존 그림이야기책 감상 후 3차 주제환상극놀이가 이루어졌을 때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아들의 이야기는 원래의 그림이야기책의 본문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야기가 풍부해졌다. 특히 지각대장 존의 성격을 보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묘사하였고 존의 여자친구를 새롭게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존을 괴롭히는 악어, 사자, 파도, 털복숭이 고릴라의 인물을 한꺼번에 등장시키는 사건을 발생시켰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존과 여자친구는 이들을 한꺼번에 물리치는 용감한 인물로 변형시켰다. 특히 선생님은 야단치는 분에서 존을 칭찬하는 인물로 성격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선생님과 존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바꾸어 놓는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놀이가 창의적이고 풍부하다고 판단되어 교사는 3차 주제환상극놀이를 기초로 하는 그림이야기책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각종 필기도구, 스케치북, 물감, 붓, 크레파스

(3) 교사의 역할

유아들의 그림과 본문의 글을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아들이 창작한 그림이야기의 본문의 순서를 정하거나 책의 제목, 출판사를 정할 때 토의를 유도한다.

저자란을 구성하는 방법, 그림이야기책의 표지를 꾸미는 방법에 관해 토의를 유도한다.

(1)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 그림이야기책의 그림을 그린다.

유아들이 극놀이를 한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것을 그림으로 남겨본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선생님은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 해줄래?

유아들은 자신이 그린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꾸며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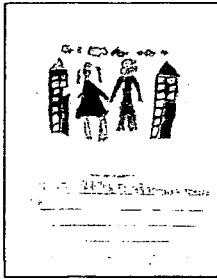
· 그림으로 그린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

그림을 다 그린 유아들은 그림의 이야기를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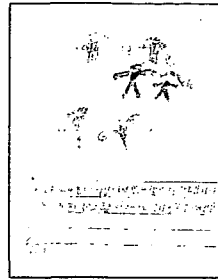
· 이야기 본문을 글로 적는다.

그림을 완성시킨 후 교사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이야기를 들려준 유아들은 그 내용을 글로 적어보도록 안내한다. 유아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 밑에 각 그림의 장면에 해당하는 글을 적는다. 글을 모르는 유아들은 자신이 그린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교사에게 들려주면 교사가 대신 글을 적어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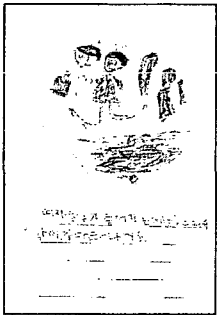
유아들이 지은 그림이야기책의 본문을 페이지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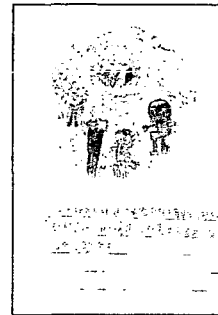
1. 존과 여자 친구가 들판 길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2. 존과 여자 친구는 집 앞에서 만나 같이 학교에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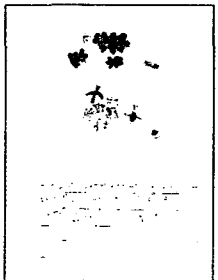
3. 존과 여자 친구가 걸어가는데 하수구에서 악어가 나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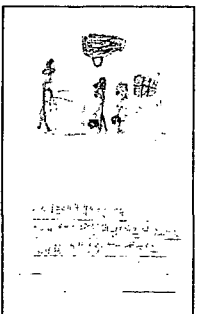
4. 하수구에서 악어가 나왔어요. 존이 악어를 보고 나 잡아봐라했는데 앞에서 여자 친구가 존 여기 장갑이 있어 그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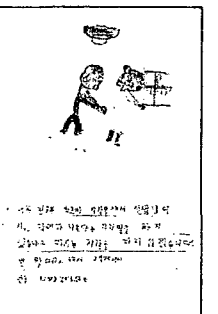
5. 존 여자 친구가 존에게 장갑을 주어서 존이 장갑을 던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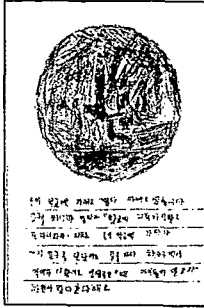
6. 악어가 존의 여자 친구 치마를 물어뜯었어요. "내치마 물어뜯지마 속바지 다 보인다 말이야" 하면서 '잉 잉 잉' 울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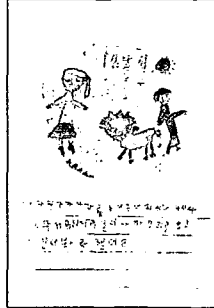
7. 학교에 갔는데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존과 여자 친구가 선생님께 혼나고 있어요. 선생님이 "왜 거짓말을 하나"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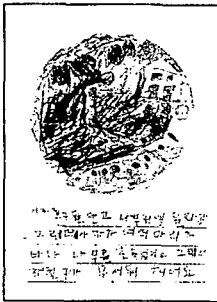
8. 존과 여자 친구는 학교에 지각을 해서 선생님이 "다시는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300번 말하라고 해서 구석에 서서 300번 외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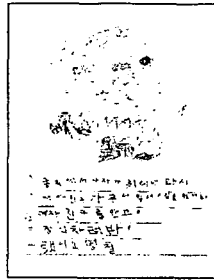
9. 존이 학교에 가려고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엄마가 “학교에 지각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그래요. 존이 학교에 가다가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하수구에서 악어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왜 아이들이 안 오지?” 하면서 왔다갔다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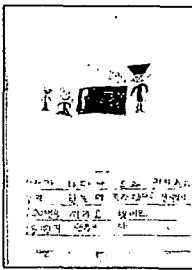
10. 여자 친구가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야 사자다’하고 무서워하니까 존이 사자 꼬리를 잡고 ‘나 잡아봐라’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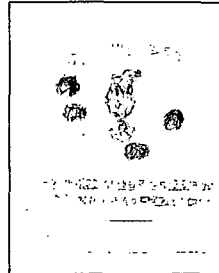
11. 존이 여자친구를 안고 나무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여러 마리가 나타나 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무서워했어요.



12. 덩굴 속에서 사자가 튀어나와서 존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기절을 했어요. 존이 여자친구를 안고 ‘야 정신차려봐!’ 그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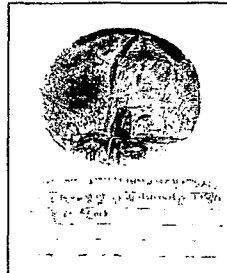
13. 사자가 나타나 존과 여자 친구는 늦게 왔는데 지각을 했다고 선생님이 400번 썩라 했어요. 옷을 찢지 않았습니니다.



14. 존과 여자 친구는 선생님께 야단만 맞지 않고 존이 여자친구를 구해 주었다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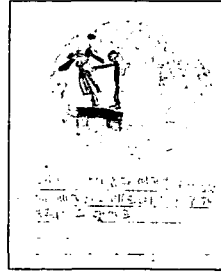
15. 사자 때문에 학교에 지각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16. 사자가 나타나 사자가 갈때까지 나무위에 있다가 학교에 늦게 갔는데 집에 오니까 캄캄한 밤이 되어 늦게 왔다고 엄마에게 혼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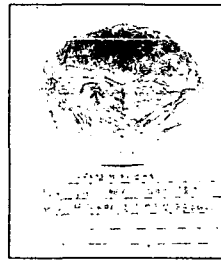
17. 존과 여자 친구가 만나서 학교에 같이 가고 있어요. 존 여자친구는 존을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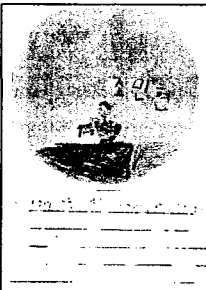
18. 파도가 나타나서 존과 여자친구가 점점 물에 빠지려고 해요. 여자 친구가 '살려줘'라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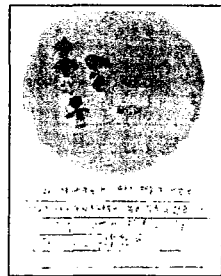
19. 파도 때문에 존 여자 친구가 난간을 붙잡고 '살려줘'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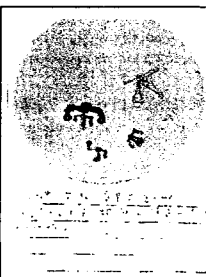
20. 존 여자 친구가 헤엄쳐가고 있어요. 여자 친구가 물에 빠져 입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는데 존이 여자친구를 구해주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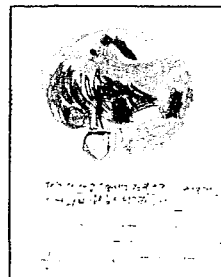
21. 여자친구가 물에 빠져서 존이 구해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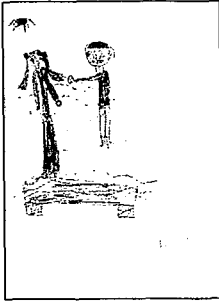
22. 존과 여자친구가 파도 때문에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화가 나서 " '다시는 옷을 젖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를 500번을 써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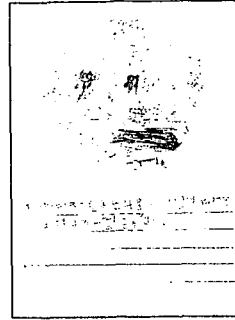
23. 털복숭이가 선생님을 붙잡고 있는데 존과 여자 친구 존의 엄마가 와서 힘을 합쳐서 선생님을 구해 주고 있어요.



24. 악어, 파도, 사자, 털복숭이가 존과 여자친구에 달려들어 괴롭히고 있어요.



25.



26. 존과 여자 친구
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 반지도 끼워
주고 결혼을 했어
요.

· 그림이야기책 순서 정하여 페이지를 결정한다.

유아들의 그림을 모두 모아 한 장씩 다시 내용을 각 유아가 들려주면 이 이야기는 처음 이야기에 해당하는지 중간에 해당하는지 끝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한다.

교사: 이 그림은 누가 그렸니?

유아: 저요

교사 무슨 내용이니?

유아 존이 하수구를 지나가는데 악어가 나오는 그림 이에요

교사: 그럼 이 그림은 이야기의 처음, 중간, 끝 중 어디에 속하니?

유아들: 중간

교사는 유아들이 분류한 그림들을 분류 판에 붙여둔다.

- 처음에 모여진 장면들의 순서를 다시 정한다.
- 중간에 분류된 그림 장면들의 순서를 정한다.

- 끝 부분에 분류된 그림장면들끼리 순서를 정한다.

처음에 분류된 그림들을 유아들이 정한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 그 뒤를 이어 중간에 분류된 그림들을 유아들이 정한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 다음으로 끝부분에 분류된 그림들을 유아들이 정한 순서대로 줄을 세워 유아들이 협동해서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의 모든 쪽수를 결정한다.

· 창작한 그림이야기책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한다.

그림이야기책의 그림 그리기와 글 적기 활동이 끝나고 모든 유아들이 그린 그림의 장면의 순서가 결정되고 나면 교사는 유아들이 협동하여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준다.

· 그림이야기책의 제목을 정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들은 후 책제목을 결정한다. 본 활동에서 그림이야기책 제목으로 ‘지각대장 존 제트’, ‘지혜 반이 만든 지각대장 존 이야기’ 두 가지가 나왔다. 이중 많은 유아들이 ‘지혜 반이 만든 지각대장 존 이야기’가 좋다고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제목을 선정한다.

· 그림이야기책의 표지를 만든다.

그림이야기책의 표지를 만들기 위해 어떤 좋은 생각이 있는지 유아들과 교사는 대화를 나눈다.

교사: 그림의 표지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유아: 우리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정해요

그림 누구의 그림을 정할까? 칠판에 순서대로 붙여놓은 그림들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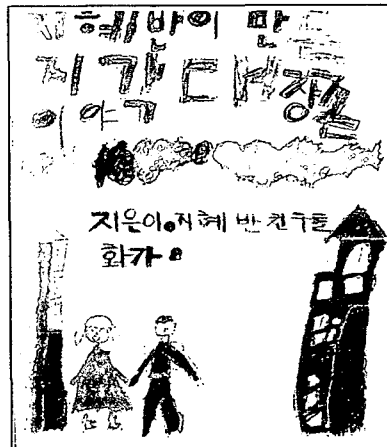
두 잘 살펴보고 정해보자.

교사는 각각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 그림이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

각각의 그림 모두 다 인원수를 체크하고 가장 손을 많이 든 두 장의 그림을 선택하여 앞의 표지와 뒤의 표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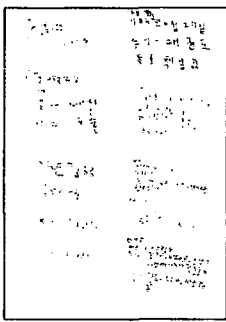
그러나 유아들은 표지를 꾸밀 때 그림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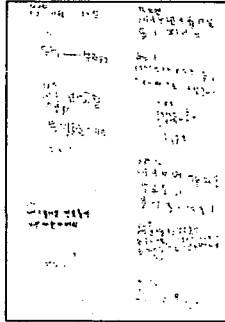
• 그림이야기책의 저자를 소개한다.

저자 소개란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왜냐하면 모든 책에는 저자 소개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에 관한 토의가 벌어졌다. 창작 그림이야기책은 지혜반 유아들이 모두 협동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소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저자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소개를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고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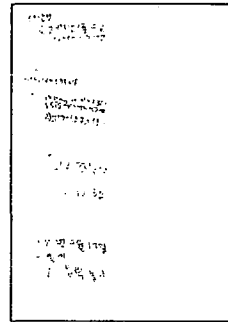
다.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자신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점이나 특기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언어활동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던 동시 짓기와 동화 만들기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자기 소개란에는 자신이 창작한 동화와 동시를 소개하는 유아들이 많았다.



<저자소개1>



<저자소개2>



<저자소개3>

위 그림의 내용 중 몇 명의 '저자가 자신의 약력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현지
 생일 1995년 12월 27일
 출생
 특기 낙서하기

김강인
 생일 1995년 7월 21일 경북
 특기 블록놀이, 극놀이 하기

박재임
 생일 1995년 10월 13일 경북출생

만든 책 「병아리」, 「비오는 날」, 「깜깜해도 무섭지 않아」,
「아기」, 「돌돌돌 먹지」
만든 시 「과일」 「지우개」 「바람부는 날」

· 그림이야기책의 출판사를 정한다.

상업적 그림이야기책에는 책을 만들어낸 출판사명이 적혀있다. 유아들이 공동으로 만든 책의 출판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생각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지혜반 출판사와 솔지 출판사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솔지 출판사로 합의점을 도출해내었다.

8) 창작한 그림이야기책 공유하기

(1) 활동탄생배경

유아들이 협동하여 만든 그림 이야기책은 도서영역의 책꽂이에 꽂아둔다. 다른 도서와 함께 자신들이 만든 도서가 꽂혀있음을 발견하고 즐거워한다. 유아들은 한 권의 동화책을 읽은 후 여러 번의 극 놀이를 통해 재구성해보고 또 이를 자신의 언어로 문자화시킨 그림이야기책을 보면서 활동 전반을 회상하면서 원 작가가 만든 동화와 자신이 만든 동화의 차이점을 구별해내기도 한다.

(2) 자료 및 환경구성

· 새롭게 탄생한 그림이야기책을 꽂을 수 있는 공간

(3) 교사의 역할

- 유아들이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유아들이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을 도서영역에 꽂아두도록 안내한다.
- 유아들이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을 활용하여 추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전개과정

① 유아들의 활동

유아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그림이야기책을 도서 영역에 꽂아놓고 그림이야기책을 서로 읽어주거나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② 추후활동

1. 유아가 만든 그림이야기책 「지혜반이 만든 지각대장존 이야기」와 원저인 「지각대장존」 그림이야기책을 비교해보면서 토의시간을 갖는다.
2. 극놀이 비디오 대화내용과 유아들이 만든 그림이야기책 본문과 그림내용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3. 구어와 문어의 차이점을 발견해보는 활동을 한다.